【 제 3 분 과 】

전문 용어 정비의 방향

김문오(국립국어원)

<차례>

1. 들머리
2. 전문 용어 정비의 현황
3. 전문 용어 정비의 기준
4. 정비 기준의 구체적 적용 사례
5. 마무리
■ 참고문헌

1. 들머리

정보 통신의 발달로 사회 분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전문 용어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와 생활의 일부가 되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예: 임플란트, 내시경, 엠아르아이 검사(MRI檢査: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한 검사), 시티 촬영(CT撮影: 컴퓨터 단층 촬영), 구제역(口蹄疫), 옴부즈맨 제도, 매니페스토(manifesto, 참공약), 에이아이(AI: 조류인플루엔자), 플라스마, 엘이디(LED: 발광다이오드), 비오디(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드론(무인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또한 정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가고, 대중 매체,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의 정보도 신속하게 유통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반 용어와 전문 용어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세르(Michel Serres)는 언어를 빙산(氷山)에 비유해 수면 위의 상층부를 일반어, 수면 아래의 하층부를 전문어로 나누고, 언어는 이 빙산의 하부(전문어)가 확장될 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지만 기술 어휘, 과학 어휘, 희귀 어휘를 배제하고 상층 어휘(일반어)만 남는 순간, 언어는 힘을 잃고 약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마디니에(2013: 143))[1] '프랑스어와 프랑스의 언어들 총국(DGLFLF)'의 '프랑스어 풍부화 및 발달 부서 책임자'인 마디니에(B. Madinier)는 "(프랑스어의) 풍부화가 … 전문가들 간의 프랑스어 소통을 쉽고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지만, 동시에 다수를 겨냥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일반 대중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 또한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마디니에(2013: 149)). 여기서 전문가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정확성, 적확성, 전문성'을 추구하는 일이고, 사회 구성원인 일반 대중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화의 관점은 '평이성, 수월성, 대중성'을 추구하는 일이어서 자칫 양자는 상충될 소지도 있지만, 양자를 모두 균형되게 추구하는 것이 '언어 풍부화' 또는 '전문 용어 정비(개선, 표준화)'의 목표임을 추론할

1) 마디니에(2013)에서 재인용. '미셸 세르'의 주장은 143쪽(한국어 번역 원고), 185쪽(프랑스어 원고) 참조.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문 용어의 일상용어화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각 분야의 전문 용어에 대해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전문 용어의 원활한 소통이 국가의 언어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의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의 정비[2]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각 중앙 행정 기관이나 학회·협회 등에서 전문 용어의 정비를 자발적으로 활발히 추진하되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총괄·조정하는 데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전문 용어 혼란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 발생도 줄이며 남북의 언어 통일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전문용어 정비의 국내 현황, 전문용어 정비의 지침, 전문 용어 정비의 구체적 적용 사례, 전문 용어 정비를 위한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살펴봄으로써 전문 용어 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전문 용어 정비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법은 「국어기본법」(2005년 1월 27일 제정, 2005년 7월 28일 시행)이다. 「국어기본법」은 세계화·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 언어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자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나 그동안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기에 국어 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어의 국외 보급 및 국어 정보화 등을 통한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법 제정 당시 '전문 용어 표준화'도 주요 내용 중의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3].

「국어기본법」 제17조에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 행정 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영 제12조 제1항),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 및 체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4]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

2) 이 글에서는 전문 용어의 개선과 표준화 모두를 아울러 '전문 용어 정비'라고 지칭하겠다. 전문 용어 정비라는 용어를 문맥에 따라 때로는 전문 용어의 개선(순화), 때로는 전문 용어의 표준화의 의미로 사용할 것이다. '전문 용어의 개선(또는 순화)'이란 '어려운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다듬는 일'을 가리키며, '전문 용어의 표준화'란 주로 혼용되는 용어들을 단일한 표준 용어로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참고] 표준화는 동일 의미의 이형태 전문 용어가 존재하거나 같은 형태의 전문 용어가 의미상 차이를 보일 경우 그것을 통일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허재영·김문오(2014: 8)) '전문 용어의 표준화'가 광의로 쓰일 때에는 전문 용어를 쉽게 다듬는 용어 순화와 용어 표기 단일화를 모두 포함하지만, 협의로 쓰일 때에는 분야 간 또는 분야 내에서 용어의 표기를 단일화하는 일을 주로 가리킨다.

3) 대한민국정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제15907호 제161면(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8호 「국어기본법」)에 「국어기본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새국어생활』 15권 1호(2005: 222)의 '국어기본법 제정 소식'에도 동일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 함께 참고할 수 있다.

청하고, 심의 결과를 회신받아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영 제12조 제2항~제3항),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은 고시된 전문 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영 제12조 제4항).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제시되어 있다(영 제12조 제5항)[5].

「국어기본법」 시행(2005. 7. 28.) 이후, 정부가 전문 용어 표준화 사업을 하여 고시까지 완료한 것은 현재 2건이 있다. 「문화부 발굴 행정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3-9호, 2013. 3. 8. 제정 및 시행. 가건물→임시 건물, 디브레인→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 행정 분야 용어 312개), 「전력분야 전문용어 표준화」(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96호, 2015. 5. 22. 제정 및 시행. 비회(飛灰)→날림재, 블랙아웃→대정전 등 전력 용어 90개). 이 외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금년 7월 중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방송 통신 분야 전문 용어 중 표준화 확정 용어(공격용 불깃→공격 도구 모음, 그린 IT→녹색정보기술/친환경정보기술 등 52개)도 있다. 한편 중앙 행정 기관에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가 확정되었으나 해당 부처의 사정으로 아직 고시가 되지 않은 대상으로는 행정자치부의 행정 용어 표준화 결과(가금류→사육 조류, 가내시(假內示)→임시 통보 등 행정 용어 503개 고시 대상으로 심의 확정, 2011. 12. 28. 심의 요청, 2012. 6. 28. 문화체육관광부 당시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로 공문 회신)와 외교부의 유엔 전문 용어 표준화 결과(Arms Trade Treaty(ATT): 무기 거래 조약, 확산 금융 → 대량파괴무기 확산 재원 조달 등 68건 고시 대상으로 심의 확정, 2014. 8. 26. 심의 요청, 2014. 9. 19.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로 공문 회신)도 있다. 앞에서 소개한 표준화 결과들은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검색 창(http://www.korean.go.kr/sunhwa)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탑재되어 있다(고시 완료 분뿐만 아니라 국어심의회 심의 완료분까지 탑재함).

한편, 2014년 중앙 행정 기관의 대변인들이 모여 '쉽고 바른 공공언어[6] 쓰기'의 일환으로 두 가지 결의를 한 바 있다. 제12회 부처 대변인협의회(2014. 3. 28.)에서 44개 중앙 행정 기관[7]의 대변인들은 '보도 자료'와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겠다는 결

4) 전화로 확인하여 비공식적 통계이기는 하지만 44개 중앙 행정 기관 내에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가 구성된 기관은 2015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8개 기관으로 파악되었다.

5)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과 관련한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에서 추진할 때에는 정부 업무의 소관 부처를 따져 관련 중앙 행정 기관에 심의 요청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 후 해당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의사협회 등에서 마련한 의학용어의 표준화안이 있을 때 대한의사협회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심의 요청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마친 표준화안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 해당 전문 용어의 소관 중앙 행정 기관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바로 심의를 요청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절차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전문 용어 표준화의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야 할 중앙 행정 기관이 해당 전문 용어의 표준화 협의 절차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전문 용어 표준화의 결과를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단체(학회, 협회) 표준화안으로, 특별히 관련되는 중앙 행정 기관이 없거나 다수의 중앙 행정 기관에 관련되는 표준화안일 경우, 그 민간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여기서 '공공언어'란 법령·공문서·공공 기관의 보도 자료·안내문·계시문, 신문·방송 등에 사용되는 용어·표현·문장·발언 등과 같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띠고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7)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에 참여하는 44개 중앙 행정 기관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의를 한 것이다. 그 후속 조치로 2014년에는 5월~11월(7개월간) 전문 용어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3월~12월(10개월간) 전문 용어 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4년 5월부터 11월까지 497건의 전문 용어 개선안을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149건 원안 통과, 138건 보완(대체 용어 제안), 210건 제외(고유 명칭, 이미 순화한 용어, 쉬운 용어, 개념 불일치 등은 제외)로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267건의 전문 용어 개선안을 접수하여 검토한 결과 91건 원안 통과, 79건 보완, 97건 제외로 결과가 나왔다. 작년과 올해 추진한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의 결과는 앞서 소개한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검색 창에서 '전문용어'라는 검색어를 쳐 보면 확인할 수 있다(예: 'HACCP→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해썹(HACCP)', 'ODA→공적 개발 원조',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낙골당→봉안당' 등)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은 '각 부처의 대변인실(중앙 행정 기관의 국어책임관은 각 부처 대변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점과 관련성이 있음[8])의 전문 용어 개선안 제출',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심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심의' 및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표준화 결과 고시' 등의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각 중앙 행정 기관의 대변인실에서는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전문 용어 중 순화가 필요한 용어 3개 내외(최대 5개까지)를 매월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 용어 개선의 실적이 쌓일수록 새로운 개선 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부처 실무자들의 호소도 늘고 있다. 실제로 이미 제출한 용어, 이미 순화어가 있는 용어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다시 제출하기도 하고, 일반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은 외국어 약자로 된 명칭 등의 개선안을 제출하는 일도 많다. 이는 전문 용어 정비가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 이루어지기보다 단기적인 과제 제출식의 접근에서 오는 문제로 판단된다. 현재 국어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그 개정안 내용 중에는 국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국어전문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책임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앙 행정 기관에서 '국어전문관'을 둔다면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정비 업무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전문 용어 정비의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704: 2009'(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에서는 '용어(term)' 또는 '명칭(appellation)'의 형성 원칙으로 '투명성', '일관성', '적합성', '언어 경제성', '파생성 및 합성성', '언어학적 정확성', '고유어 우위성'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9]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원에서는 ISO 704: 2009에 대응하는 한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이상 17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상 5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이상 16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상 6위원회).

8) 「국어기본법」 제10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중앙 행정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고, 국어책임관의 임무 중에는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영 제3조 제2항 참조).

어 번역본을 마련한 바 있다. 표준번호 '**KS X ISO 704:2010'**, 표준명 '**전문용어 연구－원칙 및 방법**(Terminology work－Principles and methods)'이 그것인데, "이 표준은 표준화 프레임워크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전문용어를 조사하고 작성하기 위한 기본 원칙 및 방법을 수립하고 조화롭게 만든다. 이 표준은 객체, 개념 및 해당 표현 간의 링크를 전문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설명한다. 또한 명칭의 형식과 정의의 체계를 결정하는 일반 원칙을 수립한다."라고 적용 범위를 밝히고 있다.

이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전문 용어 또는 명칭의 형성 원칙'으로 소개한 일곱 가지 기준인 '투명성', '일관성', '적합성', '언어 경제성', '파생성 및 합성성', '언어학적 정확성', '고유어 우위성'을 차례로 살펴보겠다(출처: 'ISO 704: 2009(Terminology work － Principles and methods)', 38~41쪽).

3.1. 투명성(transparancy)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용어나 명칭이 가리키는 개념(concept)이 정의나 설명이 없이 추론(infer)될 수 있을 때, 그 용어나 명칭은 투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용어나 명칭의 의미가 정의나 설명이 없이 부분에서 추론될 수 있을 때 투명성이 있다. 용어가 투명성을 지니려면 가장 중요한 특징(key characteristic)이 용어나 명칭 그 자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예)

1. '토크 렌치(torque wrench)' 대(對) '멍키 렌치(monkey wrench)'

대개 조립체의 너트나 볼트를 죌 때 토크(회전력)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되는, '토크 렌치'는 의미가 투명하다. 반면에 그 발명가의 이름을 본따서 명명한 '멍키 렌치'는 의미가 불투명(opaque/not transparant)하다.

---

9) 국제표준화기구(ISO) 704: 2000에서는 전문 용어의 개념 체계와 개념 관계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전문 용어 연구(국립국어원 2007, 고석주·이현주 외 2명, 태학사) 14~15쪽 재인용).
① 용어의 일의성: 하나의 용어는 하나의 개념을 지칭해야 하며 또한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명칭으로 불려야 한다.
② 용어의 투명성과 명시성: 용어를 통해 그 개념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을 만큼 명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③ 용어의 간결성: 개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한, 불필요하거나 너무 과도한 정보를 명칭에 담지 말아야 한다.
④ 용어의 일관성: 개념의 체계와 용어의 체계는 일관된 방식으로 서로 대응되어야 한다.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가능한 한 동일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개념이 더 특수화할수록 그 명칭 또한 더욱 정밀해져야 한다.
한편, 'ISO 704: 2009'의 '용어(term)/명칭(appellation) 형성 원칙'에서는 '투명성', '일관성', '적합성', '언어 경제성', '파생성 및 합성성', '언어학적 정확성', '고유어 우위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0년과 2009년의 용어를 대조해 보면 '일관성'은 유지되고 있고, '용어의 일의성'은 '적합성'에, '투명성과 명시성'은 '투명성'에, '간결성'은 '언어 경제성'에 거의 대응됨을 알 수 있고, '파생성 및 합성성', '언어학적 정확성', '고유어 우위성'은 새로 추가된 기준임을 알 수 있다.

2. '열 잡음(thermal noise, 熱雜音)' 대 '존슨 잡음(Jonson noise)'
마찬가지로, '열 잡음'이라는 용어는 '존슨 잡음'이라는 용어보다 더 투명하다.

3. '정부기관, 이사회, 위원회에 대한 정부 전담팀(Government Task Force on Agencies)' 대 '우드 전담팀(Wood Task Force)'
'정부기관, 이사회, 위원회에 대한 정부 전담팀(Government Task Force on Agencies)'이라는 용어는 그 전담팀이 다루는 주된 문제를 분명하게 지시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반면에 '우드 전담팀(Wood Task Force)'은 그 전담팀 의장인 '밥 우드(Bob Wood)'의 이름을 본딴 것인데 의미가 투명하지 않으며 심지어 '목재(wood)'를 다루는 전담팀으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3.2. 일관성(consistancy)

어떠한 주제 분야의 전문 용어든지 자의적, 임의적인 용어의 무리(arbitrary and random collection of terms)여서는 안 되며, 개념 체계에 대응되는 일관성 있는 전문 용어 체계여야 한다. 기존의 용어, 명칭은 새로운 용어, 명칭과 (함께) 개념 체계에 통합되어야 하고, 개념 체계와 일관되어야 한다.

(예)

•합성 섬유: 나일론(nylon), 올론(orlon), 데이크론(dacron), 레이온(rayon) 등
새로운 합성 섬유에 대한 어떤 명명(designation)이든 끝부분이 '-on'으로 끝날 것이며, 개념 체계에서 발생하는 유형(pattern)을 준수(respect)할 수 있다.

•회사의 직함: 재무 담당 부사장(VP of Finance), 마케팅 담당 부사장(VP of Marketing), 생산 담당 부사장(VP of Production) 등
새로운 직위(position)에 대해 어떤 새로운 직함(title)이 만들어지든 "VP of"로 구성될 것이며, 개념 체계에서 발생하는 유형(pattern)을 준수(respect)할 수 있다.

3.3. 적합성(appropriateness)

제안된 용어나 명칭은 한 언어 공동체 안에서 잘 알려져 있고, 확립된 의미의 유형(patterns of meaning)을 고수하여야 한다. 혼동을 초래하는 조어(造語)는 피해야 한다.

(예 1)

컴퓨터 용어 '인스톨 위저드(install wizard)'는 혼동을 주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 설치(installing software)용의 '위저드[10]' 유형(type)에 대한 이름이라기보다는 '위저드를 설치하라'라는 명령어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적합한 용어는 '인스톨레이션 위저드(installation wizard)'이다. 이 용어는 분명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또는 과업 project)을 (각국의 언어로) 지역화하는 데에서 오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용어는 가능한 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용어는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하는 함축(distracting connotations)', 특히 부정적 함축을 피해야 한다.

(예 2)

'언어 기술(language technology)'이라는 용어는 초기의 '언어 공학(language engineering)'이라는 용어를 전반적으로 대체하였다. 부분적으로는 후자를 번역할 때의 문제점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부정적 함축 때문이기도 하다. 'language engineering'은 언어 처리를 위한 공학적 솔루션[11]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조작하는 것(engineering a language)을 포함하는 것으로 믿게 할 소지가 있다.

3.4. 언어 경제성(linguistic economy)

용어는 가능한 한 간결하여야 한다. 과도한 길이는 심각한 단점이다. 과도한 길이는 언어 경제성 원리를 위배하며, 흔히 생략이나 누락으로 이끌게 된다.

(예 1)

'전자 우편(electronic mail)'을 대신하는 '이메일(e-mail)'[12]

간결성(conciseness) 요건은 흔히 정확성(accuracy) 요건이나 투명성(transparancy) 요건과 상충된다. 용어에 포함되는 (의미) 자질(characteristics, 특질, 특성)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성이나 투명성은 증가한다. 그러나 하나의 용어에 포함된 자질의 수가 증가할수록 흔히 용어는 너무 길어지고 사용하기 불편해진다. '실현 가능성(practicality)'이 하나의 용어 생성 유형에 우선권을 주는 결정을 좌우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길고 정확한 용어가 부적합할 때(예: 공장에서 입말로 소통할 때)에는 언제나 단축형이 선호될 것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복잡한 용어는 과학적 출판물에서 용인될 것이다.

다수의 문맥에서 온전한 형태와 단축형은 공존한다. 단축형은 온전한 형태와 달리, 동의어(synonym)나 동음이의어(homonym)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종류의 잠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 단축형 사용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전문 용어 연구자들이 할 일이며, 단축형 사용자들도 단축형이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다수의

10) 위저드(wizard): ▸대화 형식으로 몇 단계의 복잡한 조작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 기능.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워드'나 '엑셀'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동의어: 마법사'.<출처: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 2011., 일진사>,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복잡한 동작을 문답식으로 쉽고 편리하게 진행시켜 주는 소프트웨어<출처: 매일경제, 매경닷컴>.

11) 솔루션(solution): 소프트웨어 패키지나 응용프로그램과 연계된 문제들을 처리해 주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이다. 컴퓨터 사용자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서비스·응용 프로그램·파일 형식·회사·상표명·운영 체제 등을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원하는 해결책을 구할 때 사용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12)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메일'이 간결하기는 하지만 '전자 우편'으로 순화해서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e-'는 '전자통신 · 인터넷'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데, e-learning(전자학습), e-book(전자책), e-commerce(전자 상거래), e-sports(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 따위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통칭. 이스포츠) 등도 가능한 한 순화해서 쓰는 것을 권장한다. 외국어 접두사 'e-'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해당 용어가 처음 출현할 때 단축형과 함께 온전한 형태를 제시하고,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통틀어서는 단축형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이다.

(예 2)

>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를 대신하는 '더블유에이치오(WHO)', '동남아시아 지역(South-East Asia Region)'을 대신하는 '에스이에이아르(SEAR)'[13]

3.5. 파생성 및 합성성(derivability and compoundability)

개별 언어에서 널리 퍼진 관례를 따라 파생어와 합성어를 허용하는 생산적인 용어의 형성은 장려되어야 한다.

(예)

> 'herb(허브)' 대 'medical plant(약용 식물)'
>
> 'herbaceous(풀의, 초본의, 풀잎 모양의, 풀이 심어진), herbal(허브[약초]의, 허브[약초]로 만든), herbalist(약초 재배자, 약초상, 약초학자, 약초 채집가, 약초의(醫)), herby(초본성의, 풀이 많은)'라는 파생어를 지니는 'herb'라는 용어는 아무런 파생어도 갖지 못하는 'medical plant'라는 용어보다 더 선호된다.

3.6. 언어학적 정확성(linguistic correctness)

조어된 신어나 명칭이 해당 언어의 형태론적(morphological), 형태통사론적(morphosyntactic), 음운론적(phonological)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3.7. 고유어 우위성(preference for native language)

다른 언어에서 차용하는 것이 용어 형성법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외국어 차용어보다 고유어 표현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엄밀히 말하면, '명칭(appellation. 고유명칭)'은 원래의 언어 자체에 남는 것이지 번역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별 개념(individual concept)은 상이한 언어들 간에 하나의 명칭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개별 개념이 여러 언어에서 하나의 명칭(an appellation)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한 국가의 언어 정책', '해당 개념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정도', '해당 실체(entity)의 다언어적 성질(multilingual nature)', '국제적 협력 및 국제 관계에 대한 수요'에 의존한다.

(예)

> 캐나다와 같은 이중 언어 국가에서 연방 정부의 명칭은 영어와 프랑스어 둘 다 존재한다. 스위스에서는 (연방 정부의 명칭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로 다수의 명칭이 존재한다.
>
> 국가와 수도처럼 주요한 지리적 실체(geographical entity)들이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면 그 결과 다음 예와 같이 여러 언어로 명칭이 존재한다. (예) 이탈리아:

13) 우리나라에서는 약칭 '에스이에이아르(SEAR)'를 잘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를 뜻하는 '에이팩(APEC)'이라는 약칭이 우리나라에서는 더 적절한 예로 와 닿을 것이다.

Italia(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Italy(영어), Italie(프랑스어), Itaalia(에스토니아어), 미국: United States(영어), ÉTATS-Unis(프랑스어), Estados Unidos(에스파냐어), Estado Unido(포르투갈어), Ameerika Ühendriigid(에스토니아어) (ISO 3166을 보라).

국제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국제연합기구들은 다양한 언어로 명칭들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Ernährungs-und Landwirtschaftsorganisation der Vereinten Nationen(FAO)[독일어], Organisation des Nations Unies pour l'agriculture(FAO)[프랑스어], Organizzazione delle Nazioni Unite per l'alimentazione e l'agricoltura(FAO)[이탈리아어], De Forenede Nationers Levnedsmiddel- og Landbrugsorganisation(FAO)[덴마크어], Organização das Nações Unidas a Agricultura e Alimentação(FAO)[포르투갈어], [illegible](FAO)[아랍어] 등의 명칭들이 있다.

국제 사회에서 정한 규율에 따르는(directed) 문서에서, 그 원어 명칭이 (미리 알려져)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명칭은 원어로 사용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 협력과 이해의 목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 공식 회견(international audience)에서 정한 규율에 따르는 문서에서 아일랜드어 명칭 '아라스 노우흐터라인(Áras an Uachtaráin)'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원어로 사용하는 것) 대신에 영어 대역어(english equivalent)인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of Ireland(아일랜드 대통령 관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표 언어에서 대역 명칭이 없는 명칭은 보통 원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법적 실체(legal entity)들의 경우, 명칭은 법적인 문서에 기록된 형태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명칭들은 다른 언어에서도 통상적으로 쓰이는 공식적 번역어가 있고, 그러한 다수의 명칭들은 표준적 증명서라든지 사용 가능한 공식 번역어의 목록에 포함되기도 한다. 사용할 만한 공식 번역어가 없는 경우에는 말소리를 전사(轉寫)하거나, 이해를 돕는 정도의 번역 혹은 설명을 수반할 수 있다.

이상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전문 용어 또는 명칭의 형성 원칙'으로 소개한 일곱 가지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기준은 각국에서 전문 용어나 명칭을 표준화하는 데 적용할 만한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 예도 있다. 국내 상황에 맞는 정비 지침으로는 적합한 규정의 명세화와 그에 맞는 충분한 예시 등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국립국어원(공공언어과)에서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국어정책과)를 통해 작년부터 각 중앙 행정 기관에 안내해 오고 있는, '전문 용어 개선안 검토 기본 원칙'[14]은 다음과 같다. 이 원칙은 현재 각 중앙 행정 기관이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전문용어 표준화안에 대해 국립국어원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할 때에도 같이 적용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14) 허재영·김문오 외(2014)는 전문용어 개선 지침 마련과 부처별 어려운 전문용어 개선 지원, 순화어 정비 지침 마련과 순화어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중 18~19쪽에 '전문 용어 정비의 기본 원칙'을 "1.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국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선한다./ 2.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를 사용한다./ 3. 부정적인 의미나 함축적인 의미를 띠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다./ 4. 국어 어문 규범과 조어법을 준수한다./ 5. 해당 용어의 개념을 투명하고 간결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2014년 연초부터 국립국어원(공공언어과)의 전문 용어 개선안 검토의 실무에 적용하던 원칙이었다. 2015년부터는 2014년의 적용 기준에서 순서를 조정하고 표현도 약간 보완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 기본 원칙 》

1.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낯선 외래어 등을 **사용하지 말고 쉬운 국어로 표현**하여야 함.
2. 해당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내어야 함.
3.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4. **국어 어문 규범과 조어법을 준수**하여야 함.
5. **부정적·함축적 의미를 띠지 않으며,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4. 정비 기준의 구체적 적용 사례

이제 국립국어원이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14년 4월부터 마련하여 적용해 오고 있는 두 가지 정비 기준('정비 대상어 선정 지침' 및 '대상 용어 개선 지침')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 이 내용은 허재영·김문오(2014: 37~50)의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4.1. 정비 대상 용어 선정 지침

중앙 행정 기관 전문 용어 중 개선해야 할 대상 용어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첫째,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선 대상이 되는 한자어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빈도가 떨어지는 한자어로 이루어진 용어이다. 특히 이러한 용어는 전문 분야에서 오랜 시간 사용된 용어로 설명 없이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이다. 아래 <표 1>은 소통성이 떨어지는 어려운 한자어가 개선 대상이 된 예이다.

<표-1>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계통병입	系統倂入	계통 연결	울진 6호기가 3개월간의 시운전을 무사히 마치고 계통병입에 이르렀다.
길항작용	拮抗作用	대항 작용	길항작용이 일어나면 다른 약물에 의해 작용의 일부가 감소되기도 한다.
치면열구전색술	齒面 裂溝 塡塞術	치아홈 메우기	충치(치아우식)'의 예방치료인 치면열구전색술의 수혜인원(6~14세)이 2010년 ~ 2013년간 연평균 약 50만 명 정도로 나타났다.

둘째, 전문 용어로서 전달하려는 개념과 대상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대상어를 선

정한다. 이러한 용어의 정비 사례는 아래와 같다.

<표 2> 전달하려는 개념과 대상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예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가결산	假決算	중간 결산	사업연도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때를 말한다.
생활 조정 수당	生活調整手當	복지 증진 수당	생활 조정 수당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생활 안정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였다.
이직 확인서	離職確認書[15]	퇴직 확인서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직 확인서가 필요하다.

셋째, 한자어 약어(略語)로 이루어진 전문 용어 가운데 소통성이 떨어지는 용어를 선정한다. 이러한 용어는 약어 표기 때문에 본래의 의미나 표기를 알아보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표 3> 한자 약어 표기로 전달력이 떨어지는 용어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군직정비	軍直整備	군 직접 정비	군직정비는 국가가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와 현금보전의 경우에 실시한다.
예가	預價	예정 가격	조달청은 이번 입찰의 예가를 공개하였다.
직결선	直結線	직접 연결선	철도공단은 KTX 포항 "직결선"이 마산터널을 관통한다고 밝혔다.

넷째, 로마자 약어(略語)로 소통성이 떨어지는 용어를 대상어로 선정한다. 전문 용어의 특성상 외국에서 들어온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 용어 중 상당수가 로마자 약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보였다. 다음은 로마자 약어 표기에 대한 예이다.

<표 4> 로마자 약어 표기로 전달력이 떨어지는 용어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AMI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 계량기(AMI)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으로는 수요관리사업, 전기차 충전사업, AMI 활용 부가서비스 사업 등이 있다.

15) '이직'에는 동음이의어 관계인 離職(직장이나 직업을 그만둠)과 移職(직장을 옮기거나 직업을 바꿈)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는 離職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용 빈도는 '이직(移職)'이 높은 편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청구 시 '이직확인서'가 '퇴사확인서'로 통용된다. 고용노동부에서 향후 법령 개정까지 고려하여 '퇴사확인서'를 개선안으로 제안한 바 있지만, 공무원의 이직 시 '퇴직'이라고는 표현해도 '퇴사'라고는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퇴사확인서'를 '퇴직확인서'로 보완하여 결과를 통보하였다(2014년 7월).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 자원 개발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교육훈련기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HRD담당자업무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우리나라는 ODA 예산을 전체예산의 5%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다섯째, 외국어 음차 표기로 이루어진 전문 용어 가운데 소통성이 떨어지는 용어를 대상어로 선정한다. 이러한 음차 표기는 본래의 의미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래어 표기법이 어긋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표 5> 음차 표기로 소통성이 떨어지는 용어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글로컬라이제이션	Glocalization	세방화(世方化)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으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주목 받고 있다.
사이버 멘토링	Cyber Mentoring	누리 상담	청년 여성들의 진로를 돕기 위해 사이버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퍼베이시브 컴퓨팅	Pervasive Computing	온누리 컴퓨터 기술	퍼베이시스 컴퓨팅 기술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컴포넌트,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등이 있다.

여섯째, 부정적 느낌을 주는 전문 용어나 특정 대상을 차별하는 느낌을 주는 용어를 대상어로 선정한다. 이러한 용어는 주로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한 용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표 6>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 및 차별어

대상 용어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농아	聾啞	1. 청각·언어 장애인 2. 청각·언어 장애	농아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필요하다.
맹인	盲人	시각장애인	맹인들의 복지 및 취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병자	精神病者	정신질환자	정신병자를 입원시켜서 전문치료를 하여 사회복귀를 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
간질	癎疾	뇌전증 (腦電症)	간질은 임신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신경학적 질병중 하나이다.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奉安堂)	돌아가신 분을 납골당으로 모셨다고 들었다.

일곱째, 표현이나 표기의 정확성을 지키지 못한 전문 용어를 대상어로 선정한다. 표현이나 표기의 정확성을 지키지 못한 용어의 경우 외래어 표기법과 관련한 오류를 많이 살

펴볼 수 있다.

<표 7> 표현이나 표기의 정확성을 지키지 못한 용어

대상 용어	표기법에 맞는 표기	원어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캐패시터	**커**패시터	Capacitor	축전기	세계 최고인 디램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디램(DRAM) 캐패시터 양산 기술'이 선을 보였다.
생물다양성 핫스팟	생물다양성 핫스**폿**	Biodiversity Hot spot	생물 다양성 집중 지역 (대체어 제안)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해외 생물다양성에 대한 공동조사를 수행하며 '생물다양성핫스팟' 지역인 동남 아시아일대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가급적이면 이미 순화한 용어나 특정 상품 또는 상호명이 포함된 용어는 대상어로 선정하지 않는다. 또한 대상 용어가 사용하기 어렵지 않거나 개선안이 더 어려운 경우도 대상어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순화 대상에서 제외한 항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 8> 제외 기준에 따라 대상어로 선정하지 않은 용어의 예

대상 용어	원어	제외 사유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스미싱	SMishing	이미 순화한 용어 (문자결제사기)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신고하면 악성여부를 판별해주는 서비스가 올 연말부터 실시된다.
실링보급제도	Ceiling 普及制度	이미 순화한 용어 (실링: 한도액, 상한, 최고 한도액, 최고 한도)	미국 등은 일부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비관세로 특혜를 제공하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링보급제도를 시행한다.
기프티콘	Gifticon	특정 업체의 고유 명칭	친구가 스마트폰으로 기프트콘을 보냈다.
노노 케어	老老 care	특정 사업의 고유 명칭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분은 국가가 실시하는 노노 케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감액	減額	대상어가 쉬운 용어임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하도급 부당 감액을 금지한다.

4.2. 대상 용어 개선 지침

국립국어원은 중앙 행정 기관에서 제안한 전문 용어 개선안을 검토(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통과, 보완, 제외'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첫째, 개선안이 대상어의 개념을 뚜렷이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2014년에 해당 부처에서 제안한 개선안 가운데 다음과 같은 예는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개선안으로 볼 수 있다.

<표 9> 대상어와 개선안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는 예

대상 용어	개선안	뜻풀이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제외 사유
심리작전	군사정보 지원작전 (軍事情報 支援作戰)	국가정책 및 군사작전의 목표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정된 정보나 기도(企圖)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표적대상에게 전달하는 작전	전투수행 간 전장 공포증을 최소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아군 장병들에 대한 심리작전도 매우 중요하다.	대상어가 지시하는 바는 전투 수행 중의 '전장공포'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을 지시하는 것인데 반해 개선안으로 제시된 '군사정보지원작전'은 '정보'의 측면이 부각된 용어이기 때문에 대상어에서 지시하고자 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가공 세금 계산서	가짜 세금 계산서	물품 등의 거래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과세관청의 자료 상조사를 받고 일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가짜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실물거래가 있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실거래자가 아닌 경우)와 가공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이 발행하는 계산서), 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의미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음.

둘째, 개선안을 만들 때 어감이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표 10> 어감이 좋지 않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의 예

대상 용어	개선안	뜻풀이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제외 사유
CBRNE	화학 사고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및 고폭탄	"화학제난 합동방재센터가 가동 초기인 만큼 새로 도입한 CBRNE전용장비 차량에 대한 조작훈련을 시작했다.	'대상어'가 지시하는 바가 단순히 '사고'를 의미하지 않음에도 '사고'라는 부정적인 느낌으로 개선안이 제시되어 수용하지 않음.
보철구	상이 보조구	신체의 기능장애나 활동력을 잃은 부분을 보충하거나 형태를 바로잡아 주는 기구	관할보훈관서에서 매분기별로 신규자 또는 기간 도래자에게 보철구 지급 안내를 한다.	'상이(傷痍)'는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용어로 <행정용어순화편람>(1993년 고시)에서 '부상'으로 순화한 용어이므로 수용하지 않음.
제1 국민역	전시 근로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 즉 징병검사 대상자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었다.	'전시'의 의미와 '근로'의 의미가 합쳐지면서 부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있음. 특히 '근로'의 의미가 '부지런히 일한다.'의 의미로 봤을 때 '전시'와 어울리지 않아 수용하지 않음.
취약 사업장	위험 사업장	산재발생의 우려가 높은 사업장	폭염으로 인한 취약사업장의 지도 강화가 필요하다.	대상어가 지시하는 '취약'의 의미는 '부족하다'의 의미로 사용해서 설비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부족한 개념을 내포하는

대상 용어	개선안	뜻풀이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제외 사유
				것이지만 위험사업장은 이러한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음.

셋째,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 경우 의사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는 개선안을 피해야 한다.

<표 11>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 때 의사 전달력이 떨어지는 개선안의 예

대상 용어	개선안	뜻풀이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제외 사유
재고매입세액	간이전환납부세액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나 '매입'은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 '재고+매입+세액'을 합쳐 '간이전환납부세액'으로 할 경우 대상어와 표준안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용하지 않음.
기술임치	기술보관계약	개발한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영업상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기업은 기술임치를 통해 새로 개발한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다.	'임치'의 개념이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돈이나 물건을 남에게 맡긴다는 '임치'의 의미와 '보관'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 수용하지 않음.
제척기간	권리기간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적인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해당 지자체가 재산세를 잘못 부과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A 백화점은 제척 기간 내에 취소 청구를 하지 않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제척 기간'이란 '납세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분야에서 '권리'가 사용될 경우 의미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제외함.

넷째, 개선안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표 12> 개선안에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의 예

대상 용어	부처 제시안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개선 사유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의약품 제조 관리 기준	GMP에 적합한 제품 선정이 시급하다.	'제조' 후 관리의 의미는 품질을 관리한다는 의미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을 제외하고 수용함.
TTX	재난관리 모의도상훈련	(재난관리) 도상훈련	금년 한·중·일 TTX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도상 훈련'의 '훈련'에는 이미 '모의'로 치러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도상훈련'으로 대체어 제안

대상 용어	부처 제시안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개선 사유
햅틱 기술	촉각자극기술	촉각 기술	○○전자는 햅틱기술을 도입한 신제품을 출시하였다.	'촉각으로 감지하게 하는 기술'이란 뜻을 갖고 있으나, '촉각'과 '자극'을 함께 쓰지 않아도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촉각기술'을 대체어로 제안함.

다섯째, 경제적인 표현을 위해 생략해도 될 표현은 쓰지 않는다.

<표 13> 경제적인 표현을 위해 생략한 예

대상 용어	부처 제시안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개선 사유
롤러 웨이드	두루마리식 차양	두루마리 차양	어린아이가 루프(loop)를 형성하고 있는 롤러웨이드의 줄에 목이 감겨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중시험을 실시하였다.	한자 '식(式)'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 전달에 어려움이 없으므로, '두루마리 차양'을 대체어로 제안함.
PACS	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	PACS의 구축을 통해 환자는 방사선실에서 엑스레이 촬영 후, 별도의 사진 인쇄물 수령 없이 진료실로 곧바로 전송된 촬영 사진을 보며 진료 받을 수 있다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저장'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저장'을 생략한 '의료 영상 전송 시스템'을 대체어로 제안함.

여섯째, 음절이나 단어의 수가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개선한다.

<표 14> 음절이나 단어를 줄여 간결하게 바꾼 예

대상 용어	부처 제시안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개선 사유
라이프 태그 (life tag)	응급환자 정보인식표	생명팔찌	정부가 의료취약계층의 응급구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라이프태그는 올해 6월부터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 원하는 환자에 한해 무상으로 보급된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대상어를 '응급', '환자', '정보', '인식표'의 네 단어로 표준화하여 의사 전달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상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함. '생명팔찌'를 대체어로 제안함.
무환 수입 (無換輸入, non-payment import)	대금 결제 없는 수입	무상 수입	서울세관은 '관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고 있고, 무환수입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돈이 들지 않는 수입이라는 의미의 '무환 수입'을 대금 결제 없는 수입으로 제시하였으나 간결성이 떨어져 이를 같은 의미의 '무상 수입'으로 바꿔 대체어로 제안함.

대상 용어	부처 제시안	최종 개선안	대상 용어 사용 예시	개선 사유
아이론 정비 [IRON (Inspect & Repair Only as Necessary) 항목]	고장 부분 정비	최소 정비	장비의 불필요한 분해로 인한 고장을 막고 정비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비 방법으로 아이론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고장 부분에 대한 분해 없이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 정비한다는 대상어의 의미를 살리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최소 정비'로 대체어를 제안함.

일곱째, 대상 용어보다 어려운 용어를 피한다.

<표 15> 개선안이 대상 용어보다 어려워 제외한 예

대상 용어	부처 제시안	용어 해설	대상 용어 사용 예시	제외 사유
수입검사	인수검사 (引受檢査, Receiving Inspection)	보급품을 수입할 때, 즉 외부로부터 원재료, 반제품, 제품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수입검사의 검사요령은 수납검사와 같으며 수령검사라고도 한다.	'수입'이라는 이해하기 쉬운 어휘를 '인수'로 바꿔 대상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개선했다고 보기 어려움.
자가공급	자기 사업 관련 내용	사업자가 제화를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에 사용하는 것	제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할 경우 제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	'자가공급' 또는 '자체공급'이 순화한 용어보다 널리 쓰일 뿐만 아니라 수용하기 쉬우므로 수용하지 않음.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개선안을 만들 때에는 이미 진행된 전문 용어 표준화 사례 및 국어 순화 사례를 참고하여 만드는 것이 좋다.

한편, 전문 용어 중 한자어에 한하여, 순화 대상 한자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국어 생활 기초 한자 2000자 목록(안)'을 마련하였다.

이 '국어 생활 기초 한자 2000자 목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출하게 되었다.

1단계: ①**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교과서 편수 자료 Ⅱ -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 - 교육과학기술부, 2011. 50~61쪽), ②**교과서 편수 자료**(Ⅱ~Ⅳ, 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학술 용어**(약 44700개)에 쓰인 **한자 2721자**[16], ③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2014, 서혁 외)의 **매체 교육 필수 어휘** 한자어 3500개의 개별 한자 1632자 중 중복자를 제외한 **한자 1580자**. 이 ①, ②, ③에서 삼중 공통 한자 1207자와 이중 공통 한자 667자를 합해 총 1874자 추출

16) ②교과서 편수 자료(Ⅱ~Ⅳ, 교육과학기술부, 2011)의 학술 용어에 쓰인 한자 2,721자는 허재영·김문오 외(2014: 176~187)의 '교과서 편수 자료 2편~4편(2011. 12.) 수록 용어의 한자 목록'에서 누락 글자(錄, 彙), 중복 글자(金, 索, 條, 茶, 淸 등)를 수정한 후 집계한 것으로서, 원안(2014)과 약간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1	가	價 加 可 家 暇	稼 佳 假 歌 街 架
2	각	刻 却 覺 角 閣	脚 各
3	간	刊 干 簡 間	看 幹 肝
4	갈		渴
5	감	感 減 監	敢 甘 鑑
6	갑		甲
7	강	江 強	講 降 剛 康 綱 鋼
8	개	介 個 槪 開	改 皆 蓋
9	객	客	
10	거	去 居 擧 擧	巨 拒 距
11	건	件 健	巾 乾 建
12	걸		乞
13	검	檢	劍
14	겁		
15	게		憩
16	격	擊 格 激	隔
17	견	堅 見 遣	犬 牽 絹 肩
18	결	決 結	訣
19	겸		兼 謙
20	경	境 敬 景 更 競 經 警	卿 京 庚 慶 耕 輕 驚 傾 徑 硬 鏡 頃
21	계	係 契 季 戒 界 系 繫 繼 計 階	溪 癸 鷄 啓 桂 械
22	고	告 固 孤 故 稿 考 苦 顧 高	雇 古 姑 庫 枯 鼓
23	곡	曲	穀 谷 哭
24	곤	困	坤
25	골	骨	
26	공	供 公 共 功 工 攻 空	孔 恐 貢
27	과	果 科 課 過	寡
28	곽	郭	廓
29	관	官 慣 管 觀 貫 關 館	款 冠 寬
30	괄		括
31	광	光	廣 狂 鑛
32	괘		卦
33	괴	壞	塊
34	교	交 敎 校 較	僑 橋 巧 矯 郊
35	구	久 具 區 口 句 拘 救 構 求 球 究 舊 驅	懼 歐 九 丘 龜
36	국	國 局	菊
37	군	群 軍	君 郡
38	굴		掘 屈
39	궁	宮 窮	弓
40	권	券 權	圈 勸 卷 拳
41	궐		厥
42	궤		軌
43	귀	歸	貴 鬼
44	규	規	糾
45	균	均	菌
46	극	劇 極	戟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47	근	勤 根 近	斤
48	금	今 金	禁 琴 禽 錦
49	급	及 急 級 給	扱
50	긍		
51	기	企 其 器 奇 己 技 期 棄 機 氣 記 起	棋 欺 基 幾 旣 忌 旗 畿 祈 紀 騎
52	긴	緊	
53	길		吉
54	나		那
55	낙	諾	
56	난	難	暖
57	날		
58	남	南 男	
59	납	納	
60	낭		囊
61	내	內 耐	奈
62	녀	女	
63	년	年	
64	념	念	
65	녕	寧	
66	노	怒	努 奴
67	농	農	
68	뇌	腦	
69	능	能	
70	니		泥
71	닉		匿 溺
72	다	多	茶
73	단	單 團 斷 段 短 端	旦 緞 丹 壇 檀
74	달	達	
75	담	擔 談	淡
76	답	答	畓 踏
77	당	唐 堂 當 黨	
78	대	代 大 對 帶 待 臺 貸 隊	
79	덕	德	
80	도	倒 到 圖 塗 導 島 度 挑 渡 盜 跳 途 道 都	悼 濤 萄 逃 刀 徒 桃 稻 逃 陶
81	독	毒 獨 篤 讀	督
82	돈		豚 頓 敦
83	돌	突	
84	동	冬 動 同 東 洞 銅	童 凍
85	두	斗 豆 頭	
86	둔		屯 鈍
87	득	得	
88	등	燈 登 等	
89	라		羅
90	락	樂 落	絡
91	란	亂	卵 欄 蘭
92	랄		辣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93	람	覽	濫
94	랑	浪	郎 廊
95	래	來	
96	랭	冷	
97	략	略	
98	량	兩 糧 良 諒 量 涼	輛 梁
99	려	勵 麗 旅	慮
100	력	力 歷	曆
101	련	練 聯 連 鍊 憐 戀 蓮	
102	렬	列 烈 裂 劣	
103	렴	廉	斂
104	렵		獵
105	령	令 嶺 靈 領	齡 零
106	례	例 禮	隷
107	로	勞 老 路 露	爐
108	록	綠 錄	祿 鹿
109	론	論	
110	롱	弄	籠
111	뢰	賴	雷
112	료	了 僚 料	療
113	룡	龍	
114	루	淚 漏 累	樓
115	류	流 留 類	謬 琉 柳
116	륙	陸	六
117	륜	倫 輪	
118	률	律 率	栗
119	륭	隆	
120	릉		稜 陵
121	리	利 理 裏 離 吏 履	璃 李 里
122	린	鄰(隣)	
123	림	林 臨	
124	립	立	
125	마	馬	摩 磨 麻
126	막	幕 漠 莫	寞
127	만	慢 晩 滿 漫 萬	灣
128	말	末	
129	망	亡 望	妄 忘
130	매	媒 每 買 賣	昧 妹 埋 梅
131	맥	脈	麥
132	맹	猛 盟	盲
133	면	免 面	眠 綿
134	멸	滅	
135	명	冥 名 命 明	鳴 銘
136	모	募 慕 模 母 毛 謀	侮 矛 耗 貌 暮 冒
137	목	木 牧 目	沐 睦
138	몰		沒
139	몽	夢	蒙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140	묘	墓 妙	卯 廟 苗
141	무	務 武 無 舞 貿 霧	撫 戊
142	묵	默	墨
143	문	問 文 聞 門	紋
144	물	物	
145	미	味 尾 微 未 美	米 迷
146	민	敏 民	憫
147	밀	密	蜜
148	박	拍 朴 泊 薄 迫	剝 博 舶 駁
149	반	伴 半 反 盤 般 飯	叛 搬 班 返
150	발	拔 發	撥 髮
151	방	傍 妨 房 放 方 邦 防	訪 倣 芳
152	배	倍 培 拜 背 輩 配	排 裵 陪 杯
153	백	白 百	
154	번	番 繁 飜	
155	벌	罰	閥 伐
156	범	犯 範	凡 帆
157	법	法	
158	벽	壁	碧
159	변	變 邊	辯 辨
160	별	別	
161	병	兵 病 竝	丙 屛
162	보	保 報 寶 普 步 補	譜
163	복	伏 復 服 福 複	腹 覆
164	본	本	
165	봉	奉 封	逢 峯 蜂 鳳
166	부	付 副 否 夫 婦 富 府 扶 浮 父 符 簿 腐 負 賦 部 附	剖 膚 赴
167	북	北	
168	분	分 粉 紛	奔 憤 雰 奮 墳
169	불	不 佛	拂
170	붕	崩	朋
171	비	備 卑 悲 批 比 肥 費 非 飛 鼻 祕	妃 緋 婢 碑
172	빈	貧	賓 頻
173	빙	氷	
174	사	事 似 使 史 司 四 士 寫 寺 射 師 思 査 死 沙 社 祀 私 舍 謝 賜 辭	砂 祠 詐 赦 飼 巳 絲 捨 斜 蛇 詞 邪 仕
175	삭	削 朔	
176	산	山 散 産 算	傘 酸
177	살	殺	
178	삼	三	滲
179	상	上 傷 像 償 商 喪 常 床 想 狀 相 詳 象 賞	尙 霜 桑 祥 裳
180	새	塞	
181	색	索 色	
182	생	生	牲
183	서	序 庶 敍 書 緖 署 西 誓	恕 棲 逝 暑 徐
184	석	夕 席 惜 析 石 釋	昔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185	선	先 善 宣 線 船 選 鮮	仙 旋 禪
186	설	舌 設 說	泄 雪
187	섭		攝 涉
188	성	城 性 成 星 盛 省 聖 聲 誠	
189	세	世 勢 歲 稅 細	洗 貰
190	소	召 小 所 消 疏 素 訴	少 笑 紹 蔬 騷 掃 昭 燒 蘇
191	속	屬 束 續 速	俗 粟
192	손	孫 損	
193	송	訟 送	松 誦 頌
194	쇄	刷 鎖	
195	쇠	衰	
196	수	修 受 壽 守 手 授 搜 收 數 樹 水 秀 輸 遂 隨 需 須 首	帥 殊 粹 繡 酬 鬚 鬚 愁 囚 垂 獸 睡
197	숙	宿 熟 肅	叔
198	순	巡 循 旬 瞬 純 順	盾 殉 脣
199	술	術 述	戌
200	숭	崇	
201	슬		膝
202	습	濕 習 襲	拾
203	승	乘 勝 承 昇	僧
204	시	始 市 施 是 時 矢 示 視 試 詩	侍
205	식	式 息 植 識 食	殖 飾
206	신	信 新 申 神 臣 身 辛	娠 愼 迅 伸
207	실	失 室 實	
208	심	審 心 深	甚 尋
209	십	十	
210	쌍		雙
211	씨	氏	
212	아	兒 雅	我 亞 牙 芽
213	악	岳 惡	堊 握
214	안	安 案 顔	眼 岸 雁
215	암	暗	癌 巖
216	압	壓 押	
217	앙	央	殃 仰
218	애	哀 愛 涯	礙(=碍)
219	액	額	厄
220	야	夜 野	惹 也 耶
221	약	弱 約 藥 躍	若
222	양	揚 樣 洋 讓 陽 養	壤 楊 羊
223	어	語	禦 漁 魚 御
224	억	憶 抑	億
225	언	言	
226	엄	嚴	
227	업	業	
228	여	如 與 輿 餘	
229	역	域 役 易 譯 逆 驛	亦 疫
230	연	延 演 然 煙 燃 硏 緣 軟 鉛	淵 宴 沿 燕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231	열	熱 閱	
232	염	染 炎 鹽	焰 髯
233	엽		葉
234	영	影 映 永 營 英 迎	榮 泳 詠
235	예	藝 譽 銳 豫(=預)	
236	오	傲 午 汚 誤	五 悟 烏 娛
237	옥	屋 獄	玉
238	온	溫	穩
239	옹	擁	翁
240	와	瓦	臥
241	완	完 緩	
242	왈		曰
243	왕	王	往
244	외	外	
245	요	搖 要	腰 謠
246	욕	慾 欲 浴 辱	
247	용	勇 容 用	庸
248	우	于 偶 優 友 右 宇 雨	愚 憂 迂 牛 遇 羽 郵
249	운	運 雲	云 韻
250	울		鬱
251	웅	雄	
252	원	元 原 員 圓 援 源 遠 院 願	園 怨
253	월	月 越	
254	위	位 僞 危 圍 委 威 慰 爲 衛 違	偉 萎 謂 緯 胃
255	유	乳 唯 幼 幽 有 油 由 維 裕 誘 遊 遺	惟 癒 柔 猶 儒
256	육	肉 育	
257	윤	潤	閏
258	융		融
259	은	銀 隱	恩
260	을		乙
261	음	吟 陰 音 飮	
262	읍	邑	
263	응	凝 應	
264	의	依 儀 宜 意 疑 義 議 醫	矣 衣
265	이	二 以 異 移 耳	弛 而 已 夷
266	익	益 翼	
267	인	人 印 因 姻 引 忍 認	咽 靭 仁 寅
268	일	一 日 逸	
269	임	任 賃	妊 壬
270	입	入	
271	잉		剩
272	자	刺 子 字 姿 恣 者 自 資	仔 諮 姊 紫
273	작	作 昨	酌 爵
274	잔	殘	盞
275	잠	暫 潛	蠶
276	잡	雜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277	장	場 壯 奬 將 帳 張 掌 章 粧 腸 莊 葬 藏 裝 長 障	丈 杖 醬 墻 臟
278	재	再 在 宰 才 材 災 裁 財 載	栽
279	쟁	爭	
280	저	低 抵 著 貯	底 沮
281	적	摘 敵 的 積 籍 績 賊 赤 跡 適	寂 滴
282	전	傳 全 典 前 專 展 戰 轉 錢 電	田 殿
283	절	切 節 絕(絶)	折 竊
284	점	占 漸 點	店
285	접	接	蝶
286	정	井 亭 停 定 庭 情 政 整 正 淨 程 精 訂 頂	廷 丁 貞 靜 征
287	제	制 堤 帝 提 祭 製 除 際 題 齊	弟 第 諸 濟
288	조	兆 助 操 早 朝 條 潮 照 祖 組 調 造	弔 措 曹 槽 租 藻 釣 鳥 燥
289	족	族 足	
290	존	存 尊	
291	졸	卒	拙
292	종	宗 從 種 終 縱 鐘	綜
293	좌	佐 左	挫 坐 座
294	죄	罪	
295	주	主 住 周 奏 宙 州 柱 株 注 走 酒	廚 註 週 駐 晝 朱 洲 珠 舟 鑄
296	죽		竹
297	준	準 遵	准
298	중	中 仲 衆 重	
299	즉	卽	
300	즐		櫛
301	증	增 症 證 贈	蒸
302	지	之 地 志 持 指 支 智 止 知 紙 至 遲	只 祉 枝 池 誌
303	직	直 織 職	
304	진	振 珍 眞 進 鎭 陳 震 辰	診 陣
305	질	疾 秩 質	
306	집	執 集	輯
307	징	徵	懲
308	차	借 差 次 車	遮
309	착	着 錯	捉
310	찬	讚	贊 餐 饌
311	찰	察	擦 札
312	참	參 慘	
313	창	創 暢 窓	脹 唱 昌 蒼
314	채	債 彩 採 菜	
315	책	冊 策 責	
316	처	處	悽 妻
317	척		尺 戚 拓 斥
318	천	天 川 薦 賤	泉 踐 千 淺 遷
319	철	哲 徹 鐵	撤
320	첨	尖 添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321	첩		帖
322	청	廳 淸 聽 請 靑	
323	체	替 滯 逮 體	遞
324	초	初 招 草 超	焦 抄 礎 秒
325	촉	促 觸	燭
326	촌	村	寸
327	총	總 銃	
328	촬		撮
329	최	催 最	
330	추	抽 推 秋 追	墜 樞 趙
331	축	畜 祝 縮 蓄	蹴 築 逐
332	춘	春	
333	출	出	
334	충	充 忠 衝	蟲
335	췌		
336	취	取 就 醉	聚 脆 趣 吹 臭
337	측	側 測	
338	층	層	
339	치	値 治 置 致 齒	峙 恥 稚 緻
340	칙	則	
341	친	親	
342	칠		七 漆
343	침	侵 寢 沈 浸 針	枕
344	칭	稱	
345	쾌	快	
346	타	他 妥 打	
347	탁	卓	託 托 濁 濯
348	탄	彈 歎 炭 誕	
349	탈	奪 脫	
350	탐	探	耽 貪
351	탑	塔	
352	탕		湯
353	태	太 態	殆 颱 泰 怠
354	택	宅 擇 澤	
355	토	土 吐 討	
356	통	痛 統 通	筒
357	퇴	退	
358	투	投 透 鬪	套
359	특	特	
360	파	把 播 波 派 破 罷	頗
361	판	判 板 販	版
362	팔	八	
363	패	敗	貝 牌 覇
364	팽		膨
365	편	便 偏 片 編 遍	篇
366	평	平 評	
367	폐	幣 廢 弊 蔽 閉	肺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368	포	包 布 捕 胞	拋 砲 葡 鋪 抱 浦 飽
369	폭	幅 暴 爆	曝
370	표	標 票 表	剽 漂
371	품	品	
372	풍	豊 風	
373	피	皮 被 避	披 疲 彼
374	필	必 筆	畢
375	하	下 何 河 荷 賀	夏
376	학	學	鶴
377	한	寒 漢 閑 限 韓	恨 旱 汗
378	할	割	
379	함	含	艦 咸 陷
380	합	合	
381	항	恒 抗 港 航 項	肛
382	해	害 海 解 該	亥 奚
383	핵	核	劾
384	행	幸 行	杏
385	향	向 鄕 響 香	享
386	허	虛 許	
387	헌	憲 獻	軒
388	험	險 驗	
389	혁	革	
390	현	懸 玄 現 縣 賢 顯	絃
391	혈	血	穴
392	혐	嫌	
393	협	協 脅	
394	형	兄 刑 形 衡	型 亨 螢
395	혜	惠 慧	彗
396	호	互 呼 好 號 護 豪	乎 糊 戶 湖 虎 毫 胡
397	혹	惑	酷 或
398	혼	婚 混 魂	
399	홍	弘 洪 紅	
400	화	化 和 火 華 話 貨 畫	花 禍 禾
401	확	擴 確 穫	
402	환	患 換 歡 環 還	喚 幻 丸
403	활	活	滑
404	황	況 皇 荒	恍 黃
405	회	回 懷 會	廻 灰 膾
406	획	劃 獲	
407	횡	橫	
408	효	效	曉
409	후	候 厚 後	喉
410	훈	訓	薰
411	훼		毁
412	휘	揮	輝
413	휴	休 携	
414	흉		凶 胸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삼중 공통 한자 1207자**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편수자료한자 2721자, 매체 교육 필수한자 1580자의 **이중 공통 한자 667자**
415	흑	黑	
416	흔		痕
417	흡	吸	
418	흥	興	
419	희	喜 希 稀	犧 戲

2단계: 1단계의 1874자 중 전문 용어와 언론 외래어 등에서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빈도가 낮은 38자를 제외하여 1836자를 추출함.

* 제외 한자 목록: 1. 어조사류: 也, 耶, 曰, 于, 矣, 而, 以, 乎 2. 관형사나 부사: 厥, 那, 奈, 若, 亦, 只, 頗, 或 3. 간지(干支) 전용 한자: 庚, 癸, 卯, 戊, 丙, 巳, 戌, 乙, 寅, 壬, 亥 4. 조어력이 낮은 한자: 戟, 喫, 葡, 萄, 李, 鹿, 鳳, 鶴, 櫛, 薰. 5. 기타: 砂(沙와 통자이므로 沙로 단일화 가능).

특히 '어조사류'와, '·관형사/부사류'를 제외한 것은 한문 교육용이 아닌 국어 생활(특히 전문 용어의 이해)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단계: 2단계의 1836자에 전문 용어와 언론 외래어 등에서 합성어나 파생어를 형성할 빈도가 비교적 높은 164자를 추가하여[17] 2000자를 구성함.

번호	음	전문 용어 정비를 위한 기초 한자 2000자(안)	개수
1	가	價(값 가) 加(더할 가) 可(옳을 가) 家(집 가) 暇(겨를 가) 稼(심을 가) 佳(아름다울 가) 假(거짓 가) 歌(노래 가) 街(거리 가) 架(시렁 가)	11
2	각	刻(새길 각) 却(물리칠 각) 覺(깨달을 각) 角(뿔 각) 閣(집 각, 문설주 각) 脚(다리 각) 各(각각 각)	7
3	간	刊(책 펴낼 간) 干(방패 간) 簡(대쪽 간) 間(사이 간, 틈 간) 看(볼 간) 幹(줄기 간) 肝(간 간) 姦(간사할 간) 懇(정성 간)	9
4	갈	渴(목마를 갈) 喝(꾸짖을 갈)	2
5	감	感(느낄 감) 減(덜 감) 監(살필 감) 敢(감행할 감, 용감할 감) 甘(달 감) 鑑(거울 감) 憾(섭섭할 감)	7
6	갑	甲(갑옷 갑)	1
7	강	江(강 강) 強(굳셀 강 =强) 講(익힐 강) 降(내릴 강{항복할 항}) 剛(굳셀 강) 康(편안할 강) 綱(벼리 강) 鋼(강철 강)	8
8	개	介(끼일 개) 個(낱 개) 槪(대개 개, 절개 개 *[사용 예]: 개념, 개론, 개관, 절개 등) 開 改 皆(다 개 *[사용 예]: 개근, 개기일식, 국민개병주의 등) 蓋(덮을 개) 慨(분개할 개)	8

17) 추가된 164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중 추가 한자 71자(姦, 懇, 慨, 傑, 儉, 潔, 恭, 誇, 掛, 怪, 愧, 狗, 叫, 克, 謹, 肯, 寄, 飢, 惱, 但, 糖, 臟, 掠, 忙, 罔, 茫, 孟, 勉, 某, 茂, 勿, 眉, 伯, 煩, 卜, 聘, 嘗, 姓, 淑, 晨, 餓, 諷, 悅, 嗚, 畏, 遙, 悠, 愈, 淫, 泣, 瑟, 俊, 憎, 盡, 姪, 慙, 倉, 妾, 晴, 肖, 聽, 醜, 墮, 匹, 巷, 浩, 昏, 忽, 悔, 孝, 侯).

(2) 교과서 편수 자료 중 추가 한자 8자(棘, 蛋, 膿, 膜, 胚, 澜, 熊, 楕).

(3) 매체 교육 필수 한자 중 추가 한자 85자(喝, 憾, 怯, 訣, 拷, 柩, 麴, 闕, 瀾, 爛, 拉, 慄, 蠻, 惘, 罵, 邁, 魅, 摸, 勃, 廢, 誇, 俳, 璧, 俸, 敷, 訃, 庇, 誹, 憑, 些, 奢, 徙, 爽, 碩, 澳, 膳, 逍, 悚, 羞, 醇, 屍, 熄, 訝, 曖, 臆, 裔, 旺, 歪, 遨, 餘, 憑, 愉, 銓, 愼, 租, 踪, 摯, 旨, 叱, 跌, 斟, 脫, 蹉, 篡, 刹, 猖, 凄, 闡, 諜, 締, 囑, 侈, 熾, 擢, 搭, 跛, 彭, 諷, 逼, 衙, 墟, 絢, 惶, 恰, 洽)

9	객	客(손님 객)	1
10	거	去(갈 거) 居(있을 거, 살 거) 據(의거할 거) 擧(들 거) 巨(클 거) 拒(막을 거) 距(떨어질 거)	7
11	건	件(사건 건) 健(튼튼할 건) 巾(수건 건) 乾(하늘 건) 建(세울 건)	5
12	걸	乞(빌 걸, 구걸할 걸) 傑(뛰어날 걸)	2
13	검	檢(검사할 검) 劍(칼 검) 儉(검소할 검)	3
14	겁	怯(겁낼 겁, 비겁할 겁)	1
15	게	憩(쉴 게)	1
16	격	擊(부딪칠 격) 格(격식 격) 激(물결 부딪쳐 흐를 격) 隔(사이 뜰 격)	4
17	견	堅(굳을 견) 見(볼 견) 遣(보낼 견) 犬(개 견) 牽(끌 견) 絹(명주 견) 肩(어깨 견)	7
18	결	決(결단할 결) 結(맺을 결) 缺(이지러질 결) 潔(깨끗할 결) 訣(비결 결)	5
19	겸	兼(겸할 겸) 謙(겸손할 겸)	2
20	경	境(지경 경) 敬(공경할 경) 景(볕 경) 更(고칠 경{다시 갱}) 競(겨룰 경) 經(날 경) 警(경계할 경) 卿(벼슬 경) 京(서울 경) 慶(경사 경) 耕(밭갈 경) 輕(가벼울 경) 驚(놀랄 경) 傾(기울 경) 徑(지름길 경) 硬(굳을 경) 鏡(거울 경) 頃(밭 넓이 단위 경)	18
21	계	係(맬 계) 契(맺을 계) 季(끝 계) 戒(경계할 계) 界(지경 계) 系(이을 계) 繫(맬 계) 繼(이을 계) 計(꾀 계) 階(섬돌 계) 溪(시내 계) 鷄(닭 계) 啓(열 계) 桂(계수나무 계) 械(형틀 계)	15
22	고	告(알릴 고) 固(굳을 고) 孤(외로울 고) 故(옛 고) 稿(볏짚 고, 원고 고) 考(상고할 고) 苦(쓸 고) 顧(돌아볼 고) 高(높을 고) 雇(품살 고) 古(옛 고) 姑(시어머니 고) 庫(곳집 고) 枯(마를 고) 鼓(북 고) 拷(때릴 고, 고문할 고)	16
23	곡	曲(굽을 곡) 穀(곡식 곡) 谷(골 곡) 哭(울 곡)	4
24	곤	困(괴로울 곤) 坤(땅 곤)	2
25	골	骨(뼈 골)	1
26	공	供(이바지할 공) 公(공변될 공) 共(함께 공) 功(공 공) 工(장인 공) 攻(칠 공) 空(빌 공) 孔(구멍 공) 恐(두려울 공) 貢(바칠 공) 恭(공손할 공)	11
27	과	果(실과 과) 科(과목 과) 課(매길 과) 過(지날 과) 寡(적을 과) 誇(자랑할 과)	6
28	곽	郭(성곽 곽) 廓(둘레 곽)	2
29	관	官(벼슬 관) 慣(버릇 관) 管(대롱 관, 주관할 관) 觀(볼 관) 貫(꿸 관) 關(빗장 관) 館(집 관, 객사 관) 款(정성 관) 冠(갓 관) 寬(너그러울 관)	10
30	괄	括(묶을 괄)	1
31	광	光(빛 광) 廣(넓을 광) 狂(미칠 광) 鑛(쇳돌 광, 광석 광)	4
32	괘	卦(괘 괘) 掛(걸 괘)	2
33	괴	壞(무너질 괴) 塊(흙덩이 괴) 怪(기이할 괴) 愧(부끄러울 괴)	4
34	교	交(사귈 교) 敎(가르칠 교) 校(학교 교) 較(견줄 교) 僑(더부살이 교) 橋(다리 교) 巧(공교할 교) 矯(바로잡을 교) 郊(성 밖 교)	9
35	구	久(오랠 구) 具(갖출 구) 區(지경 구) 口(입 구) 句(글귀 구) 拘(잡을 구) 救(건질 구) 構(얽을 구) 求(구할 구) 球(공 구) 究(궁구할 구) 舊(옛 구) 驅(몰 구) 懼(두려워할 구) 歐(유럽 약칭 구, 구라파 구) 九(아홉 구) 丘(언덕 구) 龜(나라 이름 구{거북 귀, 터질 균}), 柩(널 구, 관 구) 狗(개 구)	20
36	국	國(나라 국) 局(판 국) 菊(국화 국) 麴(누룩 국)	4
37	군	君(임금 군) 群(무리 군) 軍(군사 군) 郡(고을 군)	4

38	굴	掘(팔 굴) 屈(굽을 굴) 窟(굴 굴)	3
39	궁	宮(집 궁) 窮(다할 궁) 弓(활 궁)	3
40	권	券(문서 권) 權(권세 권) 圈(울타리 권, 범위 권) 勸(권할 권) 卷(말 권, 두루마리 권) 拳(주먹 권)	6
41	궐	闕(대궐 궐)	1
42	궤	軌(길 궤)	1
43	귀	歸(돌아갈 귀) 貴(귀할 귀) 鬼(귀신 귀)	3
44	규	規(법 규) 糾(얽힐 규, 규명할 규) 叫(부르짖을 규)	3
45	균	均(고를 균) 菌(버섯 균, 세균 균)	2
46	극	劇(심할 극, 연극 극) 極(다할 극) 克(이길 극) 棘(가시 극)	4
47	근	勤(부지런할 근) 根(뿌리 근) 近(가까울 근) 斤(도끼 근) 謹(삼갈 근)	5
48	금	今(이제 금) 金(쇠 금) 禁(금할 금) 琴(거문고 금) 禽(날짐승 금) 錦(비단 금)	6
49	급	及(미칠 급) 急(급할 급) 級(등급 급) 給(줄 급) 扱(미칠 급)	5
50	긍	肯(즐길 긍, 옳게 여길 긍, 수긍할 긍)	1
51	기	企(꾀할 기) 其(그 기) 器(그릇 기) 奇(기이할 기) 己(자기 기) 技(재주 기) 期(기약할 기) 棄(버릴 기) 機(틀 기) 氣(기운 기) 記(기록할 기) 起(일어날 기) 棋(바둑 기) 欺(속일 기) 基(터 기) 幾(기미 기) 旣(이미 기) 忌(꺼릴 기) 旗(기 기) 畿(경기 기) 祈(빌 기) 紀(벼리 기) 騎(말 탈 기) 寄(부칠 기) 飢(굶주릴 기)	25
52	긴	緊(굳게 얽을 긴)	1
53	길	吉(길할 길)	1
54	낙	諾(승낙할 낙, 허락할 낙, 대답할 낙)	1
55	난	難(어려울 난) 暖(따뜻할 난)	2
56	남	南(남녘 남) 男(남자 남, 사내 남)	2
57	납	納(바칠 납)	1
58	낭	囊(주머니 낭)	1
59	내	內(안 내) 耐(견딜 내)	2
60	녀	女(여자 녀)	1
61	년	年(해 년)	1
62	념	念(생각할 념)	1
63	녕	寧(편안할 녕)	1
64	노	怒(성낼 노) 努(힘쓸 노) 奴(종 노)	3
65	농	農(농사 농)	1
66	뇌	腦(뇌 뇌) 惱(괴로워할 뇌)	2
67	능	能(능할 능)	1
68	니	泥(진흙 니)	1
69	닉	匿(숨을 닉) 溺(빠질 닉)	2
70	다	多(많을 다) 茶(차 다[차 차])	2
71	단	單(홑 단) 團(둥글 단) 斷(끊을 단) 段(구분 단) 短(짧을 단) 端(끝 단) 旦(아침 단) 緞(비단 단) 丹(붉을 단) 壇(단 단) 檀(박달나무 단, 단군 단) 但(다만 단 *사용 예]: 단서[但書]) 蛋(새알 단)	13
72	달	達(통달할 달)	1
73	담	擔(멜 담) 談(말씀 담) 淡(묽을 담)	3
74	답	答(대답할 답) 畓(논 답) 踏(밟을 답)	3
75	당	唐(당나라 당) 堂(집 당) 當(당할 당) 黨(무리 당) 糖(사탕 당)	5
76	대	代(대신할 대) 大(큰 대) 對(대답할 대) 帶(띠 대) 待(기다릴 대) 臺(대 대[높고 평평한 건축물], 돈대[墩臺] 대) 貸(빌릴 대) 隊(대 대)	8
77	덕	德(덕 덕)	1

78	도	倒(넘어질 도) 到(이를 도) 圖(그림 도) 塗(진흙 도) 導(이끌 도) 島(섬 도) 度(법도 도) 挑(돋울 도, 휠 도) 渡(건널 도) 盜(훔칠 도) 跳(뛸 도) 途(길 도) 道(길 도) 都(도읍 도) 悼(슬퍼할 도) 濤(큰 물결 도) 逃(달아날 도) 刀(칼 도) 徒(무리 도) 桃(복숭아 도) 稻(벼 도) 逃(달아날 도) 陶(질그릇 도)	23
79	독	毒(독 독) 獨(홀로 독) 篤(도타울 독) 讀(읽을 독) 督(살펴볼 독)	5
80	돈	豚(돼지 돈) 頓(조아릴 돈) 敦(도타울 돈)	3
81	돌	突(부딪칠 돌, 갑자기 돌, 구들 돌 *[사용 예]: 돌파, 돌진, 돌격, 충돌, 돌연변이, 온돌 등)	1
82	동	冬(겨울 동) 動(움직일 동) 同(한가지 동) 東(동녘 동) 洞(골 동) 銅(구리 동) 童(아이 동) 凍(얼 동)	8
83	두	斗(말 두) 豆(콩 두) 頭(머리 두)	3
84	둔	屯(진 칠 둔) 鈍(무딜 둔)	2
85	득	得(얻을 득)	1
86	등	燈(등잔 등) 登(오를 등) 等(무리 등, 등급 등, 같을 등, 가지런할 등) 騰(오를 등) 謄(베낄 등)	5
87	라	羅(벌일 라, 그물 라)	1
88	락	樂(즐길 락(풍류 악, 좋아할 요)) 落(떨어질 락) 絡(이을 락, 얽을 락)	3
89	란	亂(어지러울 란) 卵(알 란) 欄(난간 란) 蘭(난초 란) 瀾(물결 란) 爛(빛날 란)	6
90	랄	辣(매울 랄)	1
91	람	覽(볼 람) 濫(퍼질 람)	2
92	랍	拉(끌고 갈 랍)	1
93	랑	浪(물결 랑) 郎(사나이 랑) 廊(복도 랑)	3
94	래	來(올 래)	1
95	랭	冷(찰 랭)	1
96	략	略(다스릴 략) 掠(노략질할 략)	2
97	량	兩(두 량) 糧(양식 량) 良(좋을 량) 諒(믿을 량) 量(헤아릴 량) 涼(서늘할 량 =凉) 輛(수레 량) 梁(들보 량)	8
98	려	勵(힘쓸 려) 麗(고울 려) 旅(나그네 려) 慮(생각할 려)	4
99	력	力(힘 력) 歷(지낼 력) 曆(책력 력)	3
100	련	練(익힐 련) 聯(연이을 련) 連(잇닿을 련) 鍊(불릴 련) 憐(불쌍히 여길 련) 戀(사모할 련) 蓮(연밥 련)	7
101	렬	列(줄 렬) 烈(세찰 렬) 劣(못할 렬) 裂(찢을 렬)	4
102	렴	廉(청렴할 렴) 斂(거둘 렴)	2
103	렵	獵(사냥 렵)	1
104	령	令(하여금 령, 명령 령) 嶺(재 령) 靈(신령 령) 領(옷깃 령) 齡(나이 령) 零(영 령, 떨어질 령)	6
105	례	例(법식 례) 禮(예도 례) 隷(종 례)	3
106	로	勞(일할 로) 老(늙은이 로) 路(길 로) 露(이슬 로) 爐(화로 로)	5
107	록	綠(초록빛 록) 錄(기록할 록) 祿(복 록)	3
108	론	論(말할 론)	1
109	롱	弄(희롱할 롱) 籠(대바구니 롱)	2
110	뢰	賴(힘입을 뢰) 雷(우레 뢰)	2
111	료	了(마칠 료) 僚(동료 료) 料(헤아릴 료, 삯 료) 療(병 고칠 료)	4
112	룡	龍(용 룡)	1
113	루	淚(눈물 루) 漏(샐 루) 累(묶을 루, 연루될 루) 樓(다락 루)	4
114	류	流(흐를 류) 留(머무를 류) 類(무리 류) 謬(그릇될 류) 琉(유리 류) 柳(버들 류)	6
115	륙	陸(뭍 륙) 六(여섯 륙)	2

116	륜	倫(인륜 륜) 輪(바퀴 륜)	2
117	률	律(법 률) 栗(밤 률) 率(헤아릴 률/거느릴 솔)) 慄(두려워할 률)	4
118	륭	隆(클 륭)	1
119	릉	稜(모 릉, 모서리 릉, 산등성이 릉) 陵(큰 언덕 릉)	2
120	리	利(이로울 리) 理(다스릴 리) 裏(속 리) 離(떼놓을 리) 吏(벼슬아치 리) 履(신 리) 璃(유리 리) 里(마을 리)	8
121	린	鄰(이웃 린 =隣)	1
122	림	林(수풀 림) 臨(임할 림)	2
123	립	立(설 립)	1
124	마	馬(말 마) 摩(문지를 마, 어루만질 마, 갈 마) 磨(갈 마) 麻(삼 마)	4
125	막	幕(장막 막, 천막 막) 漠(사막 막) 莫(없을 막) 寞(쓸쓸할 막) 膜(막 막)	5
126	만	慢(게으를 만) 晩(저물 만) 滿(찰 만) 漫(질펀할 만) 萬(일만 만) 灣(물굽이 만) 蠻(오랑캐 만)	7
127	말	末(끝 말)	1
128	망	亡(망할 망) 望(바랄 망) 妄(허망할 망) 忘(잊을 망) 惘(멍할 망, 민망할 망) 忙(바쁠 망) 罔(속일 망, 없을 망) 茫(망망할 망)	8
129	매	媒(중매 매) 每(매양 매) 買(살 매) 賣(팔 매) 昧(어두울 매, 새벽 매) 妹(누이 매) 埋(묻을 매) 梅(매화 매) 罵(욕할 매) 邁(갈 매, 힘쓸 매) 魅(홀릴 매, 도깨비 매)	11
130	맥	脈(맥 맥) 麥(보리 맥)	2
131	맹	猛(사나울 맹) 盟(맹세할 맹) 盲(소경 맹, 시각장애인 맹) 孟(맏 맹, 처음 맹, 맹랑할 맹)	4
132	면	免(면할 면) 面(낯 면) 眠(잠잘 면) 綿(솜 면, 이어질 면) 勉(힘쓸 면)	5
133	멸	滅(멸망할 멸)	1
134	명	冥(어두울 명) 名(이름 명) 命(목숨 명) 明(밝을 명) 鳴(울 명) 銘(새길 명)	6
135	모	募(모을 모) 慕(그리워할 모) 模(본뜰 모) 母(어머니 모) 毛(털 모, 유용식물이 자랄 모 *[사용 예] 일모작, 이모작) 謀(꾀할 모, 꾀 모) 侮(업신여길 모) 矛(창 모) 耗(줄 모, 소모할 모) 貌(얼굴 모) 暮(저물 모) 冒(무릅쓸 모) 摸(찾을 모) 某(아무 모, 어느 모)	14
136	목	木(나무 목) 牧(칠 목) 目(눈 목) 沐(머리 감을 목) 睦(화목할 목)	5
137	몰	沒(가라앉을 몰)	1
138	몽	夢(꿈 몽) 蒙(어리석을 몽, 입을 몽)	2
139	묘	墓(무덤 묘) 妙(묘할 묘) 廟(사당 묘) 描(그릴 묘)	4
140	무	務(힘쓸 무) 武(굳셀 무) 無(없을 무) 舞(춤출 무) 貿(바꿀 무) 霧(안개 무) 撫(어루만질 무) 茂(우거질 무, 무성할 무)	8
141	묵	默(잠잠할 묵) 墨(먹 묵)	2
142	문	問(물을 문) 文(글월 문) 聞(들을 문) 門(문 문) 紋(무늬 문)	5
143	물	物(만물 물) 勿(말 물)	2
144	미	味(맛 미) 尾(꼬리 미) 微(작을 미) 未(아닐 미) 美(아름다울 미) 米(쌀 미) 迷(미혹할 미) 眉(눈썹 미)	8
145	민	敏(재빠를 민) 民(백성 민) 憫(근심할 민)	3
146	밀	密(빽빽할 밀) 蜜(꿀 밀)	2
147	박	拍(칠 박) 朴(순박할 박, 후박나무 박) 泊(배 댈 박, 묵을 박) 薄(엷을 박) 迫(닥칠 박) 剝(벗길 박) 博(넓을 박) 舶(큰 배 박) 駁(논박할 박, 얼룩말 박)	9
148	반	伴(짝 반) 半(반 반) 反(되돌릴 반) 盤(소반 반) 般(일반 반) 飯(밥 반) 叛(배반할 반) 搬(옮길 반) 班(반열 반, 차례 반, 자리 반, 나눌 반) 返(돌아올 반)	10

149	발	拔(뺄 발) 發(필 발, 쏠 발, 계발할 발) 撥(다스릴 발) 髮(터럭 발, 머리털 발) 勃(우쩍 일어날 발, 갑작스러울 발) 潑(물 뿌릴 발, 활발할 발)	6
150	방	傍(곁 방) 妨(방해할 방) 房(방 방) 放(놓을 방) 方(모 방) 邦(나라 방) 防(둑 방) 訪(찾을 방) 倣(본뜰 방) 芳(꽃다울 방) 謗(헐뜯을 방)	11
151	배	倍(곱 배) 培(북돋울 배) 拜(절 배) 背(등 배) 輩(무리 배) 配(아내 배, 짝 배) 排(밀칠 배) 陪(모실 배, 배석할 배) 杯(잔 배 =盃) 俳(광대 배, 배우 배) 胚(아이 밸 배 *발생 초기의 어린 생물)	11
152	백	白(흰 백) 百(일백 백) 伯(맏 백)	3
153	번	番(갈마들 번) 繁(많을 번) 飜(번역할 번, 뒤칠 번 =翻) 煩(괴로워할 번)	4
154	벌	罰(죄 벌) 閥(공훈 벌) 伐(칠 벌)	3
155	범	犯(범할 범) 範(법 범) 凡(무릇 범) 帆(돛 범)	4
156	법	法(법 법)	1
157	벽	壁(벽 벽) 碧(푸를 벽) 璧(구슬 벽, 완벽할 벽)	3
158	변	變(변할 변) 邊(가 변) 辯(말 잘할 변) 辨(분별할 변)	4
159	별	別(나눌 별)	1
160	병	兵(군사 병) 病(병 병) 竝(아우를 병 *幷(并)과 통자(通字)) 屛(병풍 병)	4
161	보	保(지킬 보) 報(갚을 보) 寶(보배 보) 普(널리 보) 步(걸음 보) 補(기울 보) 譜(계보 보)	7
162	복	伏(엎드릴 복) 復(돌아올 복[다시 부]) 服(옷 복) 福(복 복) 複(겹옷 복) 腹(배 복) 覆(뒤집힐 복) 卜(점 복)	8
163	본	本(밑 본, 근본 본)	1
164	봉	奉(받들 봉) 封(봉할 봉) 逢(만날 봉) 峯(봉우리 봉 =峰) 蜂(벌 봉) 俸(녹 봉, 급료 봉, 봉급 봉)	6
165	부	付(줄 부) 副(버금 부) 否(아닐 부) 夫(남편 부) 婦(아내 부, 여자 부, 며느리 부) 富(부유할 부) 府(관청 부, 마을 부, 곳집 부, 죽은 아버지 부) 扶(도울 부) 浮(뜰 부) 父(아버지 부) 符(부신 부) 簿(장부 부) 腐(썩을 부) 負(질 부) 賦(부세[賦稅: 세금을 매겨서 부과하는 일] 부, 부역[賦役] 부, 줄 부[사용 예: 天賦人權, 賦存資源 등], 시 지을 부) 部(부서 부, 거느릴 부) 附(붙을 부) 剖(쪼갤 부) 膚(살갗 부) 赴(나아갈 부) 敷(펼 부) 訃(부고 낼 부)	22
166	북	北(북녘 북[달아날 배])	1
167	분	分(나눌 분) 粉(가루 분) 紛(어지러워질 분) 奔(달릴 분) 憤(분노할 분, 분할 분) 雰(안개 분) 奮(떨칠 분) 墳(무덤 분)	8
168	불	不(아닐 불) 佛(부처 불) 拂(떨칠 불, 값 치를 불)	3
169	붕	崩(무너질 붕) 朋(벗 붕)	2
170	비	備(갖출 비) 卑(낮을 비) 悲(슬플 비) 批(칠 비) 比(견줄 비) 肥(살찔 비) 費(쓸 비) 非(아닐 비) 飛(날 비) 鼻(코 비) 祕(신비할 비, 비밀 비) 妃(왕비 비) 緋(비단 비) 婢(여자 종 비) 碑(비석 비) 庇(덮을 비) 誹(헐뜯을 비, 비방할 비)	17
171	빈	貧(가난할 빈) 賓(손 빈) 頻(자주 빈, 빈도 빈)	3
172	빙	氷(얼음 빙) 憑(의지할 빙, 증거 빙) 聘(찾아갈 빙)	3

173	사	事(일 사) 似(같을 사) 使(하여금 사) 史(역사 사) 司(맡을 사) 四(넉 사) 士(선비 사) 寫(베낄 사) 寺(절 사) 射(쏠 사) 師(스승 사) 思(생각할 사) 査(조사할 사) 死(죽을 사) 沙(모래 사 *沙의 俗字: 砂) 社(토지신 사) 祀(제사 사) 私(사사로울 사) 舍(집 사) 謝(사례할 사) 賜(줄 사) 辭(말 사) 祠(사당 사) 詐(속일 사) 赦(용서할 사) 飼(먹일 사) 絲(실 사) 捨(버릴 사) 斜(비낄 사) 蛇(뱀 사) 詞(말씀 사) 邪(간사할 사) 仕(벼슬할 사) 些(적을 사) 奢(사치할 사) 徙(옮길 사)	36
174	삭	削(깎을 삭) 朔(초하루 삭)	2
175	산	山(뫼 산) 散(흩을 산) 產(낳을 산. =産) 算(셀 산) 傘(우산 산) 酸(초산)	6
176	살	殺(죽일 살{감할 쇄})	1
177	삼	三(석 삼) 滲(스밀 삼)	2
178	삽	揷(꽂을 삽. 끼울 삽)	1
179	상	上(위 상) 傷(상처 상) 像(형상 상) 償(갚을 상) 商(헤아릴 상) 喪(죽을 상. 초상 상. 잃을 상) 常(항상 상) 床(상 상) 想(생각할 상) 狀(형상 상{문서 장}) 相(서로 상) 詳(자세할 상) 象(코끼리 상) 賞(상줄 상) 尙(숭상할 상. 오히려 상) 霜(서리 상) 桑(뽕나무 상) 祥(상서로울 상) 裳(치마 상) 爽(시원할 상) 嘗(맛볼 상. 일찍이 상)	21
180	새	塞(변방 새{막힐 색})	1
181	색	索(찾을 색{동아줄 삭}) 色(빛 색)	2
182	생	生(날 생) 牲(희생 생)	2
183	서	序(차례 서) 庶(여러 서. 서자 서) 敍(차례 서) 書(쓸 서) 緖(실마리 서) 署(관청 서) 西(서녘 서) 誓(맹세할 서) 恕(용서할 서) 棲(살 서) 逝(갈 서) 暑(더울 서) 徐(천천할 서)	13
184	석	夕(저녁 석) 席(자리 석) 惜(아낄 석) 析(가를 석) 石(돌 석) 釋(풀 석) 昔(옛 석) 碩(클 석)	8
185	선	先(먼저 선) 善(착할 선) 宣(베풀 선) 線(줄 선) 船(배 선) 選(가릴 선) 鮮(고울 선) 仙(신선 선) 旋(돌 선) 禪(좌선 선) 羨(부러워할 선) 膳(선물 선. 반찬 선) 腺(분비샘 선 *몸속에서 물질을 분비 · 배설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것)	13
186	설	舌(혀 설) 設(베풀 설) 說(말씀 설) 雪(눈 설) 泄(샐 설)	5
187	섭	攝(다스릴 섭) 涉(건널 섭)	2
188	성	城(성 성) 性(성품 성) 成(이룰 성) 星(별 성) 盛(성할 성) 省(살필 성{덜 생}) 聖(성스러울 성) 聲(소리 성) 誠(정성 성) 姓(성 성)	10
189	세	世(세상 세. 대 세) 勢(기세 세) 歲(해 세) 稅(세금 세) 細(가늘 세) 洗(씻을 세) 貰(세낼 세)	7
190	소	召(부를 소) 小(작을 소) 所(바 소) 消(사라질 소) 疏(소통할 소. 트일 소. 성길 소. =疎) 素(흴 소) 訴(하소연할 소) 少(적을 소) 笑(웃을 소) 紹(소개할 소. 이을 소) 蔬(나물 소) 騷(떠들 소) 掃(쓸 소) 昭(밝을 소) 燒(사를 소) 蘇(되살아날 소. 차조기 소) 逍(거닐 소) 瀟(거슬러 올라갈 소. =遡)	18
191	속	屬(엮을 속) 束(묶을 속) 續(이을 속) 速(빠를 속) 俗(풍속 속) 粟(조 속)	6
192	손	孫(손자 손) 損(덜 손)	2
193	송	訟(송사할 송) 送(보낼 송) 松(소나무 송) 誦(욀 송) 頌(기릴 송) 悚(두려워할 송)	6
194	쇄	刷(인쇄할 쇄) 鎖(쇠사슬 쇄)	2
195	쇠	衰(쇠할 쇠)	1

196	수	修(닦을 수) 受(받을 수) 壽(목숨 수) 守(지킬 수) 手(손 수) 授(줄 수) 搜(찾을 수) 收(거둘 수) 數(셀 수{자주 삭, 촘촘할 촉}) 樹(나무 수) 水(물 수) 秀(빼어날 수) 輸(나를 수) 遂(이를 수) 隨(따를 수) 需(구할 수) 須(모름지기 수) 首(머리 수) 帥(장수 수) 殊(다를 수, 특수할 수, 수상할 수) 粹 繡 酬 髓(골수 수) 愁(시름 수) 囚(가둘 수) 垂(드리울 수) 獸(짐승 수) 睡(잘 수) 羞(부끄러워할 수, 부끄러울 수, 음식 수)	30
197	숙	宿(묵을 숙) 熟(익을 숙) 肅(엄숙할 숙) 叔(숙부 숙, 아저씨 숙) 淑(맑을 숙)	5
198	순	巡(돌 순) 循(좇을 순) 旬(열흘 순) 瞬(눈 깜작일 순) 純(순수할 순) 順(순할 순, 좇을 순) 盾(방패 순) 殉(따라 죽을 순) 脣(입술 순 =唇) 醇(진할 순, 순수할 순)	10
199	술	術(꾀 술, 재주 술, 방법 술) 述(지을 술)	2
200	숭	崇(높을 숭)	1
201	슬	膝(무릎 슬)	1
202	습	濕(축축할 습) 習(익힐 습) 襲(엄습할 습) 拾(주울 습)	4
203	승	乘(탈 승, 곱할 승, 불법[佛法] 승) 勝(이길 승) 承(받들 승) 昇(오를 승) 僧(중 승)	5
204	시	始(처음 시) 市(저자 시, 시장 시) 施(베풀 시) 是(옳을 시) 時(때 시) 矢(화살 시) 示(보일 시) 視(볼 시) 試(시험할 시) 詩(시 시) 侍(모실 시) 屍(주검 시, 시체 시)	12
205	식	式(법 식) 息(숨 쉴 식) 植(심을 식) 識(알 식) 食(먹을 식, 밥 식) 殖(번성할 식) 飾(꾸밀 식) 熄(꺼질 식)	8
206	신	信(믿을 신) 新(새 신) 申(펼 신) 神(귀신 신) 臣(신하 신) 身(몸 신) 辛(매울 신) 娠(애 밸 신) 愼(삼갈 신) 迅(빠를 신) 伸(펼 신) 晨(새벽 신)	12
207	실	失(잃을 실) 室(집 실) 實(열매 실)	3
208	심	審(살필 심) 心(마음 심) 深(깊을 심) 甚(심할 심) 尋(찾을 심)	5
209	십	十(열 십)	1
210	쌍	雙(쌍 쌍)	1
211	씨	氏(성씨 씨{나라 이름 지})	1
212	아	兒(아이 아) 雅(맑을 아, 우아할 아) 我(나 아) 亞(버금 아) 牙(어금니 아) 芽(싹 아) 訝(의심할 아) 餓(굶주릴 아)	8
213	악	岳(큰 산 악) 惡(악할 악) 堊(백토 악) 握(쥘 악)	4
214	안	安(편안할 안) 案(책상 안) 顔(얼굴 안) 眼(눈 안) 岸(언덕 안) 雁(기러기 안)	6
215	알	謁(아뢸 알)	1
216	암	暗(어두울 암) 癌(암 암) 巖(바위 암 =岩)	3
217	압	壓(누를 압 *[사용 예]: 압력, 압박) 押(누를 압 *[사용 예]: 압수)	2
218	앙	央(가운데 앙) 殃(재앙 앙) 仰(우러를 앙)	3
219	애	哀(슬플 애) 愛(사랑 애) 涯(물가 애) 碍(거리낄 애 =礙) 曖(희미할 애)	5
220	액	額(액수 액, 이마 액) 厄(재앙 액, 액 액)	2
221	야	夜(밤 야) 野(들 야) 惹(이끌 야)	3
222	약	弱(약할 약) 約(묶을 약) 藥(약 약) 躍(뛸 약)	4
223	양	揚(오를 양) 樣(모양 양) 洋(바다 양) 讓(사양할 양) 陽(볕 양) 養(기를 양) 壤(흙 양) 楊(버들 양) 羊(양 양)	9
224	어	語(말씀 어) 禦(막을 어) 漁(고기 잡을 어) 魚(고기 어) 御(거느릴 어, 통솔할 어)	5

225	억	憶(생각할 억) 抑(누를 억) 億(억 억) 臆(가슴 억, 마음 억, 억측할 억)	4
226	언	言(말씀 언)	1
227	엄	嚴(엄할 엄)	1
228	업	業(업 업)	1
229	여	如(같을 여) 與(줄 여) 輿(수레 여, 대지 여) 餘(남을 여)	4
230	역	域(지경 역) 役(부릴 역) 易(바꿀 역) 譯(번역할 역) 逆(거스를 역) 驛(역참 역) 疫(염병 역)	7
231	연	延(끌 연) 演(펼 연, 멀리 흐를 연) 然(그러할 연) 煙(연기 연) 燃(사를 연) 研(갈 연 =硏) 緣(인연 연) 軟(연할 연) 鉛(납 연) 潤(못 연) 宴(잔치 연) 沿(물 따라갈 연, 따를 연) 燕(제비 연)	13
232	열	熱(더울 열) 閱(검열할 열) 悅(기쁠 열)	3
233	염	染(물들일 염) 炎(불꽃 염) 鹽(소금 염) 焰(불 댕길 염)	4
234	엽	葉(잎 엽)	1
235	영	影(그림자 영) 映(비출 영) 永(길 영) 營(경영할 영) 英(꽃부리 영) 迎(맞이할 영) 榮(영화로울 영) 泳(헤엄칠 영) 詠(읊을 영)	9
236	예	藝(재주 예) 譽(기릴 예) 銳(날카로울 예) 豫(미리 예, 망설일 예, 유예할 예, 預와 通字) 裔(후손 예)	5
237	오	傲(거만할 오) 午(낮 오) 汚(더러울 오) 誤(그릇할 오) 五(다섯 오) 悟(깨달을 오) 烏(까마귀 오) 娛(즐거워할 오) 嗚(탄식할 오)	9
238	옥	屋(집 옥) 獄(감옥 옥) 玉(옥 옥)	3
239	온	溫(따뜻할 온) 穩(평온할 온)	2
240	옹	擁(안을 옹) 翁(늙은이 옹)	2
241	와	瓦(기와 와) 臥(누울 와)	2
242	완	完(완전할 완) 緩(느릴 완)	2
243	왕	王(임금 왕) 往(갈 왕) 旺(성할 왕, 왕성할 왕)	3
244	왜	歪(비뚤어질 왜)	1
245	외	外(밖 외) 畏(두려워할 외)	2
246	요	搖(흔들릴 요) 要(요긴할 요) 腰(허리 요) 謠(노래 요) 邀(맞을 요, 맞이할 요) 饒(넉넉할 요) 遙(멀 요)	7
247	욕	慾(욕심 욕) 欲(하고자 할 욕) 浴(목욕할 욕) 辱(욕되게 할 욕)	4
248	용	勇(날쌜 용) 容(얼굴 용) 用(쓸 용) 庸(사람 쓸 용, 고용할 용) 慂(권할 용)	5
249	우	偶(짝 우) 優(넉넉할 우, 뛰어날 우) 友(벗 우) 右(오른쪽 우) 宇(집 우) 雨(비 우) 愚(어리석을 우) 憂(근심할 우) 迂(멀 우) 牛(소 우) 遇(만날 우) 羽(깃 우) 郵(역참 우)	13
250	운	運(돌 운) 雲(구름 운) 云(이를 운) 韻(운 운)	4
251	울	鬱(막힐 울)	1
252	웅	雄(수컷 웅, 영웅 웅) 熊(곰 웅)	2
253	원	元(으뜸 원) 原(근원 원) 員(인원 원) 圓(둥글 원) 援(도울 원) 源(근원 원) 遠(멀 원) 院(집 원) 願(원할 원) 園(동산 원) 怨(원망할 원)	11
254	월	月(달 월) 越(넘을 월)	2
255	위	位(자리 위) 僞(거짓 위) 危(위태할 위) 圍(둘레 위) 委(맡길 위) 威(위엄 위) 慰(위로할 위) 爲(할 위) 衛(지킬 위) 違(어길 위) 偉(훌륭할 위) 萎(마를 위) 謂(이를 위) 緯(씨 위) 胃(밥통 위)	15
256	유	乳(젖 유) 唯(오직 유) 幼(어릴 유) 幽(그윽할 유) 有(있을 유) 油(기름 유) 由(말미암을 유) 維(벼리 유, 밧줄 유, 오직 유) 裕(넉넉할 유) 誘(꾈 유) 遊(놀 유) 遺(끼칠 유) 惟(생각할 유) 癒(병 나을 유) 柔(부드러울 유) 猶(오히려 유, 망설일 유) 儒(선비 유) 愉(즐거울 유) 悠(멀 유) 愈(더욱 유, 나을 유)	20

257	육	肉(고기 육) 育(기를 육)	2
258	윤	潤(젖을 윤) 閏(윤달 윤)	2
259	융	融(녹을 융, 융합할 융)	1
260	은	銀(은 은) 隱(숨길 은) 恩(은혜 은)	3
261	음	吟(읊을 음) 陰(응달 음) 音(소리 음) 飮(마실 음) 淫(음란할 음)	5
262	읍	邑(고을 읍) 泣(울 읍)	2
263	응	凝(엉길 응) 應(응할 응)	2
264	의	依(의지할 의) 儀(거동 의) 宜(마땅할 의) 意(뜻 의) 疑(의심할 의) 義(옳을 의) 議(의논할 의) 醫(의원 의) 衣(옷 의)	9
265	이	二(두 이) 異(다를 이) 移(옮길 이) 耳(귀 이) 弛(늦출 이) 已(이미 이) 夷(오랑캐 이)	7
266	익	益(더할 익) 翼(날개 익)	2
267	인	人(사람 인) 印(도장 인) 因(인할 인) 姻(혼인 인) 引(끌 인) 忍(참을 인) 認(알 인) 咽(목구멍 인) 仁(어질 인)	9
268	일	一(한 일) 日(해 일) 逸(편안할 일, 달아날 일, 뛰어날 일)	3
269	임	任(맡길 임) 賃(품팔이 임, 품삯 임) 妊(아이 밸 임 =姙)	3
270	입	入(들 입)	1
271	잉	剩(남을 잉)	1
272	자	刺(찌를 자) 子(아들 자) 字(글자 자) 姿(맵시 자) 恣(방자할 자) 者(놈 자) 自(스스로 자) 資(재물 자) 仔(자세할 자) 諮(물을 자) 姊(손윗누이 자) 紫(자줏빛 자) 慈(사랑할 자)	13
273	작	作(지을 작) 昨(어제 작) 酌(술 부을 작, 따를 작, 짐작할 작) 爵(벼슬 작)	4
274	잔	殘(해칠 잔, 잔인할 잔, 남을 잔) 盞(잔 잔)	2
275	잠	暫(잠시 잠) 潛(자맥질 할 잠) 簪(누에 잠)	3
276	잡	雜(섞일 잡)	1
277	장	場(마당 장) 壯(씩씩할 장) 奬(권면할 장) 將(장차 장, 장수 장) 帳(휘장 장) 張(베풀 장) 掌(손바닥 장) 章(글 장) 粧(단장할 장) 腸(창자 장) 莊(풀 성할 장) 葬(장사지낼 장) 藏(감출 장) 裝(꾸밀 장) 長(길 장) 障(막힐 장, 가로막을 장) 丈(어른 장) 杖(지팡이 장) 醬(젓갈 장) 墻(담 장) 臟(오장 장)	21
278	재	再(두 재, 거듭 재) 在(있을 재) 宰(재상 재) 才(재주 재) 材(재목 재) 災(재앙 재) 裁(마를 재) 財(재물 재) 載(실을 재) 栽(심을 재)	10
279	쟁	爭(다툴 쟁)	1
280	저	低(낮을 저) 抵(막을 저, 거스를 저) 著(나타날 저, 분명할 저, 지을 저) 貯(쌓을 저) 底(밑 저) 沮(막을 저)	6
281	적	摘(딸 적) 敵(원수 적) 的(과녁 적) 積(쌓을 적) 籍(서적 적) 績(길쌈할 적) 賊(도둑 적) 赤(붉을 적) 跡(자취 적) 適(갈 적) 寂(고요할 적) 滴(물방울 적)	12
282	전	傳(전할 전) 全(온전할 전) 典(법 전) 前(앞 전) 專(오로지 전, 전일할 전) 마음과 힘을 모아 오직 한 곳에 쓰다. 田(밭 전) 展(펼 전) 戰(싸울 전) 轉(구를 전) 錢(돈 전) 電(번개 전) 田(밭 전) 殿(전각 전, 큰 집 전) 銓(저울질할 전, 선발할 전)	13
283	절	切(끊을 절) 節(마디 절) 絕(끊을 절 =絶) 折(꺾을 절) 竊(훔칠 절)	5
284	점	占(차지할 점) 漸(점점 점) 點(점 점) 店(가게 점)	4
285	접	接(이을 접) 蝶(나비 접)	2

286	정	井(우물 정) 亭(정자 정) 停(머무를 정) 定(정할 정) 庭(뜰 정) 情(뜻 정) 政(정사 정) 整(가지런할 정) 正(바를 정) 淨(깨끗할 정) 程(한도 정, 길 정, 단위 정) 精(정할 정, 정밀할 정, 쓿은 쌀 정) 訂(바로 잡을 정) 頂(정수리 정) 廷(조정 정, 뜰 정) 丁(고무래 정, 장정[壯丁] 정) 貞(곧을 정) 靜(고요할 정) 征(칠 정) 偵(정탐할 정)	20
287	제	制(지을 제, 마를 제, 절제할 제) 堤(둑 제) 帝(임금 제) 提(끌 제) 祭(제사 제) 製(지을 제) 除(덜 제) 際(사이 제) 題(표제 제) 齊(가지런할 제) 弟(아우 제) 第(차례 제) 諸(여러 제, 모든 제) 濟(건널 제)	14
288	조	兆(조짐 조) 助(도울 조) 操(잡을 조) 早(이를 조, 일찍 조) 朝(아침 조) 條(가지 조) 潮(조수 조) 照(비출 조) 祖(조상 조) 組(끈 조, 짤 조, 조직할 조) 調(고를 조) 造(지을 조) 弔(조상할 조) 措(둘 조) 曹(무리 조, 성씨 조, 마을 조) 槽(구유 조) 租(구실 조) 藻(말 조) 釣(낚시 조) 鳥(새 조) 燥(마를 조) 粗(거칠 조)	22
289	족	族(겨레 족) 足(발 족)	2
290	존	存(있을 존) 尊(높을 존)	2
291	졸	卒(군사 졸) 拙(졸할 졸, 옹졸할 졸)	2
292	종	宗(마루 종) 從(좇을 종) 種(씨 종) 終(끝날 종) 縱(세로 종, 늘어질 종) 鍾(종 종) 綜(모을 종, 잉아 종) 踪(자취 종)	8
293	좌	佐(도울 좌) 左(왼 좌) 挫(꺾을 좌) 坐(앉을 좌) 座(자리 좌)	5
294	죄	罪(허물 죄)	1
295	주	主(주인 주) 住(살 주) 周(두루 주) 奏(아뢸 주) 宙(집 주) 州(고을 주) 柱(기둥 주) 株(그루 주, 주식 주) 注(물 댈 주) 走(달릴 주) 酒(술 주) 廚(부엌 주) 註(글 뜻 풀 주, 주낼 주) 週(돌 주) 駐(머무를 주) 晝(낮 주) 朱(붉을 주) 洲(물가 주, 섬 주, 대륙 주) 珠(구슬 주) 舟(배 주) 鑄(쇠 부어 만들 주) 俊(준걸 준)	22
296	죽	竹(대 죽)	1
297	준	準(준할 준, 의거할 준, 수준기 준) 遵(좇을 준) 准(승인할 준)	3
298	중	中(가운데 중) 仲(버금 중) 衆(무리 중) 重(무거울 중)	4
299	즉	卽(곧 즉)	1
300	증	增(불을 증, 늘어날 증) 症(증세 증) 證(증거 증) 贈(줄 증, 보낼 증) 蒸(찔 증) 憎(미워할 증)	6
301	지	之(갈 지) 地(땅 지) 志(뜻 지) 持(가질 지) 指(손가락 지) 支(지탱할 지, 가를 지) 智(슬기 지) 止(그칠 지) 知(알 지) 紙(종이 지) 至(이를 지) 遲(늦을 지) 祉(복 지) 枝(가지 지) 池(못 지) 誌(기록할 지) 摯(지극할 지, 진지할 지) 旨(뜻 지)	18
302	직	直(곧을 직) 織(짤 직) 職(벼슬 직)	3
303	진	振(떨칠 진) 珍(보배 진) 眞(참 진) 進(나아갈 진) 鎭(진압할 진) 陳(늘어놓을 진) 震(우레 진, 벼락 진, 진동할 진) 辰(별 진, 날 신 *[사용 예]: 생신, 탄신) 診(볼 진) 陣(진칠 진) 盡(다할 진)	11
304	질	疾(병 질) 秩(차례 질) 質(바탕 질) 叱(꾸짖을 질) 跌(거꾸러질 질) 姪(조카 질)	6
305	짐	斟(헤아릴 짐) 朕(조짐 짐, 임금의 자칭 짐)	2
306	집	執(잡을 집) 集(모일 집) 輯(모을 집)	3
307	징	徵(부를 징, 거둘 징, 징조 징) 懲(징계할 징)	2
308	차	借(빌릴 차) 差(어긋날 차) 次(버금 차) 車(수레 차[수레 거]) 遮(막을 차) 蹉(미끄러질 차)	6
309	착	着(붙을 착) 錯(섞일 착) 捉(잡을 착)	3
310	찬	讚(기릴 찬) 贊(도울 찬) 餐(먹을 찬) 饌(반찬 찬) 纂(모을 찬)	5
311	찰	察(살필 찰) 擦(비빌 찰) 札(패 찰) 刹(절 찰)	4
312	참	參(간여할 참) 慘(참혹할 참) 慙(부끄러울 참)	3

313	창	創(비롯할 창) 幅(폭 창) 窓(창 창) 脹(배부를 창) 唱(노래 창) 昌(창성할 창) 蒼(푸를 창) 猖(미쳐 날뛸 창 * 창궐, 창피) 倉(곳집 창, 창고 창)	9
314	채	債(빚 채) 彩(무늬 채) 採(캘 채) 菜(나물 채)	4
315	책	冊(책 책) 策(계책 책) 責(꾸짖을 책)	3
316	처	處(곳 처) 悽(슬퍼할 처) 妻(아내 처) 凄(쓸쓸할 처, 찰 처)	4
317	척	尺(자 척) 戚(친척 척) 拓(주울 척) 斥(물리칠 척)	4
318	천	天(하늘 천) 川(내 천) 薦(천거할 천) 賤(천할 천) 泉(샘 천) 踐(밟을 천) 千(일천 천) 淺(얕을 천) 遷(옮길 천) 闡(밝힐 천)	10
319	철	哲(밝을 철) 徹(통할 철) 鐵(쇠 철) 撤(거둘 철)	4
320	첨	尖(뾰족할 첨) 添(더할 첨)	2
321	첩	帖(문서 첩, 표제 첩) 諜(염탐할 첩) 妾(첩 첩)	3
322	청	廳(관청 청) 淸(맑을 청) 聽(들을 청) 請(청할 청) 靑(푸를 청) 晴(갤 청)	6
323	체	替(바꿀 체) 滯(막힐 체) 逮(잡을 체, 미칠 체) 體(몸 체) 遞(갈마들 체) 締(맺을 체)	6
324	초	初(처음 초) 招(부를 초) 草(풀 초) 超(넘을 초) 焦(그을릴 초) 抄(베낄 초, 뽑을 초) 礎(주춧돌 초) 秒(초 초) 肖(닮을 초)	9
325	촉	促(재촉할 촉) 觸(닿을 촉) 燭(초불 촉) 囑(부탁할 촉)	4
326	촌	村(마을 촌) 寸(마디 촌)	2
327	총	總(거느릴 총) 銃(총 총) 聰(귀 밝을 총, 총명할 총)	3
328	촬	撮(사진 찍을 촬, 모을 촬, 취할 촬)	1
329	최	催(재촉할 최) 最(가장 최)	2
330	추	抽(뽑 추) 推(옮을 추) 秋(가을 추) 追(쫓을 추) 墜(떨어질 추) 樞(지도리『건설』; 돌쩌귀, 문장부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추, 가장 중요한 부분 추) 趨(달릴 추) 醜(추할 추)	8
331	축	畜(짐승 축, 쌓을 축) 祝(빌 축) 縮(줄일 축) 蓄(모을 축, 쌓을 축) 蹴(찰 축) 築(쌓을 축) 逐(쫓을 축)	7
332	춘	春(봄 춘)	1
333	출	出(날 출)	1
334	충	充(찰 충) 忠(충성 충) 衝(찌를 충) 蟲(벌레 충)	4
335	취	取(취할 취) 就(이룰 취) 醉(취할 취) 聚(모일 취) 脆(무를 취, 연약할 취) 趣(달릴 취) 吹(불 취) 臭(냄새 취)	8
336	측	側(곁 측) 測(잴 측)	2
337	층	層(층 층)	1
338	치	値(값 치) 治(다스릴 치) 置(둘 치) 致(보낼 치) 齒(이 치) 峙(우뚝 솟을 치) 恥(부끄러워할 치) 稚(어릴 치) 嶷(삑삑할 치) 侈(사치할 치) 熾(성할 치, 치열할 치)	11
339	칙	則(법칙 칙{곧 즉})	1
340	친	親(친할 친)	1
341	칠	七(일곱 칠) 漆(옻 칠)	2
342	침	侵(침노할 침) 寢(잠잘 침) 沈(가라앉을 침) 浸(잠길 침) 針(바늘 침) 枕(베개 침)	6
343	칭	稱(일컬을 칭)	1
344	쾌	快(쾌할 쾌)	1
345	타	他(다를 타) 妥(온당할 타) 打(칠 타) 墮(떨어질 타) 楕(길쭉할 타)	5
346	탁	卓(높을 탁) 託(부탁할 탁) 托(밀 탁) 濁(흐릴 탁) 濯(씻을 탁) 擢(뽑을 탁)	6
347	탄	彈(탄알 탄) 歎(읊을 탄) 炭(숯 탄) 誕(태어날 탄)	4
348	탈	奪(빼앗을 탈) 脫(벗을 탈)	2

349	탐	探(찾을 탐) 耽(즐길 탐) 貪(탐할 탐)	3
350	탑	塔(탑 탑) 搭(탈 탑, 실을 탑)	2
351	탕	湯(끓일 탕, 목욕간 탕)	1
352	태	太(클 태) 態(모양 태) 殆(위태할 태) 颱(태풍 태) 泰(클 태) 怠(게으를 태)	6
353	택	宅(집 택) 擇(가릴 택) 澤(못 택)	3
354	토	土(흙 토) 吐(토할 토) 討(칠 토)	3
355	통	痛(아플 통) 統(큰 줄기 통) 通(통할 통) 筒(대롱 통)	4
356	퇴	退(물러날 퇴)	1
357	투	投(던질 투) 透(통할 투) 鬪(싸움 투) 套(덮개 투, 버릇 투)	4
358	특	特(특별할 특)	1
359	파	把(잡을 파) 播(뿌릴 파) 波(물결 파) 派(물갈래 파) 破(깨뜨릴 파) 罷(마칠 파, 그만둘 파, 방면할 파) 跛(절름발이 파)	7
360	판	判(판가름할 판) 板(널빤지 판) 販(팔 판) 版(판목 판, 책 판)	4
361	팔	八(여덟 팔)	1
362	패	敗(패할 패) 貝(조개 패) 牌(패 패) 覇(으뜸 패)	4
363	팽	膨(부풀 팽) 彭(성한 모양 팽 =澎)	2
364	편	便(편할 편(동오줌 변)) 偏(치우칠 편) 片(조각 편) 編(엮을 편) 遍(두루 편) 篇(책 편)	6
365	평	平(평평할 평) 評(평할 평)	2
366	폐	幣(비단 폐) 廢(폐할 폐) 弊(해질 폐) 蔽(덮을 폐) 閉(닫을 폐) 肺(허파 폐)	6
367	포	包(쌀 포) 布(베 포) 捕(사로잡을 포) 胞(세포 포, 태보[胎褓] 포) 抛(던질 포) 砲(대포 포) 鋪(펼 포) 抱(안을 포) 浦(개 포) 飽(배부를 포, 물릴 포)	10
368	폭	幅(폭 폭) 暴(사나울 폭, 햇볕 쪼일 폭) 爆(터질 폭) 曝(쬘 폭)	4
369	표	標(표할 표) 票(표 표) 表(겉 표) 剽(빠를 표) 漂(떠돌 표)	5
370	품	品(물건 품)	1
371	풍	豊(풍성할 풍) 風(바람 풍) 諷(풍자할 풍)	3
372	피	皮(가죽 피) 被(입을 피, 당할 피) 避(피할 피) 披(나눌 피) 疲(지칠 피) 彼(저 피)	6
373	필	必(반드시 필) 筆(붓 필) 畢(마칠 필) 匹(짝 필)	4
374	핍	逼(핍박할 핍)	1
375	하	下(아래 하) 何(어찌 하) 河(강 이름 하) 荷(멜 하, 짐 하, 연 하) 賀(하례 하) 夏(여름 하)	6
376	학	學(배울 학)	1
377	한	寒(찰 한) 漢(한수 한) 閑(한가할 한) 限(한계 한) 韓(나라 이름 한) 恨(한할 한) 旱(가물 한) 汗(땀 한)	8
378	할	割(나눌 할)	1
379	함	含(머금을 함) 艦(싸움배 함) 陷(빠질 함) 銜(직함 함, 재갈 함)	4
380	합	合(합할 합)	1
381	항	恒(항상 항) 抗(막을 항) 港(항구 항) 航(배 항, 항해할 항, 날 항) 項(목 항) 肛(똥구멍 항) 巷(거리 항)	7
382	해	害(해칠 해) 海(바다 해) 解(풀 해) 該(그 해) 奚(해금 해)	5
383	핵	核(씨 핵) 劾(캐물을 핵)	2
384	행	幸(다행 행) 行(갈 행(항렬 항)) 杏(살구나무 행)	3
385	향	向(향할 향) 鄕(시골 향) 饗(울릴 향) 香(향기 향) 享(누릴 향)	5
386	허	虛(빌 허) 許(허락할 허) 墟(옛터 허)	3
387	헌	憲(법 헌) 獻(바칠 헌) 軒(추녀 헌)	3
388	헐	歇(쉴 헐)	1

389	험	險(험할 험) 驗(시험 험, 증험할 험)	2
390	혁	革(가죽 혁, 고칠 혁)	1
391	현	懸(매달 현) 玄(검을 현) 現(나타날 현) 縣(매달 현) 賢(어질 현) 顯(나타날 현, 드러낼 현) 絃(악기 줄 현) 絢(무늬 현, 눈부시게 할 현)	8
392	혈	血(피 혈) 穴(구멍 혈)	2
393	혐	嫌(싫어할 혐)	1
394	협	協(맞을 협) 脅(위협할 협, 옆구리 협)	2
395	형	兄(형 형) 刑(형벌 형) 形(모양 형) 衡(저울대 형) 型(거푸집 형) 亨(형통할 형) 螢(개똥벌레 형)	7
396	혜	惠(은혜 혜) 慧(슬기로울 혜) 彗(살별[=혜성] 혜, 빗자루 혜)	3
397	호	互(서로 호) 呼(부를 호) 好(좋을 호) 號(이름 호, 일컬을 호, 부르짖을 호) 護(보호할 호) 豪(호걸 호) 糊(풀 호) 戶(지게 호) 湖(호수 호) 虎(범 호) 毫(가는 털 호) 胡(오랑캐 호) 浩(클 호)	13
398	혹	惑(미혹할 혹) 酷(독할 혹)	2
399	혼	婚(혼인할 혼) 混(섞을 혼) 魂(넋 혼) 昏(어두울 혼)	4
400	홀	忽(소홀히 할 홀, 갑자기 홀)	1
401	홍	弘(넓을 홍) 洪(큰물 홍) 紅(붉을 홍)	3
402	화	化(될 화) 和(화할 화) 火(불 화) 華(빛날 화, 꽃 화) 話(말할 화) 貨(재화 화) 畫(그림 화) 花(꽃 화) 禍(재화 화) 禾(벼 화)	10
403	확	擴(넓힐 확) 確(굳을 확) 穫(벼 벨 확)	3
404	환	患(근심 환) 換(바꿀 환) 歡(기뻐할 환) 環(고리 환) 還(돌아올 환) 喚(부를 환) 幻(변할 환) 丸(알 환)	8
405	활	活(살 활) 滑(미끄러울 활)	2
406	황	況(상황 황, 하물며 황) 皇(임금 황) 荒(거칠 황) 黃(누를 황) 惶(두려울 황)	5
407	회	回(돌 회) 懷(품을 회) 會(모일 회) 廻(돌 회) 灰(재 회) 膾(회 회) 悔(뉘우칠 회)	7
408	획	劃(그을 획) 獲(얻을 획)	2
409	횡	橫(가로 횡)	1
410	효	效(본받을 효) 曉(새벽 효) 孝(효도 효)	3
411	후	候(기후 후) 厚(두터울 후) 後(뒤 후) 喉(목구멍 후) 侯(제후 후)	5
412	훈	訓(가르칠 훈) 燻(연기 낄 훈, 연기 피울 훈)	2
413	훼	毁(헐 훼)	1
414	휘	揮(휘두를 휘) 輝(빛날 휘)	2
415	휴	休(쉴 휴) 携(끌 휴)	2
416	흉	凶(흉할 흉) 胸(가슴 흉)	2
417	흑	黑(검을 흑)	1
418	흔	痕(흉터 흔, 자취 흔)	1
419	흡	吸(숨 들이쉴 흡) 恰(흡사할 흡) 洽(흡족할 흡)	3
420	흥	興(일 흥)	1
421	희	喜(기쁠 희) 希(바랄 희) 稀(드물 희) 戱(희생 희) 戲(놀이 희, 탄식할 희)	5
한자 합계			2,000

전문 용어 정비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어떤 전문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주로 한자어계 전문 용어를 기준으로 정비 대상 용어가 고등학교 졸업에 상당하는 학력[18]을 지닌 일반 성인 국민이라

18) e-나라지표 부문별 지표- 국민 교육 수준(학력)별 인구 분포(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0 2014 OECD 「Education at a Glance」)를 볼 때, 25세~64세 연령 인구 중 고등학

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한자(이 한자들로 구성된 한자어 포함) 목록에 포함된 용어는 일단 어려운 용어는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중학교용 900자, 고등학교용 900자), 교과서 편수 자료에 나오는 한자 용어에 쓰인 한자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민이 대부분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한자 목록이 학교 교육에 치우친 용어들이므로 시사성을 고려하여 대중 매체에 빈도 높게 쓰이는 한자어에서 추출한 한자 목록을 보완하여 이 세 가지에 공통적으로 출현하는 한자어의 목록은 '한자어계 전문 용어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적어도 1차적으로 참조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한자 목록은 '표현'(한자 병기, 국한 혼용 등)을 위한 목록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목록(특히 한자어계 전문 용어의 개념 이해를 위한 단서(hint) 제공용)이다.

'전문 용어 정비를 위한 기초 한자 2000자'가 전문 용어 정비에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었다.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안 검토 결과(2014. 5. ~2015. 4.)를 바탕으로, 정비 대상어 중 한자어로만 구성된 용어 103개를 기초 한자 2000자의 목록과 대조해 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기초 한자 2000자 외의 한자 [外字] 로서 용어 난해:** 19/103=**18.4%**,
2. **기초 한자 2000자 외의 한자이지만 용어 평이**(개선안에도 사용): 3/103=**2.9%,**
   (1~2의 비율 합계: 21.3%)
3.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 [內字] 이지만 용어 난해**: 66/103=**64.1%**.
4.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부정적 어감: 5/103=4.9%,
5.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일본식 한자어: 5/103=4.9%,
6.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용어 개념 부적합: 4/103=3.9%,
   (3~6의 비율 합계: 77.8%)
7. 한자 미상이지만 용어 난해: 1/103=약 1%

* 1~7의 비율 합계: 100.1%(약 100%. 오차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임).

기초 한자 2000자 외의 한자가 약 20%(21.3%)이고 기초 한자 내의 한자가 약 80%(77.8%)이다. 위 통계를 분석해 볼 때,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전문 용어 중 20% 정도는 필자가 설정한 기초 한자 2000자 범위 외의 한자로 구성된 용어이므로 한자어계 용어의 난이도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의 하나로 효용성이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물론 기초 한자 2000자 외의 한자 조합이라도 용어가 평이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워낙 미미한 비율이므로(약 3%) 무시해도 좋은 정도이다.

한편, 기초 한자 2000자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해당 용어가 개선 대상인지 판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초 한자 2000자 범위 내의 한자라도 합성과 파생 등 단어 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용어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64%). 또한 2000자 범위 내의 한자라도 부정적 어감, 일본식 한자어, 개념 부적합 등의 요인으로 개

교 이상 연령이 2010년 81%(중 이하: 20, 고:41, 고등교육 이상: 40), 2011년 81%(중 이하: 19, 고:41, 고등교육 이상: 40), 2012년 83%(중 이하: 18, 고:41, 고등교육 이상: 42)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구가 25세~64세 연령 인구의 80%를 상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의 학교급별 진학률을 볼 때, '초등학교→중학교' 진학률은 99.9%(2010년~2013년 동일), '중학교→고등학교' 진학률은 99.7%(2010년~2013년 동일), '고등학교→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9%(2010년), 72.5%(2011년), 71.3%(2012년), 70.7%(2013년)로 각각 제시되었다.

선 대상이 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기초 한자 2000자 목록은 아직은 시안의 단계이고 한계도 있다. 따라서 **'전문 용어의 난이도 점검을 위한 1차적 참고 기준' 정도로 활용하면서 점차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 용어를 고유어 개선안으로 정비할 때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언중들 대다수가 잘 모르는 고유어로 순화하거나 표준화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어 순화 또는 전문용어 정비를 할 때, 고유어를 활용하면 개념의 습득과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천일염 생산을 위해 바닷물(염도 1~3)을 증발시켜 농축(염도 3~8)시키는 장소 또는 과정(공정)'을 가리키는 염전 용어로 '난치'라는 고유어가 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아는 언중들이 드물기 때문에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안을 검토할 때에 '난치(1차 증발지)/난치(1차 증발)'로 결정한 바 있다. 한자 1자는 다음절의 고유어를 갈음할 만큼 간결성이 있고 한자의 음과 훈을 아는 사람에게는 개념 환기력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김문오(2011: 138~139)에 따르면, 국립국어원의 말터 사이트(malteo.korean.go.kr)에서 2004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선정한 순화어 299개를 대상으로 어원별 비율을 분석할 때 '고유어 22.4%, 한자어 33.2%, 고유어+ 한자어 41.8%, {고유어/한자어}+ 서양 외래어 2.3%, 고유어+ 일본 외래어[19] 0.3%'로 결과가 나왔다. 이를 재환산하면 한자어, 고유어, 외래어의 상대적 비율은 52.7%, 45.2%, 2.1%가 되는데, 이를 통해 '우리말 다듬기'에서 '한자어를 순화어로 활용하는 종합적 비율'이 '고유어를 순화어로 활용하는 종합적 비율'보다 7.5%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순화어에서 고유어보다 한자어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은 언론 외래어 순화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 정비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이현주(2013: 118)에서는 전문 용어 기구가 수행할 역할을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문 용어 기구는 표준화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책임 기관이어야 한다. 전문 용어 조어 및 표준화 절차에 대한 조언과 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표준 용어의 자료를 유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셋째, 각 분야별 전문 용어 표준안을 대조하여 공통 용어를 조정하고 조화시켜야 한다. 넷째, 전문 용어 표준화 원리 및 규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어 실정에 맞는 용어 조어의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표준화된 전문 용어를 홍보,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방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여섯째, 전문 용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용어 기구와 상호 협조하여 대응어 목록 구축 및 전문 용어의 국제적 소통과 조화에 힘써야 한다.

먼저 위의 첫째 역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전문 용어 표준화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기획연수부 공공언어과'로 두 군데이다. 전문 용어 표준화안에 대한 국어심의회 심의 요청 공문의 접수, 국어심의회 개최, 심의 결과 회신, 각 중앙 행정 기관에 대한 고시 요청 등의 행정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

19) 서양 외래어 '크림, 프로그램, 팬, 커피, 서비스'나 일본어에서 차용된 외래어 '가방' 등과 같이 널리 쓰이는 외래어가 순화어로 사용된 것을 나타낸다. 국어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중에는 정착된 외래어나 한자어까지도 무조건 순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일이 있는데, 국어 순화에 대한 이런 경직된 태도는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어의 풍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수행하고 있으며, 최종 심의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자문위원회인 '국어심의회(국어순화분과위원회)'이다. 그리고 전문 용어에 대한 실무 수준의 검토, 조언, 정비 지침 제공,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전문 용어 표준화 심의 자료 준비 등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립국어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문 용어 표준화(또는 정비) 사업의 내용을 총괄 관리하고 조정하는 책임 기관은 국립국어원으로 볼 수 있다[20]. 위의 둘째, 셋째, 여섯째의 역할은 국립국어원의 다듬은 말 찾기(www.korean.go.kr/sunhwa) 검색 서비스 제공(수시 유지 보수 포함)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웹사전 검색 누리집[21]에서도 정제된 전문 용어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각 분야별 전문 용어 표준안을 대조하여 공통 용어를 조정하고 조화시키는 일은 매달 추진하고 있는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 작업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으며, 각 중앙 행정 기관이 요청한 전문 용어 표준화 안건의 국어심의회 심의를 통해서도 구현되며, 표준국어대사전의 전문 용어 표제어 등재 및 정보 보완 등을 통해서도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다섯째, 일곱째의 역할은 현재 수행하고는 있지만 더욱 활성화해야 할 역할들이다. 특히 다섯째로 언급된 '표준화된 전문 용어를 홍보, 보급하고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방식으로 전문 용어를 정비했다고 해도 정비 결과 또는 순화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지 못한다면 그 정비 결과나 순화어가 국어 생활 속에 제대로 활용될 수가 없다. 중앙 행정 기관에 대한 고시 촉구 외에 법령의 제정·개정, 공문서 작성, 교과용 도서 제작,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로까지 확산되도록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독려하는 노력을 민간단체와 함께 펼칠 필요가 있다.

한편, 넷째 역할로 언급된 한국어 실정에 맞는 전문 용어 조어의 원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려운 한자어계 용어를 쉽게 다듬는 데에는 필자가 시범적으로 제시한 '기초 한자 2000자'도 참고가 되겠고, 국립국어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2005),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2003),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2005) 등의 빈도 조사 결과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영어로 된 용어가 과학, 기술,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위세를 떨치며 세계어 구실을 하면서 국어를 위협하고 우리말로 된 전문 용어 신어의 등장을 막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다.[22]

---

20)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26513호, 2015. 3. 23. 시행)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1조(문화예술정책실) 제3항 제9호와 제10호에 '문화예술정책실장' 업무의 일부로 '9. 국어기본법에 따른 국어심의회,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에 관한 사항','10. 국어 및 언어 관련 정보화, 표준화 정책'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5장 국립국어원 제38조의2(기획연수부) 제2항 제7호에 '기획연수부장' 업무의 일부로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10호, 2015. 5. 26. 시행) 제2장 문화체육관광부 제8조(문화예술정책실) 제4항 제3호와 제6호에 '국어정책과장' 업무의 일부로 '3. 국어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언어와 문자, 전문용어 등의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5장 국립국어원 제24조의2(기획연수부) 제4항 제3호에 '공공언어과장' 업무의 일부로 '전문용어 표준화 및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21) 2016년 이후에는 '우리말샘'에서 전문 용어 표제어를 기존 약 20만 개(표준국어대사전)에서 누계 약 60만 개로 확대 구축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우리말샘'이 2016년까지 구축할 예정인 누계 약 100만 개의 표제어 중 전문 용어의 비율은 약 60%에 해당하는 셈이다.

22) 마디니에(2013: 143)는 프랑스도 전문 분야에서 영어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음처럼 소개하고 있다.

"현대 기술의 영향을 받는 전문 분야에서 통용되는 신어들의 대부분이 영어, 혹은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영미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 기술 용어를 생성하는 주체는 과학자들, 다시 말해 새로운 개념이나 사물을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이 발명가들

현재로서는 전문 용어 정비를 할 대상어가 영어(또는 외국어)일 때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등재되지 않은 용어는 순화하고, 등재된 용어는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렇더라도 『표준국어대사전』 등재어는 항상 정비 또는 순화에서 제외할 용어라고 단정하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중에는 외래어로 인정하여 등재한 표제어에도 '순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예: 게임-메이커(game maker) 『운동』 경기에서 실마리를 풀어 가는 중심적인 사람이나 선수. '주도 선수'로 순화./ 데포르마시옹(<프>déformation) 『미술』 회화나 조각에서, 대상이나 소재가 되는 자연물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확대하거나 변형하여 표현하는 기법. '변형'으로 순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하기는 했으나 더 쉬운 말로 순화하여 쓸 여지가 있으면 외래어조차도 순화할 수 있다는 함의를 『표준국어대사전』은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외국어로 된 전문 용어의 정비 여부를 판단할 때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여부가 참조 정보는 될 수 있지만 철칙이 될 수는 없다. 더욱이 2016년 『표준국어대사전』이 위키피디아식의 개방형 웹사전인 『우리말샘』으로 이행하면 '외래어'라기보다는 '외국어' 수준의 용어들이 부지기수로 표제어로 등재될 환경이 되는데, 이때에도 사전 등재 여부로 해당 용어의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의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2005) 등의 현대 한국어 빈도 조사 결과를 점검해 보고, 교과서 편수 자료 등재 여부도 점검하는 것을 보완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상어가 외국어에 가까운지 외래어(외국에서 들어온 말로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따위)에 가까운지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외에 비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보완책의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5. 마무리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에 들어선 현대에 정보와 지식의 기본 단위인 전문 용어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국민 대다수의 언어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그런데 대중 매체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용어 중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어가 범람한다면 국민 간의 소통을 막고 국민의 안전·건강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비전문가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용어를 보도 자료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산시킬 수도 있고, 비전문가, 즉 일반 국민도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만들어 보급할 수도 있다.

어려운 행정 용어로 국민의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책 수용성과 정책 홍보 효과가 미흡하고 국어의 오남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23] 이런 문제점

대부분이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공통 언어. • 괄호 안 설명은 필자가 추가함.)가 필요한 국제적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은 현실적인, 혹은 그들이 머릿속에서 그리는 경제적 효용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의도적으로, 거의 배타적으로 영어 어휘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 몇 십년 전부터 현대인들의 눈에는 영어권이 곧 현대성의 동의어로 비치고 있다.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 싶은 열망과 시대에 뒤떨어지게 비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결합돼 프랑스 발명품에도 곧바로 영어 이름이 붙여져 세상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23) 국어 오남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연간 285억 원으로 추정된다(어려운 행정용어: 연간 약 170억 원, 낯선 정책명: 연간 약 115억 원). <출처: 『공공 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을 인식하여 정부에서 '구명동의' 대신 '구명조끼'를 쓰고, '자동제세동기' 대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쓰겠다는 뜻을 밝혔다.[24]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처럼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정착시키면 국민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도 수월해질 것이다.

전문 용어 정비의 긍정적 효과가 확산되려면 정부, 민간, 학교 등의 노력이 합쳐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중앙 행정 기관이나 민간 부문(학회, 협회 등)에서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거나 줄 수 있는 용어, 전문 용어 정비(개선 및 표준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큰 용어를 위주로 자체적인 정비 노력을 하여 고시까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서는 각 중앙 행정 기관을 대상으로 국어기본법 제17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는 공문으로 이를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필요가 있다.

중앙 행정 기관의 대변인실에서 전문 용어 개선안을 매달 제출하고 검토 결과를 기관 내에 공유하는 일도 단편적, 일시적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에서 심의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마친 표준화안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국어순화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서 고시를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표준 용어로 심의, 확정, 고시된 용어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 표준화의 국가적 책무를 각 중앙 행정 기관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절차를 홍보하고 정비 결과의 보급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도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 변환 시스템'에 전문 용어 정비 결과를 정기적으로 반영하는 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의 연계 및 협조로 전문 용어의 입법 반영을 원활히 하는 일도 힘을 쏟아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전문 용어의 정비의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단체, 언론(방송, 신문, 인터넷)과의 협조로 올바른 국어 사용에 동참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좀 더 노력해야 할 일이다.

각급 학교도 국민의 국어 의식을 높이며 '쉬운 말 사용'의 태도를 확산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힘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9월부터 사용하게 되는 『초등학교 6-2 국어 생활』⑬ 교과서(234~237쪽)에는 다듬은 말을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써 보는 내용, 다듬은 말들을 살펴보는 내용, 외국어를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 알맞게 바꾸어 써 보는 내용 등을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조치이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어려운 외국어를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태도를 형성하는 일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며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조성하는 바탕이 된다.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과 같은 학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지만,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국어 순화 태도 형성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조성하고 국어 발전을 꾀하려면, 학교나 언

(2010), 국립국어원 보고서〉

24) 2014년 6월 중앙 행정 기관 전문 용어 개선안으로 법제처에서 제안한 용어가 '구명조끼'(←'구명동의' 개선안)이고, 2015년 3월 중앙 행정 기관 전문 용어 개선안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안한 용어가 '(자동)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A.E.D.' 개선안)이다.

론에서 자칫 폐쇄적 민족주의로 흐르기 쉬운 '우리 것의 소중함에 대한 강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공감(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통함), 공동체에 대한 배려' 등을 부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의 내용과 같이, 고시된 전문 용어는 중앙 행정 기관이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도 고시 용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민간 자격 국가 공인 시험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자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도 각 부처에서 고시된 전문 용어 표준화의 결과는 사전 표제어로 반영하는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순화어) 검색창(http://www.korean.go.kr/sunhwa)에서는 1970년대 이후 정부에서 순화한 다듬은 말(순화어)뿐만 아니라 국어심의회의 심의 완료 후 각 부처에서 고시한 내용,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했으나 아직 미고시 상태인 내용, 2014년 5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중앙 행정 기관의 월별 전문 용어 개선 결과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정보를 전문 용어 정비의 수요가 있는 공공 기관이나 민간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전문 분야별로 맞춤형 전문 용어 정비 지침을 마련하는 일, 전문 용어와 관련된 어문 규범의 합리적 조정[25]도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문 용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간의 정보 격차 해소, 기능적 문맹(비문해)의 퇴치는 국가적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전문 용어 정비의 대상을 모든 전문 용어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반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정비해 나가야 한다. 즉,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가능성이 큰 용어, 국민들의 관심이 크고 파급 효과도 큰 용어부터 그 분야 전문가들과 국어학자 또는 언어학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 용어 중 그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 직한 용어들(전문가용 특수사전 등의 표제어)은 그 분야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특히 견해나 관점의 차이로 경합하는 용어들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나름의 가치와 효용성을 띠는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 분야 내 또는 전문 분야 간의 용어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해소, 전문 용어 정비(표준화)의 성과를 국내 각 부문으로 확산하는 일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와 국립국어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일이다. 현재 각 전문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가 주로 "표준국어대사전(우리말샘)"의 전문 용어 집필이나 감수 정도에 머물고, 전문 용어 정비 작업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는 못하다. 각 전문 분야 전문가 단체와의 효율적인 상시 협력망 구축[26], 이와 더불어 전문 용어 정비를 위한 예산과 인력의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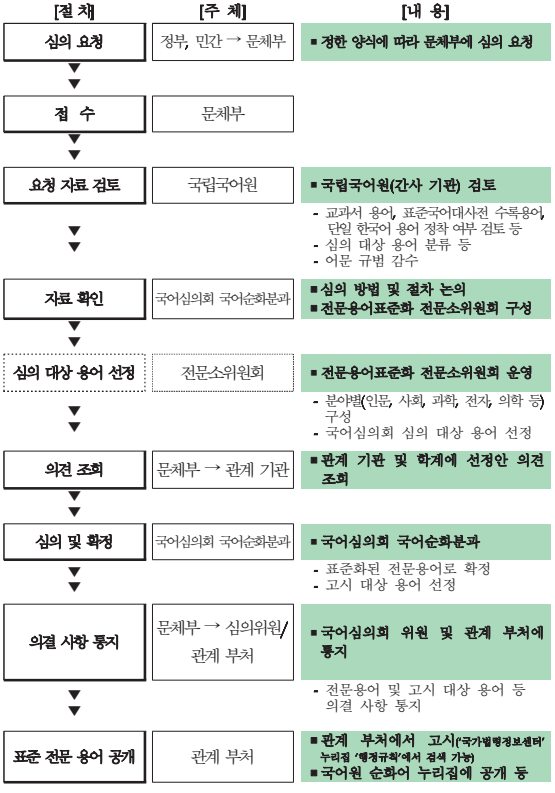
25) 불가피한 경우에 외래어 표기의 복수 표준안 인정 — '레이더'만 맞고 '레이다'는 틀린 표기였던 것을 2014년에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레이다'도 바른 표기로 인정한 사례 등 —, 전문 용어 띄어쓰기 규정(한글 맞춤법 제50항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의 유연한 적용, 사이시옷 표기 규정(예: 대폿값, 절댓값, 갯과, 솟과 등)의 재검토 등이 어문 규범의 합리적 조정 대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사안들이다.

26) 국립국어원과 '국방과학기술품질원'은 2008년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1차 발간 때부터 사전 내용의 감수에 협력해 왔으며, 2009년 업무 협정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전문 용어의 보급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국어원은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의 발간(2011년 12월) 시에도 내용 감수에 협력한 바 있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민군규격용어 표준화를 위한 사전

보, 전문 용어 정비 지침의 지속적 보완 등을 남은 과제로 삼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내용 감수에도 협력하고 있다. 또 국립국어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14년 3월 25일 정보통신 분야 전문용어 사전의 구축, 용어 표준화 및 표준화된 용어의 원활한 보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회는 용어의 올바른 뜻풀이에 기여하고 국어원은 사전 편찬과 국어학의 관점에서 사전의 완결성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 국립국어원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용어 표준화위원회 회의에도 분기별로 참여하여 감수 의견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1 전문용어 표준안 국어심의회 상정 업무처리절차



참고 2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의뢰서

신청 기관	기관장			
	신청 부서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심의 요청 사유		*예) 법률 개정, 학계 요구 등*		
심의 요청 항목		( ) 분야 총 ( ) 항목		
표준화 추진 경위		○ ○		
심의 대상 용어 선정 기준				
표준화(안) 마련 기준		○ ○		
표준화(안) 마련 참여 기관 및 참여자		○ ○		
기타 요청 사항		○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요청 목록 1부 2. 표준화(안) 마련 과정과 참여 인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부 결재문, 회의자료, 회의결과 등) 3. 총회 등 민간단체 내 의사결정 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총회 회의록 사본, 총회 결과 등)(민간 해당자에 한함)

참고 3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 요청 목록 양식

□ **제출기관명**:

번호	분야	세부 분야	대상 용어	원어	표준화(안)	용어 해설	대상 용어 사용 예시	비고

참고 4 중앙 행정 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 결과(2014. 4.~2015. 4.)

※ 대상어 327개 중 한자어 용어 103개만을 추출하여 제시함.

1. **기초 한자 2000자 외의 한자 [外字] 로서 용어 난해:** 19/103=**18.4%**.
2. **기초 한자 2000자 외의 한자이지만 용어 평이**(개선안에도 사용): 3/103=**2.9%,** (1~2의 비율 합계: 21.3%)
3.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 [內字] 이지만 용어 난해**: 66/103=**64.1%**.
4.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부정적 어감: 5/103=4.9%,
5.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일본식 한자어: 5/103=4.9%,
6.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용어 개념 부적합: 4/103=3.9%, (3~6의 비율 합계: 77.8%)
7. 한자 미상이지만 용어 난해: 1/103=약 1%

번호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	2000자 내자·외자 구분 그 외의 고려 사항
1	**감항증명**	堪航證明	**비행 적합 증명**	외자(堪)

번호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	2000자 내자·외자 구분 그 외의 고려 사항
2	**계통병입**	系統併入/ 系統竝入	**계통 연결**	외자(併) [순화 이력] 2014년 10월 중앙 행정 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회의 결과-원자력안전위원회 '계통 병입'→'송전 개시/전력 계통 연결', 2015년 제1차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 회의 심의 확정(2015. 3. 20.) '(발전기) 계통병입'→'(발전기) 계통 연결', 전력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6호, 2015. 5. 22. 제정 및 시행) - '(발전기) 계통병입'→'(발전기) 계통 연결'.
3	**고박/고박하다**	固縛	**화물고정, 화물묶기/ 화물을 고정하다, 화물을 묶다**	외자(縛)
4	**구명동의**	救命胴衣	**구명조끼**	외자(胴)
5	**길항작용**	拮抗作用	**대항 작용**	외자(拮)
6	**농아**	聾啞	**청각·언어 장애/청각·언어 장애인**	외자(聾啞)
7	**대량**	大樑	**대들보**	외자(樑)
8	**마족연**	馬足椽	**말굽 서까래**	외자(椽)
9	**부후목**	腐朽木	**썩은 나무**	외자(朽)
10	**(시험)포장**	(試驗)圃場	**(시험) 재배지**	외자(圃)
11	**용선**	傭船	**임차 선박**	외자(傭)
12	**이소/이소하다**	離巢/ 離巢--	**둥지를 떠남/ 둥지를 떠나다**	외자(巢)
13	**착협고**	着莢高	**첫 꼬투리 높이**	외자(莢)
14	**취사병**	炊事兵	**조리병**	외자(炊)
15	**취업알선**	就業斡旋	**취업 지원**	외자(斡)
16	**치면열구전색술**	齒面裂溝 堰塞術	**치아 홈 메우기**	외자(溝,堰)
17	**투척용 소화기, 투척식 소화기**	投擲用消火器/ 投擲式消火器	**던지는 소화기**	외자(擲)
18	**포장검사**	圃場檢査	**재배지 검사**	외자(圃)
19	**해태/해태하다**	懈怠	**제때 하지 않음, 게을리함/ 제때 하지 않다, 게을리하다**	외자(懈)
20	**게첨대**	揭添臺	**게시대**	외자(揭)* 개선안에도 사용
21	**곡저분지**	谷低盆地	**골 밑 분지**	외자(盆)* 개선안에도 사용

번호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	2000자 내자·외자 구분 그 외의 고려 사항
22	**종초**	種醋	**씨식초**	외자(醋)* 개선안에도 사용
23	**가압박리**	加壓剝離	**눌러떼기**	내자. 용어 난해
24	**가온탄**	加溫彈	**예열탄**	내자. 용어 난해
25	**강도간벌**	强度間伐	**강솎아베기**	내자. 용어 난해
26	**개벌(하다)**	皆伐	**모두베기/모두 베다**	내자. 용어 난해
27	**개소**	個所	**군데/곳**	내자. 용어 난해
28	**개수비**	改修費	**개량 수리비**	내자. 용어 난해
29	**검진지형서**	檢診指令書	**검진 지시서**	내자. 용어 난해
30	**과대계상**	過大計上	**과대 반영/과다 반영**	내자. 용어 난해
31	**과세 기준 자문**	課稅基準諮問	**과세 법령 해석 자문**	내자. 용어 난해
32	**과세 쟁점 자문**	課稅爭點諮問	**과세 사실 판단 자문**	내자. 용어 난해
33	**과소 납부 세액**	過小納付稅額	**부족 납부 세액**	내자. 용어 난해
34	**과표신장률**	課標 伸張率	**과세 표준 증가율**	내자. 용어 난해
35	**관조정비**	觀照整備	**길들이기 정비**	내자. 용어 난해
36	**군직정비**	軍直整備	**군 직접 정비**	내자. 용어 난해
37	**기술유용**	技術流用	**기술 무단 사용**	내자. 용어 난해
38	**기작**	機作	**작용원리**	내자. 용어 난해
39	**기적일**	機積日	**(비행기에) 싣는 날**	내자. 용어 난해
40	**노동 저활용 지표**	勞動 低活用 指標	**고용 보조 지표**	내자. 용어 난해
41	**노유자 보호**	老幼者 保護	**노약자 보호**	내자. 용어 난해
42	**노형**	爐形	**원자로 형태(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쓰일 때)/ 용광로 형태(원자력 발전 외의 분야에서 쓰일 때)**	내자. 용어 난해
43	**무육간벌**	撫育間伐	**(숲) 가꿈 솎아베기**	내자. 용어 난해
44	**무장애 탐방로**	無障礙探訪路	**평탄길**	내자. 용어 난해
45	**무환수입**	無換輸入	**무상 수입**	내자. 용어 난해
46	**방사능 물질 제염**	放射能物質除染	**오염 제거**	내자. 용어 난해
47	**방사선피폭**	放射線被曝	**방사선 피폭→방사선 노출, 방사선에 피폭되다→방사선에 노출되다**	내자. 용어 난해
48	**병과**	併科	**병과→함께 부과함/동시 부과, 병과하다→함께 부과하다/동시에 부과하다**	내자. 용어 난해
49	**병성감정**	病性鑑定	**동물 질병 진단**	내자. 용어 난해

번호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	2000자 내자·외자 구분 그 외의 고려 사항
50	보수교육	補修敎育	복무 지도 교육	내자. 용어 난해
51	불요존국유림	不要存國有林	준보전 국유림	내자. 용어 난해
52	사상	私傷	사적 부상	내자. 용어 난해
53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트윈트라이앵글 시스템	社會服務要員 服務管理/ Twin triangle system	전방위 복무 지원 체계	내자. 용어 난해
54	상병	傷病	부상 및 질병	내자. 용어 난해
55	생활조정수당	生活調整手當	복지 증진 수당	내자. 용어 난해
56	선단지	先端地	피해 확산 예상지	내자. 용어 난해
57	수족구(병)	手足口(病)	손발입병	내자. 용어 난해
58	승선근무예비역	乘船勤務豫備役	승선 근무 요원	내자. 용어 난해
59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	時間關聯不完全就業者	추가 취업 희망자	내자. 용어 난해
60	압좌증후군	壓挫症候群	깔림 증후군	내자. 용어 난해
61	약도간벌, 약도간벌	弱度間伐	약솎아베기	내자. 용어 난해
62	양거리	量距離	폭발물 안전 거리	내자. 용어 난해
63	영현비	英顯費	장례비	내자. 용어 난해
64	예가	豫價,預價	예정 가격	내자. 용어 난해
65	요수리	要修理	수리 필요	내자. 용어 난해
66	요존국유림	要存國有林	보전 국유림	내자. 용어 난해
67	유감지진	有感地震	감지 지진	내자. 용어 난해
68	이취미	異臭味	이상한 맛과 냄새	내자. 용어 난해
69	입경	入境	상황에 맞게 "들어오는" 등으로 순화	내자. 용어 난해
70	자동제세동기	自動除細動器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 심장 충격기	내자. 용어 난해
71	저니질	底泥質	하수 퇴적물	내자. 용어 난해
72	적도간벌	適度間伐	중솎아베기	내자. 용어 난해
73	족흔	足痕	발자국	내자. 용어 난해
74	종기일자	終期日字	종료일/ 끝나는 날	내자. 용어 난해
75	주초	柱礎	주춧돌/초석	내자. 용어 난해
76	직결선	直結線	직접 연결선	내자. 용어 난해
77	직역비리	職域非理	특정 분야 비리	내자. 용어 난해
78	집재	集材	집재→나무쌓기, 집재하다→(나무를/목재를) 쌓다	내자. 용어 난해
79	첨승 지도	添乘 指導	동승 지도	내자. 용어 난해
80	체화	滯貨	밀린 화물, 보관 기간 경과 물품	내자. 용어 난해
81	초도(소요, 양산, 청구)	初度	첫번, 처음, 최초	내자. 용어 난해
82	출경	出境	상황에 맞게 "나가는" 등으로 순화	내자. 용어 난해

번호	순화 및 표준화 대상어	원어	순화어 및 표준화 용어	2000자 내자·외자 구분 그 외의 고려 사항
83	**취발**	取拔	**부속 희수**	내자. 용어 난해
84	**취직인허증**	就職認許證	**취직 허가증**	내자. 용어 난해
85	**피양**	避讓	**길 터 주기**	내자. 용어 난해
86	**합땅**	合梁	**땃보**	내자. 용어 난해
87	**해변 경정**	海面 更正	**해면 환산**	내자. 용어 난해
88	**환부율**	還付率	**반송률**	내자. 용어 난해
89	**가사 사용인**	家事使用人	**가사 도우미**	내자. 용어 어감 부정적
90	**대포차**	大砲車	**명의 도용 차량**	내자. 용어 어감 부정적
91	**대포통장**	大砲通帳	**명의 도용 통장**	내자. 용어 어감 부정적
92	**심리검사결과 이상자, 심리검사결과 취약자**	心理檢查結果 異常者, 心理檢查結果 脆弱者	**2차 심리 검사 대상(자)**	내자. 용어 어감 부정적
93	**정신병자**	精神病者	**정신 질환자**	내자. 용어 어감 부정적
94	**가결산**	假決算	**중간결산**	내자. 일본식 한자어
95	**가리**	<라>kali, <일>カリ, 음역 加里	**칼륨**	내자. 일본식 한자어
96	**건설 가계정**	建設 假計定	**건설 중 자산(계정)**	내자. 일본식 한자어
97	**기성고**	旣成高	**진척도**	내자. 일본식 한자어
98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	내자. 일본식 한자어
99	**막사**	幕舍	**병영생활관**	내자. 용어 개념 부적합
100	**여군편의실**	女軍便宜室	**여성 편의실**	내자. 용어 개념 부적합
101	**위약 예정의 금지**	違約豫定의 禁止	**위약금 약속 금지**	내자. 용어 개념 부적합
102	**이직확인서**	離職確認書	**퇴직 확인서**	내자. 용어 개념 부적합. 동음이의어 존재
103	**정용물**	(한자 미상)	**철도 용품**	한자 미상. 용어 난해

■ 참고문헌

강현화 외(2009), 『전문 용어 표준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 국립국어원.

고석주, 이현주 외(2007), 『전문 용어 연구－정리 현황과 과제』, 고석주, 이현주, 민경모, 黃銀霞 공저, 국립국어원 국어자료총서 4, 태학사.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2, 2013), 『교과서 편수 자료 Ⅱ~Ⅳ』. (관련 출처: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누리집(http://www.textbook114.com/) -교과서정보서비스-교과서 일반자료실-교과서 일반자료-'편수자료'로 검색, [편수자료]교과서 편수 자료(1편~4편)(2012,2013)을 찾아 내려받으면 됨. [참고 정보] 작성 일자: 2014-07-25, 내용: Ⅰ. 편수 일반, Ⅱ. 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Ⅲ. 응용 과학, Ⅳ. 기초 과학)

국가표준인증종합정보센터(2010), KS X ISO 704: 2010(전문용어 연구－원칙 및 방법) 개요, (출처: http://www.standard.go.kr/CODE02/USER/0B/03/SerKS_List.asp)

국제표준화기구(2009), ISO 704: 2009(Terminology work－Principles and methods) (ISO:http://www.iso.org/iso/home/store/catalogue_tc/catalogue_detail.htm?csnumber=38109, 기술표준원:http://www.kssn.net/StdForeign/StdForeign_detail.asp?category=ISO&idx=A00008:20:038109)

김문오(2007),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

김문오(2011),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 국립국어원.

김선철(2008), 『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2』, 국립국어원.

김한샘(200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2』, 국립국어원.

김한샘(2009), 『초등학교 교과서 어휘 조사 연구 1, 2, 3』, 국립국어원.

마디니에(2013), '언어 정책과 프랑스어의 풍부화(Politique de la langue et enrichissement de la langue française)', 『쉬운 언어 정책과 자국어 보호 정책의 만남』, 한글문화연대 언어정책 국제회의 자료집.

민현식 외(2003),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민현식 외(2005), 『중학교 교과서 한자어 및 한자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박창원 외(2009), 『2009 전문 용어 정비 지침』, 이화여대 국어문화원, 국립국어원.

서혁 외(2014),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 서혁(연구 책임자), 권순희, 김정우, 김은성, 정소연, 이은희, 신명선, 강용철(공동 연구원),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보고서. [별첨 3] 매체 교육 필수 어휘(한자어) 3,500의 한자 목록 – 초·중 교과서 한자 및 기초 한자 1,800자 목록과의 비교. 487쪽~500쪽.

유현경 외(2010), 『전문 용어 자료 구축 및 정비를 위한 연구』,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전문용어연구센터,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보고서.

이상윤 외(2013), 『유통 분야 전문 용어 사용 실태 현황 조사』, (사)한국유통과학회, 이상윤 외 6명,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보고서.

이현주(2013), 「언어정책의 관점에서 본 전문 용어의 공공성」,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을 위한 전국학술대회』 자료집(2013. 10. 11.), 국립국어원 주최,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 주관. pp.108~119.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연구원.

최기선 외(1998), 『전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기반 연구』, 문화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최기선 외(2001, 2002, 2003, 2004), (20세기 세종 계획) 전문 용어의 정비, 문화관광부 연구용역보고서.
허재영, 김문오 외(2014),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연구』, 허재영(연구 책임자), 김문오, 김경남, 은희철, 이관규, 정대현, 고석주(공동 연구원),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2010), 『공공 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책임자: 장후석, 국립국어원 연구용역 보고서.

□ 토론 □

“전문 용어 정비의 방향”에 대한 토론문

박동근(대진대)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 민주화와 지식 민주화의 발달을 촉진시켜, 현재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표준화되지 않은 용어의 사용은 정보 접근의 수월성과 별개로 대중들이 정보를 수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차원의 전문 용어 정비는 수행 주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효용성을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하신 전문 용어 정비의 기준과 방향에 대한 소개는 매우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 정비는 ‘정확성, 적확성, 전문성’과 ‘평이성, 수월성, 대중성’의 서로 모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만큼 적당한 ‘타협’이 필요하며 타협을 위한 ‘기본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발표에서는 다섯 가지의 <전문용어 개선안 검토 기본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정책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적용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적용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약간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첫째, 기본 원칙 적용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모두 다섯 가지의 기본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을 모두 대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질’은 부정적인 의미를 띄고 있으므로(기본 원칙 5 위배) ‘뇌전증’으로 개선하였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간질’이 더 일상적인 용오라는 점에서 친숙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3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본 원칙 5가 기본원칙 2보다 적용상에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혹시 이런 내부적인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기본 원칙 2에 따르면 “해당 용어의 개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용어의 의미는 일상어와 달리 백과사전적입니다. 전문용어가 의미를 명확하게 담으려면 필연적으로 용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에서 ‘명확성’과 ‘간결성’ 가운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셋째, 어떤 전문 용어가 이해하기 쉬운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을 들고, 어려운 한자 용어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 능력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2000자의 한자를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타당한 근

거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전문 용어 중 20% 정도가 기초 한자 2000자의 범위 외의 한자로 구성된 용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초 한자 2000자 내의 한자이지만 용어가 난해한 경우도 64.1%에 달해 크게 의미 있는 참고가 될지 의심스럽습니다(이에 발표자께서도 1차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한자 1,800은 교육 목표이지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반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어렵고 쉽고에 대한 판단은 한자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한자어 지식보다 어휘 차원의 친숙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1차적인 기준으로는 기초한자보다 어휘 빈도를 고려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넷째, 개선안의 표준어로서의 지위 문제입니다. 개선안이 새로 조어한 어휘일 경우 '임시어'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는 개선안을 보급하는 방법 등으로 신속한 고시와 『표준국어대사전』 등재 등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등재한다는 말은 개선안이 곧 표준어의 자격을 갖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전문용어는 비표준어가 되는 것인지 또는 복수 표준어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또 정책적으로 결정된 개선안이 언중의 수용 여부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섯째, 전문 용어의 표준화는 전문 학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향식 개선이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해당 학계의 합의나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마찰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연구[1)]

임익순(충남대)·박정호(기품원)

<차례>

1. 머리말
2. 방위사업과 국방규격 용어의 표준화
3.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현황과 분석
4. 민군 규격용어의 국어순화 방향
5.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방위사업에서 군수품 조달의 원칙에는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증대하고 경쟁조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용품 조달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수품과 군수품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상용품과 국제 무역을 위한 국제 규격 및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을 고려하여야 한다. 민수품과 군수품에 대한 품명, 제조, 생산, 포장, 구매, 보관, 입출고, 재고관리 등 관리를 위한 속성정보가 서로 달라 민간 영역과 군과의 의사소통과 관리에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2)]

국방규격은 국내 방위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70년대부터 시작되어 수십 년에 걸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중 오래된 국방규격은 대부분 폐기되기도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제·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대 또는 세대별로 다를 수가 있다. 국방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예를 살펴보면, 한자 세대에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한글세대에는 어려운 용어 (예: 교반)가 있으며, 외래어를 번역하는 것에 있어서 작성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 (예: 그랩, 그램, 훼스너, 화스너, 페스너 등)가 있다. 또한 요즈음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 (예: 구리스, 썸분리 등)가 있으며 또한 국어 어문규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자연스러운 문장도 포함되어 있음 (예: 규통이에, 내블로킹, 내빵꾸성 등)을 볼 수 있다. 또한, 띄어쓰기 (예: 유리병속에 → 유리병 속에) 같은 문제는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에 띄어쓰기 차이로 결과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3)]

1) 이 논문은 국방기술품질원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시행한 민군규격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민군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 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임을 밝힌다.
2)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Ⅰ)』, p. 3. 2012.
3) 국방기술품질원(2012), 앞의 책, p. 3.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방위사업청에서는 관련 용어를 국가표준(KS)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작업은 규격제정과 관련된 소수의 전문위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에 제한이 있다. 또한 육군·해군·공군의 특수성이 존재하여 일부 군수품명 및 관리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고,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은 국가표준(KS) 용어도 국어 문법에 맞게 국가표준(KS)을 어문 규범에 따라 정비하기로 하고 2010년 기술표준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가표준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와 외래어 등을 국어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준어를 사용하고 문장배열, 띄어쓰기, 문장부호 및 기호 등도 국어 문법에 맞게 정비하기로 하였다.

국방규격과 관련된 전문용어에 있어서도 국가표준(KS)과 마찬가지로 정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국방규격을 사용하는 군과 민간의 혼선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2012년에 물류용어에 대한 표준화 시범사업에 이어 이후 2년 동안 의무, 화학, 정비, 기동 분야의 규격용어에 대한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어순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두 축인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국방규격 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작업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2. 방위사업과 국방규격 용어의 표준화

최근 민간분야의 기술발전과 국내 방위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군수 부품 국산화 또는 군수 부품의 상용품 적용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군수품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술 및 품목명이 최초에 해외에서 도입된 용어 또는 번역어를 사용하거나 도입기관에 따라 동일 품목을 다른 표현 또는 다른 설명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부품을 국산화하거나 상용화할 때 실제 민간 기술 및 생산 수준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4)]

규격용어에 대한 표준화는 국내외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규격과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실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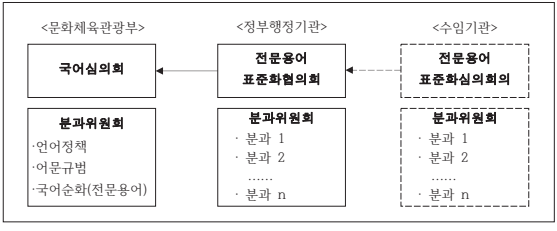
2.1. 전문용어 표준화의 법적 근거

국내의 규격과 관련된 전문용어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표준화는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17조는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4) 국방기술품질원(2012), 앞의 책, p. 7.

쉽고 편리하게 표준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식화 하면 <그림 2-1>과 같고, 각 절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전문용어 표준화 절차>



<출처>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Ⅰ)』, p. 21.

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두며, 그 협의회는 해당 기관의 국어책임관, 관계 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고 체계화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전문용어 표준안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하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전문용어를 소관 법령의 제정·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술단체 및 사회단체 등 민간 부문에서 심의 요청한 관련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안에 대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확정안을 고시할 수 있다.

한편, 군사부문에서의 국방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에 관계가 있는 법령은 방위사업관리규정으로, 제650조(국방과학기술정보관리)의 ④항에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은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과 협의하여 기술용어를 표준화'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품원에서는 3년 주기로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의 증보판을 발간·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용어는 3년마다 용역사업에 의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국방과학기술이 급격하게 발전됨에 따라 생성 또는 변화되는 전문용어를 수용하는 데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전문가로부터 제기되는 전문용어 표준화 소요를 처리할 수 있는 조직과 절차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유관 기관 또는 단체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전문용어와 호환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표준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2. 전문용어 표준화의 중앙행정기관 사례

국어기본법에는 한국어와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어문규정과 언어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고유의 업무기능에 따른 전문용어를 표준화를 위하여 국어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국어책임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어기본법 제정이후 법제도에 부합하기 위한 과도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기본법에 의한 국어책임관의 임명과 전문용어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를 설치하고 문화, 체육, 콘텐츠, 미디어 등 주무 업무관련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 및 검색/유통 지원체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구축하였다. 한국어 지식 대사전을 편찬하면서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용어 편찬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여기에는 웹상에서 정보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용어를 추출하고 정의하는 기술이 사용되었다.[5)]

국어기본법에 의한 전문용어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및 용어 표준화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에 위임을 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중앙행정기관을 대행해서 표준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 결과 TTA에서는 정보통신용어 표준화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 근거에 의하여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TTA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용어를 수용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2명을 위촉하여 상시에 용어수집, 편찬, 검증 및 심의를 하고 있다. TTA는 보통 1개 분기에 50 ~ 200여개의 전문용어에 대한 편찬과 심의를 하여 표준용어를 제정한다. 이중에서 일반 국민 누구라도 알아야 하는 수준의 용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국어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치게 한다. 심의에서 통과된 용어는 고시를 통하여 국민에게 전파하고 널리 쓰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6)]

이외에도 군수품 납품관련 몇 개의 대기업만이 자체적으로 물류관련 용어를 통일화하여 물류관련 업무와 관리 시 활용하여 물류부문에서 고효율·저비용의 구조로 물류부문에서 생산성을 높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물류용어관련 사전류가 시중에 통용되

5) 국방기술품질원(2012), 앞의 책, p. 24.
6) 국방기술품질원(2012), 앞의 책, p. 24.

고 있지만, 서로 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 및 구성이 상이하여 통일화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물류부문의 용어통일화 연구는 국책과제로 동국대학교와 (사)한국유통물류협회에서 RFID기반 유비쿼터스 유통시스템 및 상품 추적시스템 개발(의류, 자동차산업, 제조, 유통물류관련 Data dictionary 구성) 연구와 그 외에 몇 개의 연구가 있는 상황이다.

국방 분야의 전문용어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합참 및 각군 부대 및 기관별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2 ~ 5년 주기로 표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까지 국어기본법에서 정하는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와 관련 규정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통한 국방부 예하 부대 및 기관들에서 표준화되고 있는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전문용어 표준화 개념연구를 2010년에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민간 및 국방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원칙과 사례를 분석하고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표준화 조직, 기술, 절차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전문용어를 활용하는 방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국방과학기술용어의 표준화를 2010년에 수행된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 표준화 개념연구 결과에 따라 수행하였다. 특이한 것은 전문가 협업지원 및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여 과학적인 기법으로 전문용어를 표준화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서에서 새로운 용어를 추출하여 분석하고 편찬을 지원하는 기술[7]이 활용되었다. 이외에도 군수품의 전산화시스템을 위해 각 군의 물류관련 품목은 전산화되어 있지만 각 군 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군수품명, 포장단위 및 관리용어의 통일화가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군수품 조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여 군수품의 국가자원 공유에 부정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편, 다른 행정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활동 중 법률용어에 대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법제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용어의 국어순화는 2006년 이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까지 5년간 총 982건의 법률과 1,200여 건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한시법, 폐지 예정 법률 및 최근 제 개정된 법률 등 300여 건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할 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2011년 이후에는 하위 법령에 대하여 매년 400건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3,000여 건에 대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국어순화는 쉬운 법령・뚜렷한 법령・반듯한 법령・자연스러운 법령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다. 즉 모든 법령 문장은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은 정확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했다. 또 명확하고 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나타내려는 뜻이

7) 다양한 문서 포맷(MS Office, 한글, XML, HTML 등)에 대한 파싱 및 모델명 속성 값을 추출하는 문서 필터 기능 적용하고, 웹 수집기를 이용하여 추출한 비정형데이터를 자연어 처리 기술 및 형태소 분석기, 개체명 분석기 등의 언어 분석기를 적용하여 개체명 추출한 후, 데이터 마이닝 기술과 기계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문서 분류하고, 용어 편찬 전문가용 폐쇄형 온라인 협업지원체계(워크벤치)를 적용하였다.

한눈에 보이는 표현으로 정비하고, 한글 맞춤법·표준어규정·외래어 표기법 등의 어문규정을 충실히 지켰다. 어색한 문어체나 번역체 문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다듬는 것을 포함하였다.[8)]

2.3. 전문용어 표준화의 기술적 문제점

전문용어 표준화는 용어 수집, 선별, 선정, 편찬, 심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표준용어는 보급 및 활용을 하게 된다. 전문용어를 표준화하는 기관들의 단계별 수준은 다음의 <표 2-2>와 같다.

<표 2-2> 대상기관별 전문용어 표준화 수준

구 분		한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정보통신용어 (기술협회)	국방용어 (국방부)	국방과학기술 용어(기품원)
표준화	용어수집	·웹 자동수집	·수작업	·수작업	·자동/수동
	용어선별	·협업체계	·수작업	·수작업	·부분협업체계
	용어선정	·협업체계	·수작업	·수작업	·수작업
	용어편찬	·협업체계	·전문위원 (수시)	·용역(2~4년)	·용역 (3년)
	용어심의	·오프라인 (협업체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임시위원회
용어 보급		·웹 서비스	·용어사전 ·용어집 ·웹/모바일 서비스	·용어사전 ·용어집 ·국방망서비스	·용어사전 ·웹/모바일 서비스 ('12년구축중)
용어 활용		·교과용 도서 ·공문서 작성 ·공식시험 등	·활용 권고	·활용 권고	·활용 권고 ·한글편집기 ·정보 검색 ·정보 분석
용어 관리		·전문용어 관리체계	·DB화 관리	·엑셀 관리	·엑셀 관리 ·DB화 추진중
대외 제공		·개방형	·개방형	·군내 제공	·제공 가능
관련 규정		·국어기본법	·정보통신용어 표준화 운영규정	·자체 지침	·용역 지침 ·규정화 추진중

<출처>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Ⅰ)』, p. 26.

국립국어원은 한국어 및 전문용어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개방형한국어 지식대사전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표준용어에 대한 보급 및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용어수집에서 심의까지 표준화 과정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전문용어 관리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개방형 사전에 등록된 자료는 누구라도 조회, 편집, 가공 등

8) 강현철,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1권 2호, p. 100. 2011.

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TTA는 용어 수집에서 심의까지 과정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수행한다. 그렇지만 정보통신표준화 운영규정과 전문위원을 통한 용어 편찬과 전문가를 통한 심의를 수행할 수 있다. 표준용어는 1년 단위로 용어집으로 발간하고 잠정용어를 포함한 용어사전을 발간한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사전과 모바일 사전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방분야는 자체 지침 또는 계획에 의하여 2 ~ 4년 주기로 용어 표준화 및 사전발간을 하고 있다. 표준화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수작업에 의하고 있다. 표준용어는 엑셀형 파일에 보존하고 있다. 일부 국방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일부는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품원은 전문용어 표준화관련 업무내규를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용어 선별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활용한다. 용역사업은 3년 주기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특이사항은 활용측면에서 한글문서편집기에 반영, 정보 검색, 정보 분석 등 정보화 분야에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국방과학기술용어 표준화 측면으로 시사점을 살펴보면 '전문용어 표준화 심의회의' 및 '분과회의'의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 표준화를 수행한 이후에 체계화를 위해 상위 심의의 요청을 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업무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리고 활용측면에서는 관계법규, 도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지식대사전 등 일부 용어사전에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지만 산업과 관계된 분야에 적용한 사례는 부재하다. 그렇지만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분석 분야에서 자연어 문장에서 형태소를 분리하고 새로운 용어를 추출하거나 관련되는 용어간의 대비 및 추세 분석 등 과거에 인력에 의해서 수행되는 업무를 자동화 도구에 의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산업분야의 용어 통일화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 있다.

국방규격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방위사업청에서 관련 용어를 국가표준(KS)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작업은 규격제정과 관련된 소수의 전문위원에 의해서 수작업으로 검토되기 때문에 검토의 제한성이 존재한다. 또한 육군·해군·공군, 3군의 특수성이 존재하여 일부 군수품명 및 관리용어가 통일이 되지 않고, 유사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용어를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하여 15,000개의 표제어와 75,000개의 유의어(시소러스)를 정비하여 2011년에 사전으로 발간하였다. 이에 따라 군과 민수 분야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용어의 정비는 민간 및 국방 전문가의 협력과 국내 정보기술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국내 산업과 국방발전이 기대되어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9)]

9) 국방기술품질원(2012), 앞의 책, pp. 26~28.

3.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현황과 분석

국방규격은 각 군(육·해·공군), 국방부 직할기관이나 위탁기관에서 작성되어 방위사업청 규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품 조달, 제작·제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서를 말하며,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검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10]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를 통한 표준화의 목적은 민간 및 국방 분야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규격을 제정 및 개정하는 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타당하게 용어의 표준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를 2012년부터 추진하였다. 먼저 타당한 절차를 검증하기 위하여 물류 분야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를 민군규격용어의 표준화와 병행하여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물류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이 다른 분야보다 많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전력지원체계 분야와 무기체계 분야의 전문용어를 순화하도록 계획하여 연차별로 추진하였다. 이 중 무기체계 분야 용어의 국어순화는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국립국어원과 법제처 등 감수기관에 의해 감수가 끝난 용어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민군규격용어의 표준화와 국어순화는 국방규격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상호 호환이 가능한 용어로 순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방규격을 검토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또한 전문용어가 포함된 규격서의 대부분과 도면 등은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입력된 전자문서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휘를 추출하는 경우에 오류가 많아서 실제 적용에는 문제가 있어 가용한 한글문서를 대상으로 어휘를 추출하고 정제된 용어를 대상으로 순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3.1. 검토대상 용어의 선정과 국어순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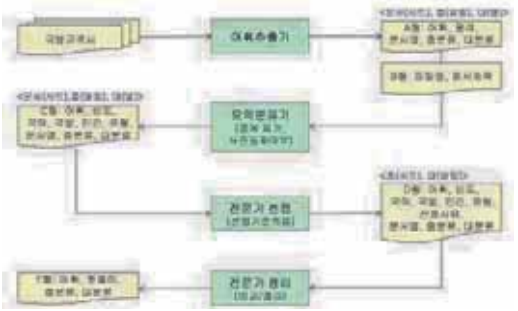
가. 검토대상 용어의 선정

전문용어로 인정할 수 있는 용어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쳐 선정하였다. 우선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한글문서로 작성된 국방규격에서 형태소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어휘를 추출하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추출된 어휘 중에서 중요한 어휘를 골라냈다. 다음으로 전문가 각자의 동료 검토를 통해서 중복되는 어휘를 제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어휘목록을 대상으로 정제된 용어 중 표준화 대상 용어를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방규격 문서에서 어휘를 추출하고 선정하는 절차는 <그림 3-1>에 나타나 있다.

10)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 p. 57. 2013.

<그림 3-1> 어휘 추출 및 선정 절차



<출처>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Ⅱ)』, p. 74.

국방규격 문서를 어휘추출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어휘, 용례, 문서명, 중분류, 대분류 정보를 수록한 A형 산출물이 작성된다. A형 산출물의 문서명은 국방규격 번호가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문서제목이 포함된 문서목록이 B형 산출물이다.

C형 산출물은 A, B형 산출물을 입력으로 받아서 요약분류기를 통하게 된다. 요약분류기에서는 중복된 어휘를 빈도로 표현하여 중복을 제거하고, 민간 및 국방 전문용어사전에 등록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 결과는 C형 산출물에 수록된다.

D형 산출물은 C형 산출물을 각 분야별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제공을 하여 본 연구의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어휘를 선정하게 된다. D형 산출물에는 C형 양식에 선정어휘와 선정사유가 추가된다.

E형 산출물은 선정된 어휘를 대상으로 뜻풀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는 선정된 어휘를 비교 및 정리하여 정제된 용어 목록을 작성한다.[11]

나. 국어순화 절차

모든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조어이거나 오류가 포함된 오용어일 가능성이 높다. 민간사전에만 등록이 된 경우에는 국방용어에 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국방사전에만 등록이 된 경우에는 순화어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특별히 KS 용어와 군수품

11)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Ⅱ)』, p. 74. 2013.

품명집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업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민간과 국방 사전 모두에 등록이 된 경우는 표준어로 보아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다. 또한 순화 대상 어휘는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선정을 하되 가능한 경우에는 순화어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국방규격에서 사용된 용어 중에서 전문용어로서 가치가 있는 용어인지 판단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골라낸 다음 국어순화가 필요한 용어에 대해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여기에 적용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시한 전문 용어 형성의 원칙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12)]

(1) 동기화(투명성) : 그 지칭 개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용어를 통해 유추할 수 있을 때 동기화되었다고 말한다.
(2) 일관성 : 그 분야의 개념 체계에 상응하는 일관된 용어 체계에 부합해야 한다. 신생 용어는 기존 용어와의 개념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3) 적합성 : 표준 용어로 제안하는 용어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친숙한 의미 양상을 따르는 것이 좋다.
(4) 언어 경제성 : 용어는 가능하면 간략해야 한다.
(5) 파생력 : 생산적인 용어 형성 방식 즉, 파생어를 산출하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6) 언어적 정확성 : 전문 용어는 해당 언어의 형태적, 통사적, 음운적 특징을 충족시켜야 한다.
(7) 모국어 선호 : 전문 용어를 생성할 때 외국어 차용 형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언제나 직접적인 차용보다는 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골라낸 어휘는 어휘 분류 유형정보를 활용하여 어휘에 대해 정의를 찾아내서 등록하고 필요할 때는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먼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전문용어로서 가치가 있는 어휘에 대해서는 어휘와 관련된 원어, 동의어, 관련어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것 등은 순화어를 제시하여 다른 전문가와 감수기관의 감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11가지 구분은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어휘를 선정하고 검토하는 전문가들이 임의로 정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들 외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 a : 전문용어로서 가치가 있는 어휘(전문가 판단)
- b : 어려운 한자어 (필요시 순화어 제시)
- c : 일본식 한자어 (필요시 순화어 제시)
- d : 외래어 표기 잘못된 것 (필요시 순화어 제시)
- e : 하나의 개념을 다르게 표기한 동의어

12) 국방기술품질원(2013), 위의 책, pp. 44~50.
13) 국방기술품질원(2013), 앞의 책, p. 72.

- f : 변경어로 제도, 규정, 기술, 시대에 따라 변경된 어휘
- g : 신조어로 새로이 생성된 어휘
- h : 띄어쓰기 어문규정 지키지 않은 것 (필요시 순화어 제시)
- i : 기타 어문규정 지키지 않은 것 (필요시 순화어 제시)
- j : 유의어 관계에 있는 어휘
- k : 어휘추출 오류 등으로 용례(A형) 참조가 필요한 어휘

3.2.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사례와 분석

국방규격에서 사용된 용어는 군사적인 전문용어뿐만 아니라 국방에 필요한 무기, 장비, 물자를 제조하고 시험하며 납품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민간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많은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무기나 장비를 제조할 때 필요한 소재의 종류, 기계적인 부품의 조립, 시험 등에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각각의 학문분야와 제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망라하고 있다.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특징은 군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규격 때문에 한자나 일본어식 용어가 많고, 외래어에 대한 표기가 일관성이 없으며 현재의 용어와 비교하여 생소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자 세대에는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한글세대에는 어려운 용어(예: 교반)가 있으며, 외래어를 번역할 때 작성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예: 그람, 그램, 헤스너, 화스너, 페스너 등)가 있다. 또한 요즈음에는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예: 구리스, 썸분리 등)가 있으며, 국어 어문규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문장(예: 규붕이에, 내블로킹, 내빵꾸성 등) 등이 있다.[14]

여기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11가지 용어순화 기준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자어, 일본어식 한자어와 일본어식 외래어 표기, 일반적인 외래어 표기와 외래어의 국어순화, 어문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어의 순화 등 4가지 기준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가. 한자어의 국어순화 사례

국방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한자어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순화하였다. 첫째는 어렵거나 어색하여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찾아내어 현재에도 사용하는 쉬운 한자어로 순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자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한 연도별로 순화한 용어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1> 한자어 순화 현황

물류 분야(2012년)	전력지원체계 분야(2013년)	무기체계 분야(2014년)
104개	3개	23개

14) 국방기술품질원(2013), 앞의 책, p. 1.

한자어의 순화 중 어렵거나 어색한 한자어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다 쉬운 한자어로 순화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가요성 전선관(可撓性電線管) → 유연 전선관(柔軟電線管)
개관 압력(開版壓力) → 개방 압력(開放壓力)
곤포(梱包) → 포장(包裝)
교반(攪拌) → 혼합(混合), 저어 섞기
곡용포대(穀用布袋) → 곡물포대(穀物布袋)
육안 검사(肉眼檢査) → 외관 검사(外觀檢査)
하적(荷積) → 화물 적재(貨物積載)
환상(環狀) → 환형(環形), 고리 모양
검체(檢體) → 검사 대상물(檢査對象物)
난기 운전(暖氣運轉) → 시동 운전(始動運轉)
봉착(封着) → 밀봉 부착(密封附着), 봉하기, 싸 붙이기
사정(査定) → 심사(審査)

'구부릴 수 있는 성질'을 뜻하는 '가요성', '뚜껑을 연다'는 의미의 '개관', '새끼줄이나 끈으로 묶는다'는 뜻의 '곤포', '휘저어 섞는다 또는 혼합한다'는 '교반' 등의 한자어는 요즈음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며 설명을 곁들이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은 국립국어원의 순화용어집에 들어 있지 않아서 전문가와 감수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같거나 비슷한 한자어 중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화하였다. 역시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검사해야할 물체'를 말하는 '검체', '따뜻하게 하는 운전'을 뜻하는 '난기운전', '완전히 밀폐하여 붙인다'는 뜻의 '봉착' 등 파란색으로 기울여 쓴 용어들도 순화가 필요하였고, 이들 용어는 국립국어원 순화용어집에 등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순화용어로 하였다. 밑줄로 따로 표시한 용어는 한글로 순화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봉탈(縫脫) → 뜸땀
상면(上面) → 윗면
수부(首部) → 첫 부분
소재 물성치(素材物性値) → 소재 물성값
우력 변환기(又力變換機) → 짝힘 변환기
지주점(支柱點) → 버팀점
비등점(沸騰點) → 끓는점
섬도(纖度) → 실의 굵기
호부(糊附) → 풀 먹임

회분(灰分) → 재, 재 가루

균사(箘絲) → 곰팡이실 ***금구(金句) → 쇠장식, 철물***

목상자(木箱子) → 나무상자 ***요대(腰帶) → 허리띠***

위사(緯絲) → 씨줄

'봉탈'은 재봉으로 박음질 할 때 노루발 등의 기계가 잘못 되어 중간에 재봉한 땀이 끊어진 것을 말하고, '우력'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평행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용어들은 우리말로 순화해도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의를 거쳐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파란색으로 기울여 써서 표시한 용어들은 국립국어원의 순화용어집에 등록된 것들이다.

나. 일본어식 표기의 국어순화 사례

일본어식으로 표기된 용어는 그 동안 많이 순화되어 사례가 많지 않았다. 일본어식 표기의 순화는 두 가지로 나누어 순화하였다. 첫째는 일본어식으로 표기된 한자어를 같은 뜻의 많이 쓰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어식으로 표기된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바꾸거나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직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일본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업을 추진한 연도별로 순화한 용어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2> 일본어식 표기 순화 현황

물류 분야(2012년)	전력지원체계 분야(2013년)	무기체계 분야(2014년)
11개	10개	7개

일본어식으로 표기된 한자어를 순화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곤색(紺色) こんいろ 감색, 진남색　　공란(空欄) くうらん 빈칸

과잉(過剩) かじょう 지나침, 초과　　과도한(過渡-) あんまり 지나친

나염(捺染) なっせん 날염　　생지(生地) きじ 옷감, 생천

염료(染料) せんりょう 물감　　입하(入荷) にゅうか 입고, 수납

하중(荷重) かじゅう 무게　　할당(割當) わりあて 분배, 배정

수입(手入) → 손질

정비점 용역(停滯點容波) → 공비 혼합물(共沸混合物)

일본어식 한자는 대부분 순화용어집에 포함되어 있어 순화용어의 대부분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곤색', '공란', '과잉' 등의 용어는 아직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手入)'은 총포 등을 손질하는 것을 말하는데 군에서 이미 순화용어인 손질이 사용되고

있으나 순화용어집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정비점 용액(停沸點容液)'은 화학분야 용어로 그 분야의 사람들은 이미 순화된 용어인 공비혼합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순화용어집에는 들어 있지 않다.

또한 일본어식으로 표기된 외래어를 순화하거나 일본어를 순화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리스 グリース, grease 그리스, 윤활유
로라 ローラー, roller 롤러, 굴말이
펑꾸 パンク punk 펑크
조로, 조루 じょろう, 如雨露 물뿌리개

일본어식의 외래어 표기는 이미 순화된 용어가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는 아직도 일본어식의 표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국가표준의 용어 순화와 함께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순화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외래어 표기의 국어순화 사례

외래어는 대부분이 영어이며 일부 프랑스어나 독일어도 있으나 영어식 표기로 되어 있다. 외래어는 학문분야나 현장에 따라 발음을 표기하는데 있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어떤 용어는 같은 것을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기하는 예도 있다. 외래어의 순화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 용례를 검색하여 적용하였고 용례에 없는 것은 분야별 전문가와 감수기관의 전문가가 토의하여 정하였다. 외래어의 순화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첫째는 외래어의 발음 표기를 순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외래어를 국어로 순화하는 것이다. 외래어 순화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3> 외래어 순화 현황

물류 분야(2012년)	전력지원체계 분야(2013년)	무기체계 분야(2014년)
194개	348개	126개

먼저, 외래어의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순화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가스캣트, 가스킷트, 개스캣, 개스캣트 → 개스킷(gasket)
데니야, 데니아 → 데니어(denier)
랩핑, 랠핑, 레핑 → 래핑(lapping)
롯드, 롯트, 롯뜨 → 로트(lot), 무더기
맨드렐 → 맨드릴(mandrel), (갈돌)끼우개

바클, 박클 → 버클(buckle), 죔쇠
브라켓트, 브라켓, 브래킷트 → 브래킷(bracket)
스틱커, 스티카 → 스티커(sticker), 붙임 딱지, 부착지
셋, 셋트 → 세트(set), (한)벌
옵셋 → 오프셋(offset), 불량(권)세우기, 편차
유니트 → 유닛(unit), 전시발　　후크 → 훅(hook), 갈고리, 바늘
챰바, 쳄버 → 체임버(chamber)　　코우크스 → 코크스(cokes)
크라후트지 → 크라프트지(kraft paper)
폴리에치렌 →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프러시, 플라쉬 → 플러시(plush)
픽업 아암 → 픽업 암(pickup arm)
화스나, 화스너, 훼스너, 훼스네, 패스너 → 파스너(fastener), 지퍼

'개스킷', '브래킷', '파스너' 등의 외래어 표기가 비슷한 발음으로 다양하게 표기된 것은 외래어 표기법이 정착되기 전에 작성된 규격에서 용어를 추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외래어 표기가 잘못된 것은 외래어 표기법 제3장 표기세칙을 참조하고 국립국어원의 용례 찾기를 검색하면 쉽게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파란색 글씨에 밑줄로 표시한 것처럼 순화어 목록에서 제시한 말들이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것은 따로 분석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외래어를 국어로 순화한 용어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노멀라이즈,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 정상화, 정규화, 표준화
더스트 커버(dust cover) → 먼지 덮개, 방진 덮개
라벨(lable) → 꼬리표, 이름표, 상표
보론 카바이드(boron carbide) → 탄화붕소
쇽 업소버(shock absorber) → 완충장치, 완충기
제어 로직(logic) → 제어 논리　　커플러(coupler) → 결합기
쿠션(cushion) → 허리받이, 방석　　트랜스미션(transmission) → 변속기
텍스타일(textile) → 천, 직물, 섬유, 실
파이버(fiber) → 섬유　　패드(pad) → 받침, 보호대, 지지대
피크(peak) → 절정(기), 정점, 최고조
갭 성장(gap) → 간격 확장　　더블러(doubler) → 교대 회로
공조 덕트(duct) → 공조 통로　　로드(load) → 탑재
디스플레이 유닛(display unit) → 시현기
리모트 터미널(remote terminal) → 원격 단말기

목업(mockup) → 실물 모형장비　소나(sonar) → 음향탐지기
슬롯 배터리(slot battery) → 삽입형 전지
암 레스트(arm rest) → 팔걸이
옴메타(옴미터, ohmmeter) → 저항계
윈드 쉬어(wind shear) → 전단풍　주석포일(foil) → 주석박판
클램프 조(clamp jaw) → 집게 턱
헬리포트, 헬리패드(heliport, helipad) → 헬기장

'트랜스미션', '라벨', '쇽 업소버' 등의 검정 글씨로 쓴 외래어는 국립국어원의 순화어 목록에서 검색하여 국어로 순화한 용어를 제시하였고 대부분의 용어가 순화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파란색으로 기울여 쓴 용어는 대부분 두 단어 이상의 복합 용어이며, 이들 용어에 대한 순화어가 국립국어원의 순화어 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분야별 전문가와 감수위원들이 상의하여 국어로 순화한 용어를 제시하였다.

라. 어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어의 국어순화 사례

어문 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어는 대부분 오탈자나 두음법칙에 관한 것이다. 오탈자는 국어의 경우에 어려움 없이 구별할 수 있지만 외래어의 경우에는 발음을 다르게 표기한 것인지 완전히 틀리게 표기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어문규정과 관련한 국어순화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첫째는 국어 오탈자를 순화한 것과 둘째는 외래어의 표기 중 완전히 틀리게 표기한 것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어문규정과 관련한 용어의 순화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4> 어문규정 관련 용어 순화 현황

물류 분야(2012년)	전력지원체계 분야(2013년)	무기체계 분야(2014년)
92개	22개	126개

먼저, 국어의 어문규정을 지키지 않은 오탈자를 순화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곡율 → 곡률(曲率)　　***극율 → 극률(劇律)***
수축율 → 수축률(收縮率)　　***뇨소 → 요소(尿素)***
조각 → 조각　　***칫수 → 치수***
규붕이 → 귀붕이　　납품자 → 납품자(納品者)
두깨 → 두께　　마루리 → 마무리
불황성 가스 → 불활성 가스(不活性)
비정사적 → 비정상적(非正常的)　사약 → 시약(試藥)
시료분활기 → 시료분할기(試料分割器)

입부훈련 → 입무훈련(任務訓練)　　절찰 → 절차(節次)
파쇠 → 파쇄(破碎)　　필요고건 → 필요조건(必要條件)
흡탁 성능시험 → 흡착 성능시험(吸着性能試驗)

국어의 어문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어는 한글 맞춤법 제3장 5절의 두음법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제4장 4절의 사이시옷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 외의 오탈자는 규격문서의 완성도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내어 장차 규격을 정비할 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외래어 표기 중 발음의 차이가 아니라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순화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게이블럭 → 게이지 블록(gage block)
로션바 → 토션 바(torsion bar)　　마클 → 버클(buckle)
브래이프 → 브레이드(braid)　　사인비아 → 사인바(sine bar)
수티앵 칼라 → 스탠드 컬러(stand color)
스킴 → 스킬(skill)　　시티치 → 스티치(stitch)
오라배핑 → 오버래핑(overlapping)
엑폭시 → 에폭시(epoxy)　　엥키 → 앵커(anchor)
칫치직경 → 피치 직경(pitch)　　카우스 → 커프스(cuffs)
펜차크로 → 펜타클로로페놀(pentachlorophenol)
펨퍼링 → 템퍼링(tempering)
표리에칠렌 → 폴리에틸렌(polyethylene)
피피링 → 파이핑(piping)

외래어를 잘못 표기한 용어도 규격문서의 민군 간 호환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시하였다.

4. 민군 규격용어의 국어순화 방향

언어는 유기체인 사람들이 사용하므로 유기체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언어를 순화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인위적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 언어의 순화가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방치하여 언어사용이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되고, 언어가 변화하는 흐름을 읽지 못하여 변화를 무조건 거부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순화 방안을 내놓더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이 이를 외면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15] 민간과 국방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방규격에 포함된 전문용어의 표준화

나 국어순화도 마찬가지이다.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기본적인 것 외에 생각해야 할 사항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4.1. 사용할 수 있는 전문용어 순화안 제시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는 규격을 필요로 하는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군수품의 소요 제기, 계획 수립, 제조, 시험, 납품 등에 종사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문용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반영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순화용어를 제시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전문용어를 순화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전문용어의 성질을 살리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다.[16] 어떤 용어는 국어로 순화하면 전문용어의 성질을 잃어버려 일반적인 용어가 되는 경우가 있고(예: 교반 → 저어 섞기 등), 어떤 용어는 순화어가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아 따로 뜻을 설명해야하는 경우(예: 봉탈 → 뜀땀)도 있다. 어느 경우나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순화한 전문용어를 사용해도 전체의 규격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꼭 필요한 용어는 한자어가 되었든 외래어가 되었든 융통성을 갖고 순화어를 제시하여 국방규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2.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어로 순화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한자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상의 용어에 대한 순화의 역사를 보더라도 친숙한 한자어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에 어려운 한자어나 널리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의 순화어는 완전히 정착되었다. 예를 들어 '적자(赤字) → 결손, 부족', '현관(玄關) → 문간', '간판(看板) → 보람판, 보람' 등의 한자어는 널리 사용되어 순화어로 제시한 용어가 정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렵거나 널리 쓰이지 않는 한자어는 순화어가 정착되었다. 예를 들어 '유양(有樣) → 모양, 형편', '본딥(本立) → 책꽂이', '화하(靴下) → 양말' 등은 한자어는 사용되지 않고 순화어가 정착되었다.[17]

국방규격의 전문용어도 관련 학문 분야의 문어체로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를 많은 국방규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순화어로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가요성(可撓性) → 유연(柔軟)', '곡용포대(穀用) → 곡물포대(穀物)', '하적(荷積) → 화물적재(貨物積載)' 등과 같이 순화어로 제시한 용어는 요즈음에도 많이 쓰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이다.

15) 이동석,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새국어생활』 21권 2호, p. 77. 2011.
16) 강연화, "전문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21권 2호, p. 90. 2011.
17) 이동석(2011), 앞의 글, pp. 65~66.

4.3. 일본어식 한자어나 외래어 표기의 의식적인 순화

일본어식 한자어나 외래어의 표기는 광복 이후 진행된 국어순화 운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도 우리의 언어생활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 순화어가 정착되지 않은 사례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성공한 사례가 많다.[18] 일본어식 용어가 순화되지 않은 일상 용어는 '결국(結局)', '토산(土産)' 등이 있고, 일본어식 외래어 표기가 순화되지 않은 것은 '링게르 → 링거', '다이나마이트 → 다이너마이트', '콘테이너 → 컨테이너' 등이 있다.

국방규격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어식 한자어인 '공란(空欄)', '과도한(過度)', '할당(割當)'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고, 총기손질을 뜻하는 '수입(手入)', 끓는점이 같은 혼합물을 뜻하는 '정비점용액(停沸點溶液)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일본어식 외래어 표기도 '밧테리', '바란스', '데이타', '레이다' 등의 표기가 사용되고 있다. 일본어식 한자어의 표기나 외래어의 표기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의 순화어를 제시하고 의식적으로 바꾸어 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4.4. 학문분야와 현장을 연결하는 외래어 순화

전문용어의 순화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영어 표현 위주의 외래어에 대한 순화일 것이다. 영어로 표기되는 외래어는 특히 항공분야나 정보통신분야에서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술수준과 연관되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들어온 이유도 크겠지만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외국과의 교류가 많고 대부분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아닌 이유도 큰 것으로 보인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용어에 대하여 적절한 한자어나 우리말로 순화하지 않으면 고유한 우리말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크므로 당면한 과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야의 외래어는 우선 그 학문분야에서 먼저 순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는 현장과 연결하여 순화어를 제시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말로 순화하기 어려운 '개스킷', '데니어', '맨드릴', '코크스', '픽업 암' 등과 같은 용어는 외래어를 표기법에 맞게 올바르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말로 순화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용어들은 하문분야와 현장을 연결하여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두 단어 이상의 합성어 중 순화어를 제시했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갭 성장 → 간격 확장', '디스플레이 유닛 → 시현기', '리모트 터미널 → 원격 단말기', '암 레스트 → 팔걸이' 등은 순화어를 사용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학문분야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순화된 용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18) 이동석(2011), 위의 글, pp. 67~68.

19) 류금자 등, "정보통신 용어표준화와 국어순화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p. 1. 2012.

4.5. 순화어를 이용한 규격의 정비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순화는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순화어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격의 정비를 통해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바뀐 용어를 알고 계속하여 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20] 국가표준을 정하는 부서에서 표준규격을 정비하기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고치고 있는 것과 같이 국방규격도 국가표준을 기준으로 용어를 순화해 가면서 규격의 정비도 아울러 진행해야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글 문서를 컴퓨터에서 만들 때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쓰도록 알림기능을 붙여 놓았듯이 국방규격의 정비 때에도 제시된 전문용어를 자동으로 고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학문분야와 현장을 연결한 전문용어의 순화가 정착할 수 있고 효과도 더욱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를 통한 표준화는 민간 및 국방 분야에서 다르게 쓰고 있는 용어를 식별하고 분석하여 규격을 제정 및 개정하는 위원회에 제시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타당하게 용어의 표준화를 수행하고, 그 규격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국방규격은 군수품의 조달, 제작·제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격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 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검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계획을 세우는 부서의 전문가와 제품을 조달하는 전문가, 제조와 제작, 시험에 참여하는 전문가 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다. 전문용어의 순화는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그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다. 국방규격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고 납품할 수 있어야 한다. 순화된 전문용어의 제시와 사용이 국방규격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수천 개의 용어를 정리하고 몇 백 개의 국어 순화어를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여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전문용어 중 한자어로 된 용어를 쉬운 한자나 한글로 순화하였고, 일본어식 한자어나 외래어 표기에 대한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또한 영어 위주로 표기된 외래어도 에 대해 올바른 표기법에 따른 순화어나 한글 순화어를 검토하여 제시하였고, 그 밖에 띄어쓰기나 오탈자 등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을 지키지 않은 용어를 찾아 수정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순화방향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국방규격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순화안을 제시하고, 한자어는 쉽게

20) 김수업, "전문용어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17권 1호, p. 101. 2007.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하며, 일본어식 한자어나 외래어 표기는 의식적으로 찾고 고쳐 쓰도록 하고, 학문분야와 현장을 연결하여 순화어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순화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방규격의 정비와 함께 추진하여야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는 이제 출발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걸음마 단계에 있는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활동이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노력을 통해 관련 학문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과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들, 제조와 제작, 시험, 납품 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순화어의 제시와 사용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국어기본법, 법률 제11424호, 2012.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053호, 2012.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훈령 제188호, 2012.
국립국어원, 개방형한국어지식대사전, 2011.
방위사업청, 국방규격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2010.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Ⅰ)』, 2012.
국방기술품질원 『민군 규격용어 표준화 방안 및 협업지원체계 구축(Ⅱ)』, 2013.
강연화, "전문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21권 2호, 2011.
강현철,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011.
국방부, 『국방 군수·전력 용어사전』, 2013.
김수업, "전문용어 순화 방안", 『새국어생활』 17권 1호, 2007.
류금자 등, "정보통신 용어표준화와 국어순화에 관한 고찰", 『정보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2.
이동석,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새국어생활』 21권 2호, 2011.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국방기술품질원 http://www.dtaq.re.kr

□ 토론 □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국어순화 연구”에 대한 토론문

한용운(겨레말큰사전)

이 연구는 국방 분야 내에서 다르게 쓰이고 있는 용어에 대한 표준화 및 순화 방향을 제안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국내의 현행 전문 분야 용어가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와 ‘학술 목적으로 쓰이는 용어’ 등에 차이가 있어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는 시의적절한 연구라 생각한다.

본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의 국방규격 전문용어 순화 방향에 대해서는 발표문과 견해를 같이한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질문과 하나의 제안을 덧붙여 지정토론자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1. 국방규격 전문용어 순화 작업이 성공하려면, 육군·해군·공군 등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화한 용어를 적극적으로 익히고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용어를 표준화하고 순화할 때, 언어 전문가 외에 국방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순화어를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전문용어 순화 작업은 해당 전문 분야 학자들과 언어 전문 분야 학자들 몇몇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실제 현장에서는 순화한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 제시된 토론자의 생각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1) 국방규격 전문용어를 표준화하거나 순화할 때, 국방 관련 각 분야를 대표하는 종사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순화한 용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되, 만약 순화한 용어가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다면, 전문가들과 현장 종사자들이 재논의하여 하나의 순화어가 확정될 때까지 새로운 순화어를 제시하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준화 또는 순화어 작업이 일회성 작업으로 그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순화 작업을 할 때, 순화 대상 용어가 단어인데 순화한 용어가 구(句)이거나(예: 매도인→ 판 사람 / 해트트릭(hat trick)→혼자 삼 득점 …), 또는 하나의 전문용어에 대해 순화한 용어가 둘 이상일 경우(예: 메스→손질, 수정, 칼…) 순화 작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 ‘스티커→ 붙일 딱지’, ‘패드→ 받침, 보호대, 지지대’ 등으로 순화한 예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하다.

3.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논문 제목을 '국방규격 전문용어(의) 순화 방안 연구' 또는 '국방 분야 전문용어 순화 방안 연구'로 수정하면 연구 목적과 내용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 같다.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

이현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

<차례>

1. 들어가며
2. 뷔스터(Wüster)와 전통적 용어 이론
3. 반(反) 뷔스터 이론들과 용어 연구의 새로운 경향들
4. 관점의 종합 : 용어의 지위
5. 뷔스터 다시 읽기
■ 참고문헌

1. 들어가며

국내에 전문용어학이 소개되고 어느 정도 자립성을 띤 분야로 자리매김한 지도 근 17년이 되었다.[1] 개인의 연구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교육부나 국립국어원, 대학부설 연구소 등에서 중·장기 연구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국어원의 전문용어 관련 부서 설치, 국어기본법의 전문용어 조항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언어학 분야에서는 드물게 실제와 이론이 두루 의미 있는 결과를 쌓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국내 전문용어학이 용어의 표준화나 정비, 언어정책적 측면과 전문용어 사전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치우쳐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연구, 개념과 의미에 대한 언어학 내부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다.

반면, 해외에서는 전문용어의 형태론적, 어휘의미론적, 화용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용어의 조어와 연어, 다의성과 동의상, 은유와 환유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회언어학,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의 연구 또한 괄목할만 하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시도의 이면에는 일명 비엔나 학파라 불리는 전통적인 용어론의 입장과 이에 반하는 시각들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 이를 통해 전문용어학이 이론적으로 단시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대립이 또한 전통적 용어 이론의 창시자인 뷔스터(Wüster) 저작에 대한 참 읽기가 배제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본 발표에서는 우선 전문용어의 일반 이론인 전통적 용어론의 관점을 정리하고, 이를 사전으로 실현한 뷔스터의 저작 『기계학 사전』의 내용을 개괄한 후에, 이후 대표적인 반(反)-뷔스터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사회용어론과 사회인지 용어론의 관점을 살펴볼 것이다. 전문용어에 대한 이론, 학문은 용어의 다각적 속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상정하고 용어가 단순히 개념에 대한 이름이 아니라, 개념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는 절차의 단위임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술한 비판의 대상이 된 전통적 용어

1)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계획, 전문용어 정비사업(1998)의 시작과 전문용어연구센터의 발족 시기(1999)

론의 뷔스터 저작을 다시 살펴봄으로써 뷔스터에 대한 참 읽기의 필요성을 밝히고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뷔스터(Wüster)와 전통적 용어 이론

뷔스터 이론 또는 일반 용어 이론(General Theory of Terminology/GTT), 비엔나 학파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전통적 용어론은 전문용어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오이겐 뷔스터의 논문과 그가 설립한 ISO(국제표준화기구) TC37(전문용어 분과)와 Infoterm을 통해 구체화된 업적(규범서, 사전 등) 및 원리에 힘입은 바 크다. 전문용어학은 그 탄생 초기부터 일반어휘론, 일반사전학과 대립하면서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이론 틀과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 전문용어학 초기의 엄격하고 이분법적인 가치관은 매우 급속도로 이 분야가 독자적 학문으로 설 수 있게끔 했으나 이후 많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사실 이러한 경향에는 뷔스터 자신의 활동 및 사상적 배경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사료된다. 뷔스터는 본래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IEC(국제전기공학위원회) 오스트리아 대표위원, ISO 'Small Tools' Committee 오스트리아 상임대표 등을 역임한 공학자이다. 공학자로서 그는 전문가들 사이의 용어 사용을 통일화하여 전문가들의 장벽 없는 의사소통을 희망했을 것이다. 그가 비엔나 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쓸 당시 비엔나 학파(논리실증주의 학파)의 영향과 에스페란토어의 열렬한 지지자로 활동한 그의 이력을 통해 보면, 개념과 용어의 일대일 대응성, 중의성이 배제된 용어에 대한 그의 주장, 모국어가 달라도 이해가능한 용어의 국제적 속성과 구어가 아닌 문어에의 우선 순위에의 천착 등을 이해할 수 있다. ISO의 전신인 ISA와 그 이후 ISO에 TC 37 수립 후 실제 규범을 작성할 때 자신의 박사논문 *The Standardization of International Technical Terminology* (1931)이 토대가 되었으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전문용어의 규범집, ISO 704와 ISO 1087-1 등은 이후 몇 차례 수정되었지만, 그가 직접 작성한 문헌으로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끊임없이 전문용어학의 정립에 힘쓴 열혈 이론가이자 행동가였지만, 이러한 그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어학자, 용어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배격하였다.

용어론의 기본원리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에 와서는 많은 용어학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항목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2)]

1) 언어와 관련하여
- 개념의 언어에 대한 우위
- 개념의 정확성 (일의성)
- 용어의 일의성 (동의어의 부재)
- 명칭에 대한 기호학적 이해
- 다른 언어 층위를 배제하고 어휘 층위에의 배타적 관심
- 용어에 대한 공시태 관점

2) Cabré, M.T. (2003: 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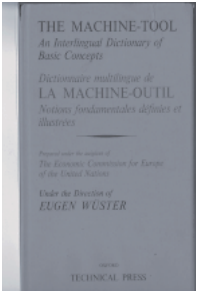
- 구어보다 문어 층위에의 우선
2) 언어 진화와 관련 가정
- 언어 진화에 대한 의식적 제어 (계획, 통일화, 표준화)
- 명칭의 국제적 형태에의 우위
- 문어만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음
3) 작업 방법에 관하여
- 명칭론적 방법론의 배타적 이용[3]과 그에 따른 주제별 정리에 대한 선호

위의 용어론 원리들은 언어학보다는 개념론, 논리학, 존재론 등에 바탕을 두고 있어 매우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자연언어의 속성을 무시하거나 언어학의 기본 전제에 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특히 다의어와 동의어를 인정하지 않는 점이나, 개념을 언어기호인 용어와 분리하여 용어를 단순히 개념에 대한 명칭, 즉 기의 없는 기표로 간주한다는 점 등은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재 ISO 등을 위시한 전통 용어학자들은 동의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완화하거나 현장에서 쓰이는 구어를 반영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념의 용어에 대한 우위, 일의성, 표준화의 규범적 속성 등은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용어 사전 속에도 반영되고 있다. 우선, 아래 2.1절에서 뷔스터의 이론이 가장 잘 드러난 그의 『기계학 사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전에 전통적인 용어론에서 말하는 용어 사전학과 일반 사전학의 차이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Wüster의 『기계학 사전』에 나타난 전통적 용어 이론의 특징

뷔스터의 『기계학 사전』(*The Machine-tool. An Interlingual Dictionary of Basic Concepts/Dictionnaire multilingue de la Machine-outil. Notions fondamentales définies et illustrées (En-Fr)*)(1968)은 UN 산하의 유럽경제위원회(ECE)의 지원으로 출판된 영-불 이언어 사전이다. 이 사전은 기계학 분야의 표준용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용어 사전의 표본으로 삼고자 뷔스터가 직접 거시, 미시, 메가구조를 고안하고 전문용어의 이론적 원리를 실현한 결과물이다. 본 사전은 총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8장이 본격적인 용어 사전에 해당한다. 1장은 본 사전이 편찬되기까지의 역사, 2장은 사전학적 주석이라는 제목 하에 사전의 특징 즉, 표준 용어 및 표준화된 사전 형식에 대한 설명과, 개념체계에 따른 주제별 분류와 참조, 삽화 등을 통한 정의의 정확성을 설명하고 개념, 용어, 정의의 추출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다. 자료출처 및 인용 등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3장은 참고문헌, 4장은 사전 부록의 활용 방법, 5장은 사전에 사용된 다양한 부호 및 약호, 6장은 본 사전이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도, 7장은 사전 어휘부의 개념도식(개념의 분류 목록), 8장은 본격적인 용어 사전 부분, 9장부터 11장은 인덱스에 해당한다.

3) 이는 일반 사전학에서의 어의학적(semasiological) 접근방법과 대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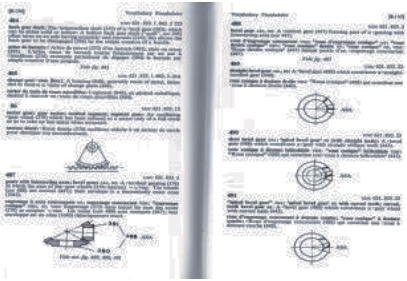


<그림 1> 뷔스터 『기계학 사전』의 겉표지

특히 본 사전의 특징으로는 표준용어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의 틀 자체를 표준화하여 전문용어 사전의 형태적 표준화를 꾀한 점이 눈에 띈다. 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이언어 사전 : 전통적인 관점의 용어사전학은 국제적 소통을 위한 다국어 사전을 선호한다. 일반적인 이언어 사전이 일방향성을 띤 반면, 본 사전은 표제어와 정의문이 모두 두 언어로 주어진 쌍방향 사전의 형태이다.
- 표준화 : 용어, 용어의 정의, 제시 방식 모두 표준화하였다.
- 개념 지도: 주제별, 개념적 제시의 구조를 택하여 알파벳 순서가 아닌 시소러스 구조를 띠고 있다. 상호 참조 기능을 통해 관련된 개념들을 밝히고 있다. 특히 삽화에서도 각 부분들에 대한 명칭을 용어 번호를 통하여 명시하여 개념의 전체-부분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문헌정보학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헌 분류 체계인 UDC(범용십진분류체계)의 번호를 각 용어마다 명시하여, 관련 문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각 개념의 개념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전문용어가 지식의 단위이자 개념 전달 단위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도록 : 뷔스터 사전은 전문용어 사전이 언어사전보다도 오히려 부품 카탈로그와 유사한 점이 많다. 이는 전문용어가 표상하는 바가 순수한 언어내적 의미가 아니라 언어외적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 뷔스터 사전 중 표제어의 개념 도식



<그림3> 용어 정의 및 용어 배치 관찰

표제어를 개념이라고 칭한 점이나 개념체계도의 수록, 주제별 정리 등 일반 언어사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뷔스터 사전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문용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잘 보여준다. 아래 3장에서는 전통적인 용어 이론이 비판받는 요인들과 그로 인해 탄생한 전문용어학의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반(反) 뷔스터 이론들과 용어 연구의 새로운 경향들

전문용어학의 경향에 대한 분류를 처음 시도한 논문은 마이킹(Myking, 2001)으로, 이에 따르면 전통적 용어 이론에 대한 태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도 충실파(moderate and loyal)로서 마이킹 본인과 북유럽 학자들이 이에 속하며 둘째, 전복

적 급진파(radical and subversive)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을 용어론에 대입한 사회용어론(socioterminology)의 학자들과 사회인지용어학자(socio-cognitivist)들이 대표적이다. 셋째로 급진적 추종파(radical and loyal)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적 용어 이론의 기본 원칙을 받아들이고 이를 심화, 재정비하는 작업을 제안한다. 마이킹(Myking 2001: 56)은 두 번째 급진적 부류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단일어를 연구하는 용어학자들이며 이 때문에 어의적(semasiology) 방법론을 택하게 되고 첫 번째, 세 번째 부류의 학자들은 번역학 등 다언어적 관심 속에서 명칭론적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전통적 용어론과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기반 및 연구 다각화에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접근 방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3.1 사회용어론(socioterminology)

'사회용어론'이라는 용어는 1980년대 초에 불랑제(J.-C. Boulanger), 르라(P. Lerat) 등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학파의 형성은 프랑스 투앙대학교의 강비에(Y. Gambier), 에르망(A. Hermans), 게스팽(L. Guespin), 고댕(F. Gaudin) 등의 공격적인 저작들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비엔나의 ISO와는 전혀 다른 용어 정비의 방향을 보여준 퀘벡의 학자들이 사회용어론의 이론을 도입하고 이를 언어정책에 응용함으로써 사회용어론은 그 입지가 견고해졌다고 하겠다.

사회용어론은 일반어와 전문용어를 확실히 구분하고자 했던 전통적 용어론의 가설을 거부하고, 용어의 의미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식 전달과 발화의 사회언어학적 조건 하에 고려되어야 하는 기능적 단위로 간주한다. 즉, 한 용어가 특정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발화 의지나 필요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실제 발화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의 살아있는 언어'(Gaudin 1993: 205-206)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댕(Gaudin, 2005: 83)은 '전통적 접근이 무시했던 용어의 사회적, 담화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밝히는 데 사회용어학이 공헌했다'고 말한다. 이들은 표준화된 공식 용어들과 실제 전문 활동영역에서의 용어 사용의 괴리를 조사하고, 전문 개념들이 매우 높은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되는지 또는 지식 대중화의 현장에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하는 명칭화의 과정을 연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를 둘러싼 제 현상들은 용어를 만들고 통일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결정 층위의 복수성(plurality)과 용어의 '협상' 과정, 그리고 신조어 현상 등에서 볼 수 있는 용어의 순환성 등의 특징을 보여준다. 사회용어학은 용어 표준화(normalisation), 언어정책(language policy)이라는 표현을 거부하고 실제 용어가 쓰이는 터전에서의 생성, 조율과정을 포함하는 glottopolitique, normais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한다. 특히 게스팽(Guespin, 1993: 218)이 조어한 normaison은 프랑스어의 표준화normalisation에 비해 maison(='집', '터전') 즉, 현장에서 '그 사용자들에 의해 자율조정되어 결정된'(Cabré, 1998 : 244) 규범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듯 현장에서 의미와 용어가 결정되어 가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용어학의 관점은 이후에 다양하게 전문용어학의 여러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문용어의 커뮤니케이션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인 카브레(Conceição, 2005: 37에서 재인용)는 용어 표준화와 개념의 이름으로서의 용어의 불변적 특징을 배격하고, 용어란 특정 의사소통 상황에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쓰인 언어단위로 정의내린다. 이 때 용어는 일반 어휘와 화용적, 의미적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같은 관점은 험블리(Humbley, 1997: 23)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데, '전문용어와 일반어휘 간에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 범위의 문제'라고 단언한다. 르라(Lerat, 1995: 19) 역시 전문어(langue de spécialité)라는 표현은 언어의 하위부류에 일반어와 전문어가 있음을 전제하고 둘 사이에 교차 지점이 없이 평행한 집합으로 보게 하므로 이보다는 전문화된 언어(langue spécialisée)로 칭할 것은 권유한다.

3.2 사회 인지 용어론(terminology socio-cognitive)

가장 대표적인 사회 인지 용어론자인 테머만(Temmerman, 2000: 4-16)은 전통적 용어론의 원칙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하면서 이를 강하게 비판한다.

- 제1원칙 : 명칭론적 관점
- 제2원칙 : 개념의 단절적 특성
- 제3원칙 : 내포적 정의 방식
- 제4원칙 : 일의성 원칙
- 제5원칙 : 공시태 원칙

이 중에서 첫 번째, 네 번째 원칙이 인지용어자들로부터 공통되게 비판받는 부분이므로 이를 살펴보겠다.[4]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명칭론적 관점은 기호의 내용적 측면(의미)에서 형식적 측면(형태)로 향하는 방법론이고 어의적 관점은 반대로 기호의 형태에서 출발하여 내용으로 접근하는 연구방법론이다. 후자가 현대언어학의 의미론이 택한 방법론이라면, 용어학은 명칭론적 방법론을 택한다. 테머만은 이러한 선택과 방향 자체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용어학이 명칭론적 방법론을 잘못 규정했음을 지적한다. 용어학의 명칭론은 개념에서 시작해서 명칭으로 향한다. 그런데, 전통적 용어론에서 개념은 언어외적 세계에 위치한 실체이며 명칭이 부여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개념이 용어의 의미라면, 의미는 단어와 분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 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5] 용어를 개념에 대한 이름표(label)로 보고 그 자체는 의미가 텅 비어있는 고유명사와 같은 단위로 간주하는 이러한 관점은 후대의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며, 이를 수정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6]

일의성(mononymy)은 일치시성(monoreferentiality)과 함께 용어 표준화를 위한 근본 가정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이 일의성의 보장을 위해서 용어의 자율적인 발전과 변화를 규제하는데, 전문분야의 명시, 정의를 통한 중의성 배제, 표준화를 통한 동의어 배제 등 장치를 마련한다. 인지적 관점에서는 동의성과 다의성은 일상어뿐 아니라 전문용어에서도 두루 발견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속성이 오히려 개념의 이해와 개념체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친다. 사고와 언어간의 일대일 대응성 또는 일치성은 실제로 일어나기 어

4) 개념의 단절적 특성은 뷔스터 및 ISO가 개념에 대해 정의한 부분을 비판하는 것이며, 내포적 정의 방식은 ISO가 권고하는 용어의 정의 방식인 내포적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즉, 개념의 속성들의 필요충분조건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지 않는 용어들이 존재함을 말하는 부분이다. 공시태 원칙은 용어의 사용은 사회역사적 배경을 통해 재활용되고 의미가 재생산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5) 뷔스터의 사상적 계승자인 펠베르(Felber, 1984)에 따르면, 전문용어학은 언어학의 의미론과 대비되어 '개념론conceptology'을 탐구한다. 그에 따르면 개념은 일반 어휘에서의 의미에 대응되며, 개념이 용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점이 의미와 다른점이라고 설명한다.

6) 이하 4절 참고.

려운 이상적인 현상일 것이다. 한 용어의 불분명한 범주화(fuzzy categorization)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변하고 발전하는 개념의 이해와 지칭을 더 쉽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4. 관점의 종합 : 용어의 지위

전문용어학은 우선적으로 용어에 대한 학문이자 이론이어야 한다. 전문용어의 속성, 사실과 현상에 대한 모델을 제공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회언어학적, 사회인지론적 관점은 전통적인 용어 이론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했음이 분명하다. 이에 학으로서의 전문요어 연구가 토대로 삼아야 할 전문용어의 어휘, 의미, 형태, 인지적 특성과 지식의 표상 및 소통의 매체로서의 속성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적 용어론에서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 용어는 어떤 지식 분야에서 정의된 개념을 표상하는 규약적 기호이다. (Fekber, 1987 :1)
- 용어 : 특정 전문분야에서 일반개념에 대한 언어적 지칭[7] (ISO 1087-1: 2000)

여기서 용어는 언어에 선행하는, 즉 명명하기 이전에 존재하는 개념을 표상하고 고정하는 '개념 고정자'(Conceição 2005 : 45)의 역할을 하며, 동식물의 학명이나 화학술어와 같이 표준적 지위를 갖는 노멘클라추어(nomenclature)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끊임없이 용어 이론은 확장에 확장을 거듭해 왔으며 현재는 이론 집적의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의 협력이 보다 적정한 이론 모델의 성립에 다각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전문용어의 몇몇 속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4.1 언어 단위로서의 용어

앞서 보았듯이, 전문용어가 언어의 하위부류로 일반 언어와 평행의 관계에 있고 서로 다른 언어 유형을 구성하는지 또는 의미와 화용의 차원에서만 다를 뿐 형태, 통사 그리고 조어의 동기에 있어 동일한 기반을 공유하는 단위인지는 전문용어학사에서 중요한 논의거리이다. 전통적 이론의 비판자들은 용어와 일반어휘 간의 구분이 더 이상 선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용어와 일반어휘가 공유하는 잠재의미가 특정한 활동 영역, 특정 지식 분야, 주제적 범주 분할(Cabré) 등을 통해 의미효과를 얻어가는 것이다. 용어와 어휘 간의 경계를 흐림으로써 전문용어학이 명칭론적, 규정적(prescriptive) 방법의 대상뿐 아니라 어의적이고 기술적인(descriptive) 가치를 얻게 될 수 있다. 피어슨(Pearson, 1998 :8)은 그의 저작 *Terms in Context*에서 용어의 사용 환경을 참조하지 않고는 단어와 용어 간의 차이를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문맥과 주변 요소에 의해 그 의미가 규정되는 언어단위로서의 용어의 지위를 단언한 것이라 사료된다.

7) 지칭이란 개념을 명명하는 기호에 의해 그 개념을 표상하는 것 (ISO 1087-1)

4.2 인지 및 의미 단위로서의 용어

용어가 언어 단위가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용어의 의미를 다루게 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용어의 의미와 용어가 표상하는 개념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용어의 개념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인가 혹은 별개의 것인가, 혹은 동일한 것인가, 용어의 개념과 지시체는 다른 것인가 등 매우 복잡한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본 발표에서 이 논의를 심도있게 끌고 나가기에는 시공간적 제약과 본인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개념과 의미의 문제를 오랫동안 탐구한 데페커(Depcker, 2003), 르라(Lerat, 1989) 등의 저작을 참고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다. 우선,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 개념 : 속성들의 고유한 결합으로 탄생한 지식의 단위 (ISO 1087-1: 2000)
- "대상(objects)은 개념의 형태로 범주화된다. 개념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사고의 구조화된 단위이다. 개념은 사고의 기초 단위인 속성들로 이루어져 있다." (Depecker, 2003 : 111)
- "용어는 언어기호이다. [...] 즉, 기표와 기의를 가지는 언어 단위인 셈이다. 다만, 기표를 '명칭(denomination)', 기의를 '개념'이라고 부르도록 한다."(Rondeau, 1984: 19)

데페커는 전문용어학 내에서 개념과 기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학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소쉬르가 개념을 말하기 위해 기의를 사용하고 뷔스터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 개념을 사용했기에 혼란이 야기되었지만, 전문용어학에서 개념은 기의로 환원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동일한 개념에 대해 다른 언어의 용어를 비교해 보거나 개념 체계 내에서 상위어, 하위어의 분류방식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패턴의 언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사분야에서 '경계'라는 개념과 가 관련 개념을 지칭하는 영어 용어와 불어 용어를 비교해보면, 의미의 확장 방식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 개념 <경계> : 용어 watch(en), veille(fr)
- 개념 <경계시간단위> : 용어 watch(en), quart(fr)
- 개념 <경계병> : 용어 warch(en), bordée(fr)

즉, 영어는 환유를 통해 의미의 확장, 다의어화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불어는 형태적으로 모두 다른 어휘를 선택해 개념을 대응시키고 있다. 부아송, 투아롱 등도 방대한 어휘 자료를 대상으로 동일 개념에 대한 다국어 용어를 비교분석하는데, 이를 통해 개념과 의미생성, 용어 조어의 동기화가 전혀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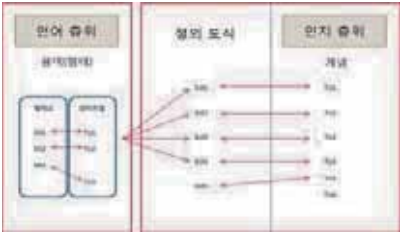
전문용어가 개념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기표와 기의를 가진 언어기호라는 사실은 용어가

8) Boisson & Thoiron은 예를 들어 각 언어의 '소방관'을 비교하면서 '소방관' 개념을 지칭하기 위한 언어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분석한다. 거의 모든 언어가 '불', '사람'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 '대항하는' '끄다' 등의 의미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불'의 의미가 없는 극히 드문 예에 우리말의 '소방관'이 포함된다.

언어내적 의미와 동시에 언어외적 지식을 표상하는, 언어면과 개념면으로 이루어진 단위임을 나타낸다. 앞서 테머만은 개념을 '개념화'로 치환하면서 철학적인 개념의 문제를 언어적인 인지의 문제로 가져왔다. 즉, 언어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언어로 인해 개념이 인지되고 그 인지(개념화)의 절차가 언어에 표현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보았다. 디키키디리(Diki-Kidiri, 1999: 579)는 유럽의 선진 용어가 아프리카에 유입되면서 재용어화되는 과정을 분석하면서, 개념은 범주화의 인지구조이고 기의는 문화적 지각의 장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렇듯 사고의 단위로서의 개념이란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떠오르는 특수한 생각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 타당성을 검정받고 확인된 요소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념의 보편성, 집단적 성격은 그것을 유효하다고 인정한 집단 내에서의 가치이며, 개념화하고 이해하는 절차는 문화마다, 집단마다 모두 다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콘세이소(Conceição, 2005 : 59)는 개념화에서 용어화로 이르는 개념의 표상 도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M=형태소, Ts=의미자질, Ed=정의요소, Tc=개념자질)



<그림 4> 용어단위 표상 도식

이외에도 전문용어가 개념-지시체를 고정한다는 측면에서 지시의 단위로 보는 관점, 명칭론적 방법론을 계승하여 명명의 단위로 보는 관점, 또 지식의 단위로 보거나 전문적 의사소통의 단위로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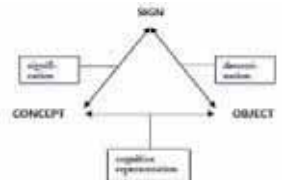
5. 뷔스터 다시 읽기

험블리(Humbley, 2004: 49)는 이론적 배경을 차지하더라도 뷔스터 이후의 학자들이 뷔스터에게 보이는 폭력적 언사에 놀랐다는 표현을 쓴다. 뷔스터를 일각에서는 "수없이 환기되지만 전혀 인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는 뷔스터의 용어 이론이라는 거대한 공리는 있되 그의 논문을 직접 읽고 이해한 이는 드물다는 표현일 것이다. 물론 뷔스터의 논문들이 여전히 Infoterm의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고 번역된 것이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껏 위에서 살펴본 전문용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모두 뷔스

터의 개념-의미의 혼동 또는 의미의 배격에 따른 반동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이킹이 '급진적 추종파'라고 부르는 대상들과는 달리 뷔스터의 원 저작을 읽고 그의 참 주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새로운 학자들이 있다. 험블리(Humbley, J.), 캉델(Candel, D.), 사게르(Sager, J.), 르라(Lerat, P.) 등이 그들이다. 아래 도식은 르라(Lerat, 1989: 59~60)에 의해 인용된 뷔스터의 용어 도식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언어체계(Sprachsystem)과 말, 파롤(Sprechen)의 차원이 구분되고 또한 개념(Begriffe)과 언어기호(Zeichen), 의미(Bedeutung)의 구분이 확실히 이루어져 있다. 개념과 의미는 실제세계와 구분되어 언어체계의 세계에 속해있다. 이 도식과 참고문헌, 인용문 등을 바탕으로 르라는 뷔스터가 소쉬르나 언어심리학, 기호학 등에 깊은 이해가 있음을 단언한다.

<그림 5> 뷔스터의 기호, 의미, 개념, 개체 도식

뷔스터가 제안한 모든 용어의 구성요소 중 비엔나 학파는 기호, 개념 그리고 대상을 선택하고 의미 부분을 용어학에서 제외시킨다. 아래 용어삼각형 도식은 기호삼각형을 본 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펠베르에 따르면 이 삼각형은 다음과 같이 읽힌다. 개념은 기호에 의해 표현되고 기호는 개념의 의미한다. 개념은 대상에 대한 지식이며 대상은 개념으로 개념화된다. 기호는 대상을 명명하고 대상은 그 이름으로 기호를 가진다.



<그림 6> 용어 삼각형

뷔스터가 전문용어학을 언어학, 철학, 논리학의 교차점에 놓고 고민한 흔적은 계속 발견된다. 펠베르를 비롯한 이후 비엔나 학파의 수장들이 받아들인 용어학의 방향과 그 이후 폭발적으로 발전한 전문용어의 다양한 이론의 방향이 점점 수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격렬한 비판자였던 사회용어학자들의 입장을 비엔나 ISO에서 받아들여 사회용어학의 제목이 붙은 규범집이 2007년 발간된 것이다.(ISO/TR 22134: 2007) 개념에 대한 사회학적, 의미론적 재이해를 통해 바이스거버(Weisgerber, 1958 : 431/Humbley, 2004: 33~34에서 재인용)가 일찍이 뷔스터의 논문에 대해 내린 평가, 즉 세계 표상이라는 언어의 기본 기능을 전문용어학이 언어학에 선물했다는 가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Béjoint, H. & Thoiron, P. (2000) *Le sens en terminologie*, Presses universitaires de Lyon.

Cabré, M.-T. (1998) *La terminologie. Théorie, méthode et applications*, Armand Colin, Presses de l'Université Ottawa.

Cabré, M.-T. (2003) 'Thories of terminology, their description, prescription and explanation', *Terminology* 9(2), p.163~199.

Depecker, L. (2003) *Entre signe et concept. Éléments de terminologie générale*, Pressses Sorbonne Nouvelle, Paris.

Diki-Kidiri, M. (1999) "Le signifié et le concept dans la dénomination" *Meta* 44(4).

Felber, H. (1987) *Manuel de la terminologie*, Inforterm, Paris.

Gaudin, F. (2003) *Socioterminologie. Une approche sociolinguistique de la terminologie*, De Boeck. Duculot, Bruxelles.

Gaudin, F. (2005) "La socioterminologie", *Langages* n.157, p.80~92.

Humbley, J. (2004) "La réception de l'oeuvre d'Eugen Wüster dans les pays de langue française" *Les Cahiers du CIEL 2004*, Univ. Paris 7, EILA, p.33~51.

Lerat, P. (1989) "Les fondements théoriques de la terminologie" *La banque des mots*, n. spécial.

Myking, J. (2001) "Against Presriptivism? The 'Sociocritical' Challenge to Terminology", *IITF Journal* 12(1/2), pp.49~64.

Pearson, J. (1998) *Terms in context*,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Philadelphia.

Rey, A. (1979) *La terminologie : noms et notions*, PUF, Paris.

Rondeau, G. (1984) *Introduction à la terminologie*, 2e edition, Gaëtan Morin Editeur, Quebec.

Sager, J.

Temmerman, R. (2000) *Towards new Ways of Terminology Description. The sciocognitive Approach,*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Amsterdam / Philadelphia,

Wüster, E. (1981) "L'étude scientifique générale de la terminologie, zone frontalière entre la linguistique, la logique, l'ontologique, l'informatique et les sciences des choses" *in Textes choisis de terminologie. I. Fondements théoriques de la terminologie*, I. Siforov, G. Rondeau & H. Felber, Gisterm Univ. Laval, Québec.

□ 토론 □

“전문용어학의 이론적 토대를 위한 개념 연구”에 대한 토론문

허재영(단국대)

이 논문은 전문용어학의 개념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용어 일반 이론인 ‘전통적 용어론’, 뷔스터의 저작 『기계학 사전』에 대한 사회용어론과 사회인지용어론의 비판, 뷔스터 다시 읽기의 순으로 작성된 논문입니다. 이 분야에 오랜 기간 연구를 진행해 온 필자의 내공과 체계적인 해설 방법이 쉽게 와 닿는 논문이어서, 많은 독자들이 이 논문을 바탕으로 전문용어학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문용어학의 발전 과정에서 용어의 국제적 규범화를 목표로 하는 입장과 용어 사용의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는 사회용어론이나 사회인지용어론이 대립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서 ‘언어와 관련한 항목’(7개), ‘언어 진화와 관련된 가정’(3개), ‘작업 방법’ 등의 비판적 관점을 이해하기 쉽게 잘 제시하셔서 초보적인 독자라도 이 분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용어사전학과 일반사전학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나, 반-뷔스터 이론에 대한 정리에도 이어져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을 비판적 견지에서 토론하는 일은 그다지 가치 있는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논문에 등장하는 몇 가지 개념에 대해 보충 설명을 부탁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 전문용어학의 한 분야로서 ‘사회용어론’과 ‘사회인지용어론’은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 정책’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인데, 용어학의 관점에서 ‘사회’를 천명한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서술하셨는데(6쪽 중간), 그 이유가 있을지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전문용어학의 발전을 위해 ‘용어의 지위’를 검토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언어 단위로서의 용어’와 ‘인지 및 의미 단위로서의 용어’를 구분하고 ‘용어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사전학에서 사용하는 ‘단어’, ‘어휘’ 등의 언어적 단위와는 다른 관점에서 설정된 용어입니다. 사전학과 전문용어학이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전문용어를 기준으로 한 ‘용어화’의 개념을 설정해야 하는 이유를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독자와 청중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3쪽 하단으로부터 1행 ‘눈에 띈다 → 눈에 된다.’, 7쪽 하단으로

부터 4행 '요어 → 용어'의 오타가 있어서 논문을 투고하실 경우 참고로 교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어사전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김한샘(연세대)

<차례>

1. 머리말
2. 전문용어 일상어화의 원리
3. 국어사전에 기술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양상
■ 참고문헌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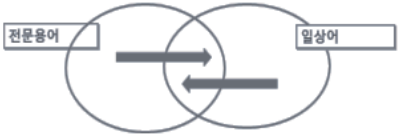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질문은 '전문용어란 무엇인가?'라는 전문용어학의 근본적인 개념 규정과 깊은 관련이 있다. 전문용어의 개념, 즉 전문용어가 일상어와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야 전문용어의 실체에 한걸음 다가서는 동시에 일상어와의 관계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전문용어, 전문어에 대한 정의를 시도한 연구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ㄱ. 유승국(1997): 전문용어는 특정사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말로, 특히 전문 직업을 갖이 하는 사람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
ㄴ. 강현화(2000): 전문용어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말. 학문의 분화 및 전문화로 비롯된 새로운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표현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거나 도입된 용어.
ㄷ. 방경원(2002): 전문어는 전문성을 띈 의사소통에 쓰이면서 전문적인 기능을 충족시키는 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의 총체.
ㄹ. 이현주(2013): 전문용어는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 또는 어휘의 집합을 가리키며 전문어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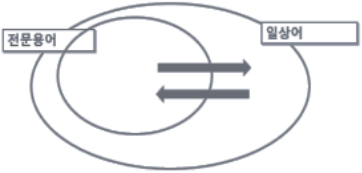
위의 (1ㄱ)은 전문용어 자체보다는 사용 영역, 사용자를 중심으로 접근하였고, (1ㄴ)은 전문용어의 내적 특성과 외적 사용 양상을 모두 고려하였다. (1ㄷ)은 전문용어의 기능에 초점이 있으며 (1ㄹ)은 언어 단위를 '어휘'로 한정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정의는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1ㄱ)은 '말'이 가리키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전문용어 자체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1ㄴ)은 개념 정의에 유개념으로 사용된 '용어'와 '전문용어'의 관계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1ㄷ)에서 전문어는 분명 언어 전반을 가리키는 것인데 방경원(2002)를 살펴보면 분명 나머지 논의의 '전문용어'에 해당하는 것을 '전문어어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고 전문어는 언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기술에서는 전문어와 전문용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반면 (1ㄹ)은 '전문어', '전문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나 '어휘' 자체에 집합적 의미의 다의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휘 또는 어휘의 집합'이라는 표현이 잉여적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문용어를 '특정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적 개념을 지칭하는 어휘'로 규정하고 논의를 진행한다.[1)]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관계를 설정할 때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일상어의 개념과 범위 설정이다. 일상 언어생활과 전문분야의 언어생활이 분리된 것으로 보면 일상어를 전문용어와 대등한 관계로 놓아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반면 일상어를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하는 어휘로 보면 전문용어가 이에 속하는 관계이므로 그림 2와 같다.



<그림 1.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관계 1>



<그림 2.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관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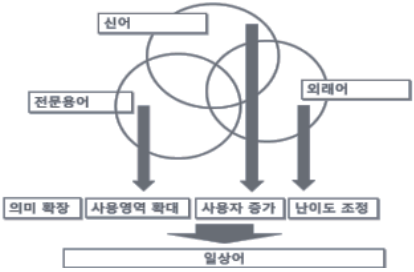
일상어의 범위를 넓게 보든 좁게 보든 화살표로 표시한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넘나듦은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다.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넘나듦을 의미론적으로 접근하면 일의성을 충족하는 단의어가 다의어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김현권(2001)에서 대부분의 전문용어 연구에서는 공시적인 관점만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이 과정은 반드시 시간의 흐름을 동반한다. 따라서 결과에 초점을 맞춘 공시적 연구와 함께 일정 시간 경과 후의 변화를 살펴보는 통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공시적 관점에서 그림 1의 교집합은 이운영(2002)와 같이 '통용'이라 볼 수 있고, 통시적 관점에서는 의미 확장으로 인한 전문용어

1) 전문용어를 위와 같이 정의할 때 일상어는 당연히 전문용어와 대를 맞추어 '어휘'에 국한된 개념이다. 일상어와 관련해 생활어, 상용어, 일반어, 일반용어 등의 유의어들이 있으나 전문용어학 논의에서 빈도가 높게 쓰이는 '일상어'를 택하였다.

혹은 일상어의 사용 범위 확대이다. 이러한 사용 범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방경원(2002)에서는 처음에 전문어는 일상어를 사용하고 여러 의미 중 정의를 통해 특정 의미로 사용하도록 제한할 뿐이며 나중에 일상어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고 하였고, 홍희정(2007)에서는 '바닥'이 경제 용어가 되는 것보다 '대타', '기하급수' 등이 일상어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빈번하다고 하여 상충되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가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어떻게 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홍희정(2007)에 무게가 실린다. 일반인이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이며 "생경한" 전문용어를 접하면서 전문분야의 벽에 부딪치게 된다. 이 논의에서는 위의 두 가지 그림 중 일상어와는 사용 영역, 사용자의 측면에서 변별되는 전문용어가 존재한다는 그림 1을 기반으로 새로운 개념이나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전문용어가 어떻게 우리 일상 언어생활에서 쓰이게 되었는지를 국어사전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전문용어 일상어화의 원리

전문용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언어 내적으로는 단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의어이고, 언어 외적으로는 특정한 분야에서만 쓰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제한적이며, 일반인들에게는 난이도가 높은 어휘이다. 전문용어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휘의 생명 주기로 보았을 때 갓 생겨난 신어일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지식과 개념을 어휘와 함께 국외에서 들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래어의 비율이 높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문용어가 일상어가 된다는 것은 전문적인 개념 외에 일상 언어생활에서 필요한 대상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로 의미가 확장되고, 이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며, 빈번한 노출로 인해 난이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그림 3. 전문용어 일상어화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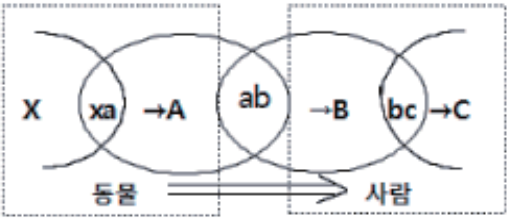
3. 국어사전에 기술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양상

3.1. 『표준국어대사전』의 다의어 전문용어

『표준국어대사전』[2] 의 전문용어 표제어 중 약 5%에 해당하는 9893항목의 어휘가 하나 이상의 일상어 다의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표 1은 일상어 다의어를 동반하는 전문용어의 분포를 나타낸 표이다. 전문용어 다의어가 두 항목 이상인 경우를 모두 분리하여 분석하였더니 총 11101항목의 전문용어가 일상어 다의어에 대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지가 붙지 않은 다의어 수가 많을수록 일상어화가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에서 보인 일상어화의 원리가 작용한 결과가 일상어 다의어로 구체화되는 것인데 전문용어로서의 의미가 일상어로서의 의미로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은 그림 4와 같은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nemeyer(1991)의 환유-은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문맥에 의해 유도된 재해석인 환유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연쇄적으로 의미 중복을 발생시킨다. 이는 결국 관련이 있지만 독립된 두 인지적 영역 간의 전이라는 은유의 과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문영역이 '동물'과 관련된 것이다. 사람이 인지하게 된 동물의 특성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다음 (2)는 '개', (3)은 '돼지'의 일상어화를 볼 수 있는 『표준』의 뜻풀이이다.

(2) ㄱ. 『동물』 갯과의 포유류.
ㄴ.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을 비속하게 이르는 말.
ㄷ. 다른 사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3) ㄱ. 『동물』 멧돼짓과의 포유류
ㄴ. 몹시 미련하거나 탐욕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ㄷ. 몹시 뚱뚱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그림 4. 전문용어 일상어화의 환유-은유 모형>

2) 이하 『표준』으로 표기.

<표 1.「표준국어대사전」의 일상어 다의어 동반 전문용어 분포>

전문 영역	일상어 포함 표제항 수	전문 영역	일상어 포함 표제항 수	전문 영역	일상어 포함 표제항 수
역사	1348	심리	218	고적	76
불교	1148	언어	212	사회	72
법률	1022	한의학	210	출판	71
운동	445	동물	208	수공	66
물리	421	기독교	172	정치	64
수학	373	문학	155	예술	53
의학	354	미술	149	기계	51
군사	336	가톨릭	133	전기	48
민속	332	광업	124	통신	35
경제	326	컴퓨터	123	교통	32
식물	312	연영	118	책명	29
철학	287	논리	117	항공	27
음악	259	농업	112	약학	25
생물	246	종교	108	해양	24
화학	242	천문	106	언론	16
지리	233	교육	91	수산	15
건설	224	공업	78	총계	11101

3.2.『모던조선외래어사전』수록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이종극이 1937년에 발간한『모던조선외래어사전』[3]은 14000여 항목의 외래어를 등재한 조선 근대 언어 혁명의 기록이다. 외래어 신어를 전문영역까지 꼼꼼하게 기술하였다는 면에서 전문용어학에서도 의의가 있는 사전이다.『모던』은 당시의 신어사전과 달리 전문용어에 대한 정보를 미시 구조 항목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범례를 통해 전문용어를 나타내기 위한 약어와 기호를 보였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범례에서 28개의 전문 영역을 제시하였다.『모던』의 전문용어 기술 영역 체계가 전문 분야의 분류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체계의 완성도를 논할 수는 없지만 근대 사회의 모습을 엿보는 단초가 된다. 이렇게 상세하게 전문용어를 다룬 이유는 외래어의 정착에 대해 어떠한 외래전문용어라도 상식화할 수 있으며 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 자서의 '外來語의Koreanization(조선딸化)'에 반영되어 있다.

3) 이하『모던』으로 표기.

<표 2. 『모던조선의래어사전』의 전문용어 기술 영역>

표지	영역	표지	영역	표지	영역	표지	영역
((시))	시학	((법))	법률	((미))	미술	((어))	언어학
((영))	영화, 활동사진	((인))	인쇄	((동))	동물	((권))	권투
((화))	화학	((건))	건축	((병))	병학	((항))	항해
((약))	약물	((문))	문법	((기))	기계	((무전))	무선전신, 라디오
((음))	음악	((상))	상업	((광))	광물	((지))	지질
((식))	식물	((이))	이학(물리)	((의))	의학	((수))	수학
((전))	전기(학)	((천))	천문	((화))	회화	((극))	연극

『모던』에서 전문용어에 대한 표지는 겹괄호 (( )) 안에 전문 영역 명칭의 첫 글자를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무선전신, 라디오를 나타내는 '((무전))'과 언어학의 '((어))', 연극의 '((극))'인데 한 글자의 약어만으로 전문 영역을 전달하기 어렵거나 첫 글자보다 두 번째 글자가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우여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표 2] 전문용어 기술 영역을 현대 국어사전 중 가장 전문용어 정보를 상세하게 제시한 『표준』[4]의 초판 전문 영역 체계와 비교해 보면 (2)와 같다.

(4) ㄱ. 일치(명칭 동일): 법률, 미술, 동물, 화학, 물리(이학), 기계, 음악, 식물, 천문, 의학, 전기(학), 언어(학), 수학
ㄴ. 일치(명칭 상이): 약물/약학, 건축/건설, 인쇄/출판, 병학/군사, 지질/지리, 무전/통신, 광물/광업, 상업/경제,
ㄷ. 부분 일치: 연극/연영, 영화·활동사진/연영, 항해/교통, 권투/운동·오락, 시학/문학, 문법/언어, 회화/미술

『모던』에서 전문용어 기술의 기준으로 제시한 28개의 전문 영역을 『표준』 초판의 전문 영역 45개와 비교하니 (4)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모던』의 전문 영역은 『표준』의 전문 영역과 겹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ㄱ)은 명칭까지 겹치는 경우인데 물리, 전기, 언어 분

4) 『표준국어대사전』(1999)의 전문용어 기술 영역(고유 명사 제외)

표지	영역	표지	영역	표지	영역	표지	영역
[건]	건설	[법]	법률	[미]	미술	[출]	출판
[운]	운동/오락	[공]	공업	[동]	동물	[교]	교육
[화]	화학	[약]	약학	[물]	물리	[언]	언론
[연]	연영	[가]	가톨릭	[기1]	기계	[지2]	지명
[음]	음악	[생]	생물	[문]	문학	[항]	항공
[식]	식물	[지1]	지리	[사]	사회	[고1]	고적
[컴]	컴퓨터	[천]	천문	[경]	경제	[종]	종교
[교]	교통	[통]	통신	[광]	광업	[정]	정치
[의]	의학	[수1]	수학	[수2]	수산	[수3]	수공
[군]	군사	[예]	예술	[철]	철학	[불]	불교
[전]	전기	[역]	역사	[심]	심리	[언]	언어
[기2]	기독교						

야에서 『모던』이 이학, 전기학, 언어학 등으로 학문 분야의 명칭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관점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4ㄴ)을 통해 근대 사회와 현대 사회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다. 대규모 건설업이 활성화되기 전이므로 '건축'이 중심이었고, 현재와 같이 통신 분야가 다양화되지 않았으므로 '무선 전신'이 통신의 대표적 방식이자 영역이었다.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경제'보다는 개인의 행위에 초점이 있는 '상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출판'과 관련된 일련의 체계가 정립되기 전이므로 핵심적인 과정인 '인쇄'가 곧 책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였다. 현대 사회의 전자 출판 형식은 『모던』에서 전문 영역으로 삼은 '인쇄'의 범위를 넘어선다. 전쟁이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시대이므로 병력의 운용에 초점을 둔 '병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 '병학'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4ㄷ)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 사회에서 대표적인 장거리 교통 수단은 배였기 때문에 '항해'가 전문 영역에 포함되었으나 현대 사회로 들어서서 대표적인 장거리 교통 수단이 비행기가 되자 '항공'이 중요한 전문 영역이 되었다. 문학 중에서는 '시'가, 미술 중에서는 '회화'가, 운동 종목 중에서는 '권투'가 중심적인 분야였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기술되었으며, 당시에 '연극'과 '영화'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서는 표 2과 같이 대표적인 전문 영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논의를 위해 『모던』의 ㄱ항에서 ㄹ항까지의 표제어와 전문용어 표지를 입력하여 분석하였더니 총 88 종류의 전문용어 표지가 출현하였다. 범례에 운동 분야 중 권투만 실려 있었는데 실제로 사전의 전문용어 표지를 분석해 보니 야구, 정구, 축구, 하키 등의 구기 종목과 단정, 스키 등의 계절 종목까지 다양한 운동 종목 관련 용어를 전문용어로 기술하였다. 또한 '문학'이라는 전문영역을 범례에 소개해 놓았음에도 희랍신화(그리스신화), 라마신화(로마신화), 인도신화, 독일속전 등 지역별 문학을 따로 전문용어 표지로 삼았다. 『모던』에 실린 전문용어가 현대로 오면서 일상어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모던』의 전문용어 표제어를 『표준』과 비교해 보았다. 『모던』과 『표준』의 외래어 표기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원어 표기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어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따로 중복 여부를 검색하였다.

<표 3.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전문용어 분포(ㄱ~ㄹ)>

전문용어 표지	표제항 수	전문용어 표지	표제항 수	전문용어 표지	표제항 수
<화>	47	<스키>	4	<군>	1
<야구>	47	<신화>	4	<논리>	1
<식>	44	<항공>	4	<농구(農具)>	1
<동>	35	<병>	3	<농업>	1
<음>	34	<시>	3	<도보경주>	1
<축구>	34	<어>	3	<독일속전>	1
<정구>	24	<이>	3	<마술>	1
<영>	21	<천>	3	<배구>	1
<인>	21	<회구>	3	<보험>	1
<경기>	20	<희랍신화>	3	<빙활>	1
<의>	19	<경주>	2	<생물>	1
<항>	16	<단정>	2	<수사>	1
<권>	16	<등산>	2	<신학>	1
<요리>	14	<라마신화>	2	<야희>	1
<극>	12	<무도>	3	<언어교수>	1
<전>	12	<문>	2	<옥돌>	1
<기>	11	<미>	2	<외과의>	1
<농구(籠球)>	11	<미국>	2	<인도>	1

<건>	9	<법>	2	<인도신화>	1
<약>	10	<사진>	2	<제본>	1
<골프>	6	<상>	2	<조각>	1
<철도>	6	<성서>	2	<종교>	1
<철학>	6	<지리>	2	<종사>	1
<골패>	5	<화장>	2	<지질>	1
<광>	5	<경마>	1	<천문>	1
<구희>	4	<경제>	1	<취인>	1
<무전>	4	<광산>	1	<트럼프>	1
<문예>	4	<광학>	1	<호케>	1
<수>	4	<교육>	2		
<수영>	4	<구두법>	1	총계	603

위 표 3의 전문용어 중 『표준』에서 검색하였을 때 전문용어 표지 없이 일상어로 기술된 어휘는 표4의 9항목이었다. 고로케, 로(-)쓰(트), 로스트·비-푸, 가쓰레쓰 등의 어휘는 1930년대에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구식 음식이 초반에 전문용어로 쓰이다가 음식이 대중화되자 '요리'라는 영역 자체가 전문영역으로서의 효력을 읽고 일상어화된 경우이다. 지금은 누구나 흔히 얼굴이나 몸에 바르는 '로션'도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약품으로 인식되어 의학 분야의 전문용어로 인식되었다. 전문용어가 가리키는 개념이나 대상의 일상화가 전문용어의 일상화와 직결되는 예들이다.

<표 4.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수록 전문용어의 일상어화>

모던조선외래어사전 표기	표준국어대사전 표기	전문영역
고로게[croquette]	고로케	<요리>
넘불[nombre (佛, number)]	넘버	<인>
라임라잍[limelight]	라임라이트	<극>
로-숀[lotion]	로션	<의>
로(-)쓰(트)3[roast]	로스트	<요리>
로스트·비-푸[roast beef]	로스트비프	<요리>
롤·필림[roll-film]	롤필름	<영>
리알(아)리스트[realist]	리얼리스트	(1)<철학> (2)<문예>
가쓰레쓰[cutlet]	커틀릿	<요리>

■ 참고문헌

국립국어연구원(2002),「'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2007),「남북 교과서 학술 용어 비교 연구」.
국립국어원(2007),「외래 전문용어 번역 및 조어법 연구」.
국립국어원(2007),「전문용어 연구」, 태학사.
강현화(2000), "전문용어의 표준화를 위한 유형 분석",「전문용어연구」2,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1-23.
국립국어원(2007),「전문용어 통합 관리 및 심의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최종 보고서」.
권성아(2007), "남북 교과서를 통해 본 전문용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새국어생활」17(1), 국립국어원.
김수업(2007), "전문용어의 순화 방안",「새국어생활」17(1), 국립국어원.
김한샘(2008), "전문용어 정비의 현황과 과제",「한말연구」23, 한말연구학회, 93-120.
김한샘(2014), "「모던조선외래어사전」의 인문언어학적 연구", 배달말 55, 배달말학회, 25-54.
김현권(2001), "전문용어의 언어학적 특성과 사전적 기술의 문제",「전문용어연구」3,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51-88.
방경원(2002), 전문어연구 - 개념설명, 연구방법 및 연구현황 소개 -,「독일언어문학」18, 독일언어문학연구회, 95-108
송영빈(2000), "전문용어학의 제문제",「전문용어연구」1,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13-36.
유승국(1997), "국어사전의 전문용어 표제어 처리에 관한 고찰",「어문논집」25, 중앙어문학회, 45-59.
이운영(2002),「'표준국어대사전' 연구 분석」, 국립국어원.
이현주(2010), "전문어 학습사전의 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불어불문학연구」84, 한국불어불문학회, 789-826.
이현주(2013), "전문용어 조어 및 번역 방법론에 대한 시론",「비교문화연구」31,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31-370.
최기선(2007),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립국어원,「새국어생활」17(1), 국립국어원.
허재영(2013), "전문 용어 사전의 역사성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발전 방향", 한말연구 33, 한말연구학회, 353-379.
홍희정(2007), "국어사전에서의 전문용어 기술에 관한 연구", 언어정보와사전편찬 17~21, 언어정보연구원, 5-28.
학술단체총연합회(2006),「학술 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연차 보고서」, 학술진흥재단.
Heine, Bernd, Ulrike Claudi, & Friederike Hünnemeyer(1991) *Grammaticalization: A Conceptual Framework*,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토론 □

“국어사전에 나타난 전문용어의 일상어화”에 대한 토론문

최정도(국립국어원)

질의로써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다소 질문이 일반적인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1. 이전 연구에서도 전문용어와 일상어(일반어)가 서로 넘나드는 현상이 있고, 그러한 것이 포착되어 일반사전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금까지 아쉬웠던 점은 그러한 현상의 단편적인 모습이 학술 발표나 논문에서 확인되었을 뿐이지, 한국어를 전체 대상으로(혹은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같은 대사전에 수록된 전문용어를 대상으로) 하여 제 현상이 조감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되나, 그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었다. 이에 발표자의 연구에서는 전문용어가 일상어화되어 가는(혹은 그렇게 된) 현상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시도로 생각된다. <표1>과 같은 분석이 그러한 연구의 시발점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하나의 대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전문용어 → 일상어’, ‘일상어 → 전문용어’로 사용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을 밝혀 제시해 주실 의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함께 몇몇 사례만 제시하는 것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2. 아울러 연구의 시작은 ‘대사전’의 전문용어를 분석하는 것이 되겠지만, 전문용어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생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근대 시기 이후의 것을 시초로 삼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에서 제시한 연구는 하나의 사전 분석이 공시적 분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의 대사전은 대략 1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전문용어 또한 100년의 역사를 지닌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1에서의 연구 방법은 가로 분석뿐만 아니라 시기를 고려한 세로 분석이 뒤따를 필요가 있다. 발표자의 『모던조선의레어사전』의 분석이 그러한 연구의 시발점이 될 것인데,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넘나듦 현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기 바란다.

3. 간혹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전문용어가 있다. 검토가 덜 된 것인지, 해당 사전의 특성상의 문제인지 확실치 않으나, 한번 그렇게 정해진 전문용어는 일종의 관습 등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그대로 이어나갈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이03(이빨)’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이 가장 비판 받는 사항 중 하나인데, 일상어로서의 ‘이’가 먼저 존재하고 난 다음 ‘의학’ 등에

서 전문용어로서의 쓰임이 나타나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문용어(중심뜻)로 살아 숨 쉬고 있다. 즉 '전문용어 → 일상어' 사례에 해당하게 된다.

이것은 전문용어와 일상어의 구분이 어렵다는 측면과도 맥이 닿는데, 1이나 2와 같은 전문용어 연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표준'의 표제어 '이03'을 참고하면 전문용어의 「1」에서 「2」와 「3」으로 영역이 확장된 것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분석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현실적인 문제점은 이와 유사한 사례의 규모(항목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발표자의 묘안을 소개해 주었으면 한다.

【 제 4 분 과 】

The modality of non-epistemic possibility in Korean : (u)l swu iss

Michael Namkil Kim(USC)

<차례>

0. Introduction
1. Non-epistemic possibility
2. Som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3. Conclusion
■ REFERENCES

0. Introduction.

In the study of modality the notion 'possibility' is one of the two most important notions, the other being 'necessity'. In the linguistic study of modality, possibility has been customarily classified into epistemic and non-epistemic (or root) possibility. For instance, in the following English examples:

(1) a. John may swim.
b. John can swim.

The modal may in (la) indicates epistemic modality because it expresses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what he says; i.e. the speaker's judgment that the proposition is uncertain or possible relative to factuality. In contrast to this, can in (1b) does not express the speaker's judgment toward the proposition, but rather indicates the subject's ability or the possibility of John's swimming which is allowed by the circumstance.

In Korean there are two constructions, (u)l ci molu and (u)l swu iss, which encode possibility, as shown in the following:

(2) a. John i swuyengha**-l ci molu-n-** ta.
NOM swim MAY PRES D
'John may swim.'
b. John i swuyengha**-l swu iss-**ta.
NOM swim CAN D
i. 'John can swim' (or 'it is possible for John to swim.')
ii. 'It is possible that John swims'.

(2a) indicates epistemic possibility and (2b) non-epistemic (or root) possibility as in English (1). However, the modal construction (u)l swu iss is also used to express epistemic possibility unlike the English, particularly British English, can. Thus, (2b) can be translated as in (2b i) or (2b ii). Throughout this paper the root meaning is glossed as 'it is possible for---' and the epistemic meaning as 'it is possible that---' for the modal construction (u)l swu is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non-epistemic use of (u)l swu iss in Korean. The construction (u)l swu iss consists of three elements: the irrealis form (u)l, the dependent noun swu and the existential verb iss. Often, the nominative marker ka can be optionally added after the dependent noun swu, forming (u)l swu ka iss. The negative form of (u)l swu iss is (u)l swu eps, where eps is the negative form of the existential iss.

In the three early pioneering Korean textbooks, Martin and Lee (1969), Vandesande (1968), and Lukoff (1982), the meaning of the modal construction (u)l swu iss is briefly presented for pedagogical purposes. According to Martin and Lee (1969: 246), the dependent noun swu expresses meaning 'case, circumstance', and the whole modal construction indicates the meaning of 'possibility, ability'. Vandesande (1968: 251) states that "the potential (u)l swu (ka) iss is used with action verbs as well as with the verb iss and indicates possibility of an action or state." Lukoff(1982: 277), meanwhile, states that the dependent noun swu means 'possibility', 'means (of doing something)' or 'chance of (doing something)', and the whole modal construction expresses the meaning 'there is the possibility, the means, or the chance of -ing' or 'one can---' or 'be able to'.

Below we will start to investigate the non-epistemic possibility of (u)l swu iss since this meaning is more basic and more widely used than the meaning of epistemic possibility.

1. Non-epistemic possibility

Like many other languages such as English can (Palmer 1979 and Coates 1983) and Spanish poder (Silva-Corvalan 1994), and Chinese neng (Guo 1994), Korean (u)l swu iss is used to express the three core modal meanings of circumstantial (or neutral) possibility, ability and permission for non-epistemic possibility.

1.1. Permission

Among three meanings of circumstantial possibility, ability and permission, the third meaning, permission, is least frequently used. Although the use of permission for (u)l swu iss is generally rare in everyday speech, its use is

sometimes found in interrogation and negation, but hardly in affirmation. Observe the following:

(3) a. Yeki anc-ul swu iss-upni-kka?
'Can I sit here?'
b. #Yeki anc-ul swu iss-upni-ta.
'You can sit here.'
c. Yekise tampay lul phiwu-l swu eps-upni-ta
here cigarette **ACC** smoke cannot **POL D**
'You cannot smoke here.'

(3b) is odd for the intended interpretation of permission. In contrast to this, (3a) and (3c) are acceptable for the permission interpretation. In (3) there is no subject present, but it is interpreted that the subject is the second person as indicated by the English glosses.

In English, can is customarily used to grant permission as in the following affirmative sentences:

(4) a. You can go now.
b. Mary can drive, because she is over 19.
c. You can smoke here.

In the above, it is said that (u)l swu iss is rarely used in affirmative sentences to grant permission. However, in a strict sense this is not true, since we can have the following kinds of corresponding sentences to (4b) and (4c):

(5) a. #Cikum ka-l swu iss-upni-ta.
'You can go now.'
b. Mary nun 19 sali i nem-ess unikka wuncenha-l swu iss-ta.
'Mary can drive, because she is over 19.'
c. Yekise nun tampay lul phiwu-l swu iss-upni-ta.
'You can smoke here.'

In English, sentences involving permission -CAN can be paraphrased with the words 'permitted' or 'allowed' (Coates 1983: 87). Thus, examples in (4) can be paraphrased as in the following:

(6) a. You are permitted to go now.
b. Mary is allowed to drive because she is over 19.
c. You are allowed to smoke here.

In Korean, (u)l swu iss can be substituted by the grant -permitting modal construction (e)to toy, when the former is used to grant permission. Thus, (5) can be paraphrased as in (7):

(7) a. Cikum ka-to toy-pni-ta.
b. Mary nun 19 sal i nem-ess unikka wuncenhay-to toy-n-ta.
c. Yekise nun tampay lul phiw-eto toy-pni-ta.

(7a) is not the paraphrase of (5a) because the latter cannot be used to grant permission. Since sentences like (7) are more commonly used to grant permission in actual speech act, the use of (u)l swu iss is rare in the same situation, as I mentioned above.

In (5a) and (5b) there are sources of authority, which grant permission even though they are not overtly specified. In the case of (5a) the source of authority may be society which imposes certain laws on people with the restriction of age over driving a car, while in the case of (5b) the source of authority can be the speaker or local regulations. Thus, in (5a) society allows Mary to drive the car in terms of law, and in (5c) the speaker or society (in terms of regulation or rule) allow the addressee to smoke.

Now to come to interrogative and negative sentences involving (u)l swu iss with respect to permission, observe the following sentences:

(8) a. Yeki anc-ul swu iss-upni-kka?
'Can I sit here?'
b. Yekise tampay lul phiwu-l swu iss-pni-kka?
'Can I smoke here?'
c. Onul cenyek phathi ey John to o-l swu iss-upni-kka?
'Can John come to the party this evening too?'

(9) a. Yeki ancu-l swu eps-upni-ta.
'You cannot sit here.'
b. Yekise tampay lul phiw-ul swu eps-upni-ta.
'You cannot smoke here.'
c. Onul cenyek phathi ey John un o-l swu eps-upni-ta.
'John cannot come to the party this evening.'

Examples in (8) and (9) differ from examples in (5b) and (5c) with respect to characteristics of permission. In (5b) and (5c), (u)l swu iss is used to grant permission, but in (8) it is used to request permission and in (9) to refuse permission. Examples in (8) are used to question the authority of the addressee or the local regula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i.e. sitting, smoking or coming to the party. In (9), the speaker declares a refusal of permission to the addressee. As in the case of affirmative sentences in (5), sources of authority to refuse permission can be traced in (9); the source of the authority can be the speaker or the regulation. Thus, sentences containing PERMISSION-(u)l-swu iss indicate the meaning that human authority and regulations (or rules) allow the subject to do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As pointed out by Coates (1983: 87) for English permission-CAN, Korean examples involving permission- (u)l swu iss/eps share two common distinguishing features: first, the subject is animate; second, the verb is an agent. Although (u)l swu iss can be glossed by 'permitted' or 'allowed' in English, it is roughly paraphrased by the permission-granting modal construction (e)to toy in both affirm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however, in negative sentences, (u)l swu iss is paraphrased by the permission-refusing modal construction (u)myen an toy. Thus, interrogative sentences in (8) and negative sentences in (9) can be roughly paraphrased as in (10) and (11) respectively:

(10) a. Yeki anc-ato toy-pni-kka?
'Can I sit here?'
b. Yekise tampay lul phiw-eto toy-pni-kka?
'Can I smoke here?'
c. Onul cenyek phathi ey John to w-ato toy-pni-kka?
'Can John come to the party this evening too?'

(11) a. Yeki anc-umyen an toy-pni-ta.
'You cannot sit here.'
b. Yekise tampay lul phiw-umyen an toy-pni-ta.
'You cannot smoke here.'
c. Onul cenyek phathi ey John un o-myen an toy-pni-ta.
'John cannot come to the party this evening.'

1.2. Ability

Typical examples with the meaning of ability are the following:

(12) a. Na nun il khilo lul sippwun an ey talli-l swu iss-ta.
'I can run one kilometer in ten minutes.'
b. Ne i hanca ilk-ul swu iss-ni?
'Can you read this Chinese character?'
c. John uy apeci nun pwuca y-ese ku manhan ton un nayl-swu iss-ta.
'John's father can donate that much money because he is rich.'

The modal construction (u)l swu iss is used to denote the subject's inherent properties including learned and attained qualities: in (12a) being able to run is the quality inherited from the birth, and in (12b) being able to read is the learned quality while in (12c) being able to donate money is the quality of wealth attained through life. Thus, inherent properties allow the subjects to do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Examples with ABILITY -(u)l swu iss in (12) share two common characteristics with examples of PERMISSION-(u)l swu iss in (8) and (9): animate subjects and action verbs. However, the first characteristic is not absolute; i.e. there are examples where inanimate subjects are possible with ABILITY -(u)1 swu iss as in the following:

(13) a. I cha nun phalkithong i-ese paykosip mail isang talli-1 swu iss-ta.
'This car can run more than 150 miles an hour because it has an eight cylinder engine.'
b. I yak un manh-un salam ul chilyoha-1 swu iss-ta.
'This medicine can cure many people.'
c. Boeing 747 un sungkayk sampay-myeng isang ul thaywu-1 swu iss-ta.
'A Boeing 747 can carry more than 300 passengers.'

In (13) the subjects clearly refer to their inherent properties even though they are inanimate. There are sub-classes of verbs which appear inherently related to the concept of ability; they are verbs of 'endurance' such as chamta 'endure', kyentita 'stand', ikyenayta 'overcome', and citaynghata 'sustain', and verbs of "cognition' such as kiekhata 'remember', ihayhata 'understand' and alatutta 'understand'. Typical examples with this class of verbs are the following:

(14) a. Ilen chwuwi nun elmatenci cham-ul swu iss-ta.
'I can stand this kind of cold.'
b. I mwuncey ihayha-1 swu iss-e?
'Can you understand this question?'

We saw that in the use of PERMISSION- (u)1 swu iss the addressee's authority and the regulations (or rules) were questioned as to the permissibility of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In the case of the ABILITY use, (u)1 swu iss questions the addressee's or the referred object's innate capabilities as in the following:

(15) a. Ne nun il khilo lul sippwun an ey talil-1 swu iss-ni?.

'Can you run one kilometer in ten minutes?'

b. I cha paykosip mail isang talli-1 swu iss-ni?

'Can this car run more than 150 miles an hour?'

1.3. Circumstantial possibility

The circumstantial possibility is most widely used among three modalities of non-epistemic possibility.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s:

(16) a.

A: Ne hakkyo eyse o- taka tosekwan ey tulli- **l swu iss**-ni?
you school from come while library to stop by CAN INT
'On the way back from school can you stop by the library?'

B: Ani-yo, chinkwu lul mana-ya hay-yo.
'No, I have to meet my friend.'

b. Onul sikan i manh-ase yengwha pole ka**-l swu iss-**ta.
'Because I am free today, I can go to see a movie.

c. Changmwun ul yel myen pang onto ka naylyeka**-l swu** issta.
'If you open the window, the room temperature can go down.'

d. Cengpwu uy cengchayk ey ttala kyengcey ka pyenha**-l swu iss**-ta.
'Depending on the government policy, the economic situation can be changed.'

In (16) (u)1 swu iss does not express the meaning of PERMISSION or ABILITY, but just the meaning of POSSIBILITY. There is no human authority or regulation, or inherent property, which makes it possible for the subject to do the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In (16) (u)1 swu iss indicates the meaning that external circumstances make it possible for the subject to do the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For instance, in (16b) being free makes it possible for the subject (the 1st-person 'I') to see the movie, and in (16d) the government's policy makes it possible for the subject (the economic situation) to be changed. Thus, this kind of possibility for (u)1 swu iss will be called (CIRCUMSTANTIAL) POSSIBILITY, adopted from Palmer (1979: 71).

In the use of PERMISSION and ABILITY, the subject of the sentences containing (u)1 swu iss is associated with agentivity. However, in (16) agentivity is not necessarily associated with subjects; (16c) and (16d) indicate that the subjects are not agents. The POSSIBILITY -(u)1 swu iss differs from the PERMISSION- and ABILITY -(u)l swu iss as to their occurrence with main verbs. In the latter, main verbs are agentive or action verbs; i.e. stative verbs do not occur with PERMISSION-(u)1 swu iss or ABILITY -(u)1 swu iss. However, stative verbs occur with POSSIBILITY -(u)1 swu iss as in the following:

(17) a. Mary to hwacang ul ha myen yeyppu-l swu iss-ta.
'Mary can also be pretty , if she puts on makeup.'
b. Il ul manhi ha myen phikonha-swu iss-ta.
'If you work too hard, you can be tired.'

In (17) the external circumstances are such actions as putting on makeup and working hard; thus, in (17a) Mary's makeup makes it possible for her to be pretty and in (17b) working too hard makes it possible for a person to be tired.

In (16) and (17) it is rather easy to interpret (u)l swu iss as denoting CIRCUMSTANTIAL POSSIBILITY because there is no meaning of the subject's inherent qualities or the subject's authority involved, and instead enabling circumstances are specified there. Moreover, since in the case of (17) the main verbs are stative, the interpretation of PERMISSION or ABILITY is ruled out.

In sentences containing CIRCUMSTANTIAL POSSIBILITY, we often find that the subject's intention is involved, when the subject is the first person. Typical examples are:

(18) a. Ney ka wenha-n-ta myen na-n enceytenci ka-l swu iss-e.
'If you want to, I can go anytime.'
b. Nay ka sikan man iss umyen enceyko kochi-l swu isse.
'I can fix it anytime if I have time.'
c. Wenha-si myen cey ka alapo-l swu iss-upni-ta.
'If you want, I can find out.'

In (18) conditional clauses indicate external circumstances which enable the speaker to do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However, (u)l swu iss does not merely express possibility but also implies the meaning that the speaker is willing to do the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Thus far we have dealt with examples containing external circumstances.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external circumstances are absent:

(19) a. Kwail ul ssakey sa-l swu iss-nun kos ul al-ko iss-e.
'I know the place where you can buy cheap fruit.'
b. Ilen khephi nun cip eyse to mantu-l swu iss-ta.
'We can make this kind of coffee at home.'
c. Mwues ul ha-l swu iss-nun ci alapo-ca.
'Let's find out what we can do.'

In (19) enabling circumstances are not given, yet (u)l swu iss is interpreted to express POSSIBILITY since it is not interpreted to mean that some authority or

regulations, or some inherent qualities such as innate ability and learned capability make it possible for the subject to do the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This kind of possibility can be called 'neutral possibility', adopted from Palmer (1979: 71), because (u)l swu iss is used simply to indicate that an event is possible without the specification of external circumstances plus with the lack of meanings of PERMISSION and ABILITY. In examples like (19), which indicate NEUTRAL POSSIBILITY, the subject is usually omitted, rendering the interpretation that the subject is the unspecified person which can be glossed by you or we in English.

In the above we already saw that in the sentences with the meaning of PERMISSION and ABILITY, (u)l swu are used to question the authority of the addressee or regulations as to the permissibility of action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for the former and to question the addressee's inherent qualities for the latter. In parallel with this, in the following interrogative sentences involving CIRCUMSTANTIAL POSSIBLITY, (u)l swu iss is used to question the existence of enabling circumstances:

(20) a.
A: Ne hakkyo eyes o- taka tosekwan ey tulli- 1 swu iss-ni?
'On the way back from school can you stop by the library?'
B: An/-yo, chinkwu lul mana-ya hay-yo.
'No, I have to meet my friend.'
b.
A: Ne onul yenghwa po-le ka-1 swu iss-ni?
'Can you go to see the movie today?'
B: Ung, sikan i iss-e.
'Yes, I am free.'

In (20) the speaker is questioning the addressee's external circumstances which enable the latter to do the contents expressed by the main verbs. Thus, in (20a) the meeting with a friend makes it impossible for the addressee to stop by the library while in (20b) the addressee being free makes it possible for him to see the movie.

2. Som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In this section we will investigate thre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non-epistemic possibility: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factuality.

2.1. Temporal reference

The interpretation of time in sentences involving (u)l swu iss is different according to the three uses of PERMISSION, ABILITY, and CIRCUMSTANTIAL/NEUTRAL POSSIBILITY.

2.1.1. Past

In sentences of non-epistemic possibility, past tense occurs only with modal constructions but not with main verbs:

(21) a. Na nun il khilo lul sippwun an ey talli-l swu iss-ess-ta. (ABILITY)
'1 could run one kilometer in ten minutes.'
b. Ecey sikan i manh-ase yengwha pole ka-l swu iss-ess-ta. (POSSIBILITY)
'Because I was free yesterday, I could go to see the movie.'

(22) a. *Na nun il khilo lul sippwun an ey talli-ess-ul swu iss-ta. (ABILITY)
'*I can have run one kilometer in ten minutes.'
b. * Ecey sikan i manh-ase yengwha pole ka-ss-ul swu iss-ta. (POSSIBILITY).
'*Because I was free yesterday, I can have gone to see the movie.'

The reason why past tense occurs only with modal construction but not with main verbs is, according to Palmer (1979: 79), due to the fact that "we can refer either to present or to past possibility or ability, but not to present possibility or ability to do something in the past or to past possibility or ability to do something in the present."

2.1.2. Present and future

Non-past tense is interpreted either as present or future in sentences with (u)l swu iss. Observe the following:

(23) a. Yekise tampay lul phiwu-l swu iss-upni-kka? (PERMISSION)
'Can I smoke here?'
b. Na nun ku yeca uy ilum ul kiekha-l swu iss-ta. (ABILITY)
'I can remember her name.'
c. Onul sikan i manh-ase yengwha pole ka-l swu iss-ta. (POSSIBILITY)
'Because I am free today, I can go to see the movie.'

In (23) no tense is marked; thus, depending on the use of (u)l swu iss, temporal reference is interpreted differently. In both (23a) and (23c) the possibility of the event expressed by the proposition is in the current state; in other words, it is currently possible for something to occur. However, the event

has not yet taken place but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therefore, the time of the event in (23a) refers to the future.

In contrast to this, (23b) indicates the speaker's current state of innate ability of remembering the name; thus, the temporal reference in (23b) is present. However, it is possible to use ABILITY -(u)l swu iss to refer to the future.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

(24) Tacyesu nun naynyen ey iki-l swu iss-ta.
'The Dodgers can win next year.'

In (24) the Dodgers have the ability to win now, but they will execute that ability at the future time.

2.2. Aspect

According to Coates (183: 99) the three meanings of English can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hree covert aspects of dynamic, stative, and iterative. All modals are stative, but the main verb can refer to any of these three aspects. Below we will see how (u)l swu iss and its main verbs are interpreted with respect to these aspects.

2.2.1. Dynamic and stative

The modal construction (u)l swu iss is stative since it refers to a state of possibility, ability and permissibility. However, main verbs which occur with (u)l su iss are interpreted to possess different aspects depending on the meaning of (u)l swu iss .

Most of the verbs which occur with (u)l swu iss refer to events; thus, they indicate dynamic aspect. According to Leech (1987: 8), "an event [---] has a beginning and an end; it can be viewed as a whole entity, and can also make up one member of sequence or plurality of happenings." Observe the following examples:

(25) a. Yeki anc-ul swu eps-upni-ta. (PERMISSION)
'You cannot sit here.'
b. Na nun ophela to nolayha-l swu iss-e. (ABILITY)
'I can sing an opera.'
c. Onul un yenghwa po-le ka-l swu iss-ta. (POSSIBILITY)
'I can go to see the movie today.'

Main verbs in (25) refer to dynamic aspect since they indicate events which have a beginning and an end.

In contrast, a state does not have a beginning and an end; in other words, "a state is undifferentiated and lacking in defined limits" (Op. Cit. P8). Some main verbs which occur with ABILITY -(u)l swu iss and POSSIBILITY -(u)l swu iss refer to stative aspect:

(26) a. Na nun cikum to ku yeca uy ilum ul kiekha-l swu iss-ta .
'I can still remember her name.'
b. Mary to yeppu-l swu iss-ta .
'Mary can be pretty too.'

In (26) the main verbs kiekha 'remember' and yeppu 'pretty' refer to stative aspect since the first verb indicates the subject's current state of memory and the second the state of quality. The verb 'remember' can refer to dynamic aspect if it means the act of recall. If that is the case, then (u)l swu iss can refer to POSSIBILITY.

2.2.2. Iterative

Main verbs with ABILITY -(u)l swu iss refer to iterative aspect. Observe the following:

(27) a. John un sip khilo lul samsippwun eu talli-l swu iss-ta.
'John can run ten kilometers in ten minutes.'
b. John un han sikan tong 'an swuyengha-l swu iss-ta.
'John can swim for one hour.'

In (27) main verbs do not refer to a single event, but rather successive or repeated events. This is because one can do something more than once if he has the ability to do it. In contrast to this, observe the following:

(28) a. Yeki anc-ul swu iss-upni-kka? (PERMISSION)
'Can I sit here?'
b. Onul un Mary lul manna-l swu iss-ta. (POSSIBILITY)
'1 can meet Mary today.'

Main verbs in (28) refer to a single event. When we compare (27) and (28), they show a difference not only in aspect but also in the implication of time reference. (28) indicates that events will occur only in the future. However, (27) implies that events occurred in the past and can occur at the present time, and moreover will occur in the future. Events in (27) cannot be uttered by the speaker unless he has the knowledge that the subject performed events in the

past.

2.3. Factuality (or actuality)

The modal construction (u)l swu iss behaves differently according to its three meanings with respect to factuality. Factuality means the speaker's full commitment to the truth of the proposition expressed by the sentence. Observe examples (27a) and (28), which are repeated below as (29):

(29) a. John un sip khilo lul samsippwun eu talli-l swu iss-ta.
'John can run ten kilometers in ten minutes.'
b. Yeki anc-ul swu iss-upni-kka?
'Can I sit here?'
c. Onul un Mary lul manna-l swu iss-ta.
'I can meet Mary today.'

As we saw already in the above, the events in (29b) and (29c) have not occurred yet; thus, they are non-factual. Contrary to this, as known from the discussion for (27), the event in (29a) is accepted as a fact by the speaker. This means that the speaker knows that the event occurred in the past. Therefore, it refers to factuality. From this fact, we can say that PERMISSION-(u)l swu iss and POSSIBLITY -(u)l swu iss are non-factual while ABILITY-(u)l swu iss is factual.

Generally the past event is interpreted as factual because it took place. Thus, in the following example, the event can be interpreted as factual:

(30) Na nun besu lul tha-l swu iss-ess-ta.
'I could catch the bus.'

However, a close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opposite interpretation is also possible for (30); that is, the event did not take place. In this interpretation (u)l swu iss refers to non-factual and only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the event.

In conjunction with the interpretation of factuality and non-factuality for (30), Palmer (1979: 80) shows an interesting set of English examples like the following:

(31) a. *I ran fast, and could catch the bus.
b. I ran fast, but couldn't catch the bus.
c. I ran fast, and was able to catch the bus.

In order to explain the unacceptability of (31a) but acceptability of (31b) and (31c), Palmer gives the following account:

What is important, however, is that, in general, the positive past tense form of CAN is not used in assertion if there is the implication of actuality, i.e., if it is implied that the event took place. In contrast, however, the negative form couldn't will always imply that the event did not take place, and BE ABLE TO may be used in past tense positive forms with the implication of actuality.

Now, let's compare the following Korean examples with (31):

(32) a. Nay ka ppalli tallyeka-se besu lul tha-l swu iss-ess-ta. Kulayse tha-ss-ta.
'I ran fast and was able to catch the bus. As a result, I rode it.'
b. Nay ka ppalli tallyeka-se besu lul tha-l swu iss-ess-ta. Kulena tha ci anh-ass-ta.
'I ran fast and could catch the bus. But, I did not ride it.'

English has two forms, can and be able to for the possibility of the event, but only be able to is used for the implication of actuality in the past as shown in (31). If can is used for the same purpose, it will yield an unacceptable sentence like (31a). In contrast, Korean has only one form (u)l swu iss, which is used for the implication of actuality or non-actuality. In (32a) (u)l swu iss is used to refer to actuality, but in (32b) the same form does not refer to actuality, but only refers to possibility. Therefore, both (32a) and (32b) are acceptable in Korean.

3. Conclusion

In this paper we examined modal (u)l swu iss is used to express three core modal meanings of circumstantial (or neutral) possibility, ability and permission for non-epistemic possibility. It is also demonstrated that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emporal reference, aspect, and factuality ar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ree meanings of non-epistemic modal -(u)l swu iss.

■ REFERENCES:

Bybee, J. & Fleischman, S. (eds.) 1994.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Coates, J. 1983. The semantics of the modal auxiliaries. London: Croom Helm.

Guo, J. 1994. The interactional basis of the Mandarin modal neng 'can'. In Bybee, J. & Fleischman, S.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205-238.

Leech, G. 1987. Meaning and English verb. London: Longman.

Lukoff, F. 1982. An introductory course in Korean.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Martin, S. M. & Lee, Y-S. C. 1969. Beginning Korea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almer, 1979. Modality and the English modals. London: Longman.

Perkins, M.R. 1983. Modal expressions in English. Norwood: Ablex.

Silva-Corvalan, C. 1994. Contextual conditions for interpretation of poder and deber in Spanish. In Bybee, J. & Fleischman S. (eds.), Modality in grammar and discourse. Amsterdam: John Benjamins. 67-105.

Vandesande, A.. V. 1968. Myongdo's Korean. Seoul: Myongdo Institute.

□ 토론 □

"The modality of non-epistemic possibility in Korean : (u)l swu iss"에 대한 토론문

최홍열(강원대)

이 논문은 영어의 'can'의 의미 한국어 '-(으)ㄹ 수 있-'의 비인식론적 가능을 고찰한 것으로 조동사 구문 '-(으)ㄹ 수 있-'이 비인식론적 가능에 대해 '정황상(중립)의 가능, 능력, 허락'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로 쓰인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한 '-(으)ㄹ 수 있-' 이 '시제, 양상, 사실성'의 문법적 특성들이 세 가지 의미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내용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제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토론을 하는 것이 선생님께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도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봄으로써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선행연구 검토

선생님께서는 서론에서 한국어에 대한 초기 선구적인 연구 Martin and Lee (1969), Vandesande (1968), Lukoff (1982)에서 조동사 '-(으)ㄹ 수 있-'이 교육학적 목적으로 간단히 다루어져 있다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다'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의미, 통사적인 면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염재상(1999,2003)은 '-(으)ㄹ 수 있다-'의 중의성은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각각 달리하는 《가능성》《우발성》《산발성》《양보》네 의미로 해체되지만 각 의미범주들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절대적 단절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경계 부분에서 서로 겹쳐지고 혼합적이며, 그래서 의미적으로 연속적이고 불확정성을 형성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김기혁(1999)은 가능 구성((으)ㄹ 수 있다)의 문법 범주를 분석하여 '(으)ㄹ'은 '미래, 추측, 의지'의 의미를 가진 어미, '수'는 방법이나 도리의 의미를 가진 명사, '있다'는 존재의 의미를 가진 서술어로 구분하였다. 이들의 의미의 합은 '서술의 방법이나 도리가 있음'을 나타나게 된다. 이 구성은 의미 확장을 이루며, 문법화되어, '가능, 능력'의 의미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안주호(2004)는 '-ㄹ 수 있-' 구성의 양태의미를 '가능성'을 기본적 의미로 간주하였다. 이때 '가능성'이란 의무양태에서는 주어의 사태(능력, 의지, 의무, 허가 등)에 내포되어 있는 명제내용의 실현가능성의 정도를 의미하는데, 인식 양태에서 명제 내용에 대해서 화자가 판단한 확실성, 또는 가능성의 정도(예측, 추측, 가능성, 확실성 등)을 뜻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의미와 통사구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 예5)에서 '지금 갈 수 있습니다.'는 '허락'의 용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또한 실제 발화에서 허락을 나타낼 경우 '~해도 되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명확한 근거가 없을뿐더러 실제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서 사회자가 발표자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후자가 전자에 비해 범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허락'이라는 측면에서도 선택적인 문제일 뿐 전자가 후자보다 의미적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23)가. 여기서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이 문장을 미래로 해석하고 있는데 허락의 경우 미래가 아닌 현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허락의 경우 답변은 미래적이지만 허락의 상황 자체는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당장)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의 경우 말을 하는 행위는 미래에 이루어지지만 허락이 이루어진 상황은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허락의 경우 현재와 미래 시제와 공기할 수 있다.' 이외의 설명은 불필요합니다.

4." (32) 가. 내가 빨리 달려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래서 탔다.
나. 내가 빨리 달려서 버스를 탈 수 있었다. 그러나 타지 않았다.

(32가)에서 '**-(으)ㄹ 수 있-**'은 사실성을 나타내지만, (32b)에서는 같은 형태라도 사실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오직 가능성만을 나타낼 뿐이다."라고 하셨는데, 필자의 설명을 해석해 보면 '-할 수 있다'가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32)의 예들이 후행하는 부가 설명에 의해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있지만 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과 반대되는 선택을 했을 뿐 '-할 수 있다'의 용법에 사실성이 없다거나 사라졌다는 설명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5. 결론부분

논문을 처음 읽을 때는 영어의 조동사 'can'과 한국어의 '**-(으)ㄹ 수 있-**' 의미와 통사적인 기능을 비교하여 의미상에서 인식론적인 면과 비인식론적인 측면의 차이는 무엇이고, 통사구조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밝힐 줄 알았는데, 한국어의 '**-(으)ㄹ 수 있-**'의 의미와 통사구조만 언급을 했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시간의 분포적 양상 연구

김기준(단국대)

<차례>

1. 서론
2. 기존 분류
3. 분류
■ 참고문헌

1. 서론

본고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나타난 시간의 의미를 가지는 어휘를 대상으로 한국어 시간 표현의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위해 <표준>의 뜻풀이에 '시간'의 뜻풀이를 포함하는 어휘들을 추출하였다. <표준>에서 '시간'을 뜻풀이에 포함하는 어휘들은 2453건 중 용언은 265건이 검색되었다.[5] '시간'을 뜻풀이에 가진 어휘 중 용언어휘들을 한정한 이유는 용언의 어휘들이 화시 표현들의 시간적 분포 양상을 좀 더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1)의 '가깝다'의 예문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ㄱ. 둘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사이다. <표준>[6]
ㄴ. 자정이 가까워 오자 채린의 방에 불이 꺼졌다. <고려>[7]

(1)은 '가깝다'가 활용한 예이다. (1ㄴ)은 <고려>에서 발췌한 '가깝다'의 예문으로 '(어떤 때가) 될 시간이 오래지 않다'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다. '가깝다'는 '자정'이라는 한 시점으로 점점 다가가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즉, '자정'을 기준점(point of reference)이라고 하면 기준점으로 다가가는 경우 '가깝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1ㄱ)의 예문은 (1ㄴ)과 같이 해석할 수 없다. (1ㄱ)의 문장만으로 둘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혼식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은 기준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결혼식'이라는 날짜를 기준점으로 삼으려면 (2ㄱ)과 같은 문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1ㄱ)의 기준점은 문장이 발화된 시점을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 즉, '가깝다'의 경우 시간의 분포에서 두 가지의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본고에서는 뜻풀이에 '시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시각', '시기', '시점' 등의 연구도 필요하겠다.
6) <표준>은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표준국어대사전>이며 인터넷(http://stdweb2.korean.go.kr/)사이트에서 예를 인용하였다.
7) <고려>는 고려대에서 발행한 <한국어대사전>이며 인터넷(http://dic.daum.net/)사이트에서 예를 인용하였다.

(2) ㄱ. 그들의 결혼식이 가까워지고 있다.

(3) ㄱ. 둘은 장래에 결혼할 사이다.
ㄴ. 자정에 채린의 방에 불이 꺼졌다.[8]

(3ㄱ, ㄴ)은 (1ㄱ, ㄴ)에서 '가깝다'를 삭제를 하였다. (3ㄱ)의 '장래'의 시간적 위치가 (1ㄱ)보다 더 불명확해졌다. 물론 (1ㄱ)의 '장래'의 시간적 위치 역시 정확하게 확정할 수 없으나 '가까운'이라는 표현 때문에 화시 원점(原點; Origo)[9]에서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3ㄱ)의 경우 '장래'가 가까운 미래인지 먼 미래인지 조차도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1ㄱ)이 '그들은 2016년 5월 6일에 결혼할 사이다.'처럼 정확한 시점(2016년 5월 6일)[10]은 알 수 없으나 시간적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는 '장래'라는 시간 명사를 시간 화시 표현의 어휘로 볼 수 있게 한다.[11] (1ㄴ)은 '방에 불이 꺼졌다'란 사건이 '자정' 전에 일어난 것에 비해 (3ㄴ)은 '방에 불이 꺼졌다'란 사건이 '자정'이라는 시간에 일어났다. 이 차이는 '가깝다'의 어휘 의미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12]

1.2 개념 설정

Lyons (1977:637)는 화시를 어떤 발화 행위(act of utterance)가 이루어질 때, 단일 화자와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청자의 참여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되는 시공간적 맥락과 관련하여, 그 발화에서 화자가 언급하거나 지칭하고 있는 인물, 대상, 사건, 과정, 행위의 소재 확인과 존재 식별을 가리키는 말이라 하였다(박철우 2011ㄴ).

박철우(2011ㄴ: 8)는 화시 기능을 하는 언어 단위로 '오늘, 어제, 내일' 등의 시간 명사, '어머니' 등 '아군', '적군' 등의 일반 명사, '이, 그, 저'의 관형사, '이리', '그리', '저리' 등 부사, '그렇다', '저렇다' 등의 형용사, '오다', '가다' 등의 동사, '앞으로가', '좌향좌', '우로 봐' 등 구형에 속하는 감탄사까지도 화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 역시 박철우(2011ㄴ)의 주장을 받아들여 '오다', '가다' 류의 동사나 '그렇다', '이렇다' 류의 형용사 등을 화시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다루는 용언들은 화시 중심을 포함하는 시구간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가깝다' 등의 표현들이 시구간 단위에 따라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에 대해 표현할 수 있으므로 화시 표현의 확장으로 보고자 한다.

---

8) (1ㄴ)에서 '자정'은 주어로서 기능을 하지만 (1'ㄴ)의 '자정'은 부사어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조사 '에'를 사용하였다.

9) 원점(原點; Origo)이라는 개념은 Bühler(1934)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인간 언어의 지시영역이 이를 표상한다면 '여기(hier), 지금(jetzt), 나(ich)' 세 단어가 동그라미 위치에 놓여한 한다고 서술하였다(지광신 외(옮김) 2008).

10) 박진호(2011:290)는 시점을 나타내는 언어적 수단을 어휘적 수단과 문법적 수단으로 구분하였다. 어휘적 수단 중 '지금, 아까, 방금, 어제, 오늘' 등을 화시적 어휘적 수단이라 하고, '2000년 1월 1일, 지구가 생겨났을 때' 등을 非화시적 어휘적 수단이라고 하였다.

11) 박철우(2011ㄴ:25)에서 '가까운 장래(미래)'를 '화시 중심 이후' 표현으로 설정하였다.

12) '오다'의 경우 박철우(2011ㄴ:23)는 장소와 관련된 화시 표현이라고 하였다.

2. 기존 분류

시간어에 대한 기존 분류는 주로 부사에 대한 분류만 있다. 민현식(1989)은 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시간부사를 시제와 상으로 구분하였다[13]. 서정수(1995)는 시간 부사어를 '시점/순간 부사어, 시간대/시역, 시작점 표시, 동안, 잦기, 차례' 등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다[14]. 김상태(2005)는 민현식(1989)의 분류 방식을 원용해 현대국어 시간부사를 분류하였다[15]. 특히, 서정수(1995)와 김상태(2005)는 단어만 분류한 것이 아니라 부사어까지 포함하

---

13) 민현식(1989: 165-167)
- ⓐ 時制 관련 시간부사(시제 부사)
  - ⅰ. 기본시제의 시간부사
    - . 과거시(선행시): 일즉, 아래, 녜, 앐퓌, 전에 등
    - . 현재시(동시, 일치시): 이제, 이쁴, 이ᄢᅢ, 이저긔 등
    - . 미래시(후행시): ᄒᆞ마, 쟝ᄎᆞ, 앐ᄑᆞ로 후에 등
    - . 미지시: 어느 제, 언제 어느쁴, 어느날 등
    - . 부정시: 아모, 저긔 등
  - ⅱ. 부차시제의 시간부사
    - . 직전과거: 갓
    - . 직후미래: 곧, 고대, 고대셔 등
- ⓑ 相 관련 시간부사(상 부사)
  - ⅰ. 문법상의 시간부사
    - . 완료상: ᄒᆞ마, 이믜, 이믜셔, 붇써
    - . 진행상: 갓, 뫼야ᄒᆞ로, 아직, 안직
    - . 예정상: 미래 및 직후미래의 부사와 중복
  - ⅱ. 어휘상의 시간부사
    - . 선행상: 처럼, 몃, 몬녀, 미리, 즈르 등
    - . 순서상 동시상: ᄒᆞᆫ쁴, 一時예, 마치, ᄒᆞᆫ디 등
    - . 후행상: ᄆᆞᄎᆞᆷ, ᄆᆞᄎᆞ막, ᄆᆞᄎᆞ매, 내죵애
    - . 순간상: 믄득, 홀연히, 과굴이, 모로기 등
    - . 지속상: 새배, 아ᄎᆞᆷ, 나조, 이제, 느르러 등
    - . 반복상: 또, 다시, ᄂᆞ외야, 날마다, 나날 등

14) 서정수(1995: 733-742)
- ⓐ 시점/순간 부사어: 시방, 지금, 아까, 접때 등
- ⓑ 시간대/시역: 요즈음, 요사이, 오늘, 일찍이, 본디 등
- ⓒ 시작점 표시: '시점+ (로)부터'의 형태
- ⓓ 동안: 내내, 겨우내, 한동안 등
- ⓔ 잦기: 가끔, 때때로, 종종, 간혹 등
- ⓕ 차례: 먼저, 나중에, 차차, 점차, 아직 등

15) 김상태(2005)
- 1) 위치 시간부사
  - ①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선행시): 일찍이, 접때, 그전에, 그전때, 예전에 등
  - ②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동시): 지금, 요즈음, 근래, 오늘날, 금년, 올해
  - ③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후행시): 내년, 내후년, 내일, 모레, 이듬해 등
  - ④ 미지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언제, 어느때, 어느날, 한때 등
  - ⑤ 부정시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아무 때, 아무날
  - ⑥ 직전과거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방금, 아까, 잠시전, 금방
  - ⑦ 직후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 이따가, 조금후, 잠시후, 곧, 바로, 오늘내일 등
- 2) 빈도 시간부사
  - ① 단순 반복: 다시, 또, 또다시, 도로, 거듭, 재차 등
  - ② 주기 반복
    - ⓐ 규칙적 반복: 날마다, 每日, 야야(夜夜), 매야(每夜), 그날그날, 하루건너 등
    - ⓑ 불규칙적 반복
      - ⅰ 고빈도성 시간부사: 자주, 빈번히, 흔히, 재삼(再三), 잘, 곧잘 등

여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단어 자체의 의미일 수도 있으나 조사로 인해 발생한 의미일 가능성이 높다. 정동경(2013)은 시간 명사에 대해 통사적 분류를 과거, 현재, 미래의 3분 체계로 대분류를 하고 년, 계절, 월, 주, 일, 시 등으로 소분류를 하였다.

3. 분류

용언의 분류를 우선 화시 원점을 기준시점으로 하는 경우와 시간이 기준시점이 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다. 예문 (4)를 통해 분류할 수 있다.

(4) ㄱ. 가까운 시일에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ㄴ.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벌써 가마득한 일이 되었다.
ㄷ.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ㄹ. 이 민속극이 고려와 조선을 경과하면서 더욱 복잡해지고 화려해졌다. .

(4ㄱ)의 '시일'은 '가까운'이라는 어휘 때문에 화시 원점에서 시간상으로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고, (4ㄴ)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일(시간)'이 '가마득한'이라는 어휘로 화시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ㄱ, ㄴ)은 기준시점이 화시 원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ㄷ)의 '가다'나 (4ㄹ)의 '경과하다'는 화시 원점[16]이 기준시점으로 볼 수 없다. 즉, (4ㄷ)의 '봄'이나 (4ㄹ)의 '고려와 조선'이 기준 시점이고 그 시간이 지나감을 '가다'나

ⅱ 저빈도성 시간부사: 가끔, 이따금, 더러, 때때로, 드물게, 걸핏하면 등
3) 지속 시간부사
① 특정기간 지속: 새벽, 저녁, 黃昏, 한밤중, 겨우내, 평생 등
② 시한 지속: 여태, 이제부터, 예로부터, 어제까지, 생래(生來), 유사이래(有史以來) 등
③ 단기간 지속: 잠깐, 잠시, 한때, 잠시간(暫時間) 등
④ 장기간 지속: 오래, 길이, 부루2, 영영(永永) 등
⑤ 불변 지속: 항상, 늘, 마냥, 내내, 始終 등
⑥ 연속 지속: 잇달아, 계속, 연이어, 이냥, 내처 등
4) 상황의 내적인 시간 속성들을 기술하는데 제공되는 시간부사
① 순간: 빨리, 얼른, 어서, 순식간에, 일순간 등
② 점진: 날로, 나날이, 갈수록, 시나브로, 일익(日益) 등
③ 느림: 장장(長長), 그만1, 든손, 일로(一路) 등
5) 연속된 (가능한) 상황들 속에서 상황의 위치를 가리킬 수 있는 시간부사
① 선행
ⓐ 시초: 처음, 시초에, 아예, 당초에(當初-), 첫대바기 등
ⓑ 비교: 먼저, 우선
ⓒ 사전: 미리, 앞서, 일찍, 지레, 이미, 벌써, 기위(旣爲) 등
② 동시
ⓐ 일시 동시: 한꺼번에, 일제히(一齊-), 동시에(同時-), 일시에(一時-) 등
ⓑ 적시 동시: 마침, 때마침, 適時에, 모처럼
ⓒ 상태 동시: 함께, 같이, 더불어, 아울러
③ 후행
ⓐ 최종적 후행: 나중, 나중에, 마지막에, 끝에, 끝내 등
ⓑ 비교 후행: 다음에, 후에, 멀찍이, 멀찌가니, 가직이
ⓒ 양태 후행: 과연, 마침내, 이윽고, 그제서야, 결국(結局) 등
ⓓ 성상 후행: 늦게, 더디, 늦추

'경과하다'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3.1 화시 원점

가. 근접: 가깝다, 밭다
화시 원점으로부터 사건이 가까운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5) ㄱ. 둘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사이다.
ㄴ.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남북 정상 회담이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ㄷ. 결혼 날짜를 받게 잡아서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쁘다.

나. 원거리: 가마득하다, 가맣다, 까마득하다, 까맣다, 아마득하다, 면원하다
화시 원점으로부터 과거의 오래전 시간의 의미를 나타낸다.

(6) ㄱ. 고향에 가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가마득하다.
ㄴ. 네 할아버지가 이 마을로 와서 정착하신 것은 가마득하게 오래전 일이다.
ㄷ. 너와 함께 물장구치던 그때 기억이 가맣구나.
ㄹ. 옛 기억이 가맣게 떠올랐다.
ㅁ. 그 모든 일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지워진 과거였고 미래는 진공 상태였다.
ㅂ. 까만 옛날의 일
ㅅ. 아마득한 옛날
ㅇ. 아마득한 어린 시절이 좋았다고 마냥 개구쟁이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ㅈ. 우리 민족의 역사는 면원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6ㄱ, ㄴ)의 '가마득하다'는 과거의 사건이 지난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6ㄷ, ㄹ)의 '가맣다' 역시 과거의 오래전 사건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다. (6ㅁ)의 '까마득하다'와 (6ㅂ)의 '까맣다'의 각각 '가마득하다'와 '가맣다'의 센말들이다. 위의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가마득하다'나 '가맣다'는 발화시점을 현재로 할 때 사건이 오래전에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6ㅅ, ㅇ)의 '아마득하다'의 경우 역시 과거의 오래전 사건의 지시하고 있다.

다. 지속이나 유지
화시 원점에 사건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표현: 가다, 걸치다

(7) ㄱ.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에 대한 논쟁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ㄴ. 저런 허술한 판잣집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ㄷ. 이대로 간다면 시즌 우승도 문제없다.
ㄹ. 이번 전시회는 월요일에서 다음 일요일에 걸쳐 계속된다.
ㅁ. 평생에 걸친 연구의 성과로서 김 박사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게 되었다.

(7)의 발화시점의 사건이 미래까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한다. '가다'의 경우 발화시점의 사건

이 미래의 구체적이지 않은 시간까지 계속 유지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걸치다'의 경우 발화 시점의 사건이 구체적인 시간까지 유지되는 것이 '가다'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시간의 분포성을 확인하므로 두 경우를 같이 시간의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겠다.

라. 지남: 가다

(8) ㄱ. 좋은 시절도 다 갔다.
ㄴ. 내 청춘이 이렇게 가는구나.

(8)의 경우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가 화시 원점을 지나가거나 끝남을 의미하며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로 나타난다.

3.2 시간이 기준 시점

가. 도달: 가다, 대가다, 대다

(9) ㄱ. 검사 결과는 내일에 가서야 나온대
ㄴ. 그 경기는 자정에 가서야 끝났다.
ㄷ. 그녀는 말년에 가서야 자신의 과오를 뉘우쳤다.
ㄹ. 이러다가 제시간에 대기기가 어렵겠다.
ㅁ. 운전사는 사장이 회의 시간에 댈 수 있도록 지름길로 차를 몰았다.

(9)의 경우 기준시점에 도달하는 의미를 가지며 기준시점으로 제시된 시간은 처격조사 '에'와 결합한다. 특히 사건의 결과가 기준시점에서 발생한다.

나. 지나거나 끝남: 경과되다, 경과하다, 넘어서다, 늦다, 늦추잡다
시간의 기준시점을 지나다.

(10) ㄱ. 세 시간이 경과되다.
ㄴ. 편지가 그녀의 손에 전달되기까지 여러 날이 경과되었다.
ㄷ. 어느덧 시간은 벌써 10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ㄹ. 시계가 오 분 늦게 간다.

다. 반복성: 간헐하다, 다문다문하다, 대거리하다

(11) ㄱ. 통증은 표면 혹은 심부에서, 그리고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느낄 수 있다.
ㄴ. 간헐적으로 반복되어 공포와 감격을 함께 휘몰아치는 착잡한 추억.
ㄷ. 정순은 도회지에 나가 일을 하면서 다문다문 고향을 찾아오곤 했다.

(11ㄱ, ㄴ)의 '간헐적'과 같은 의미로서 사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

미한다.

라. 찰라성(순간성): 급하다, 급작하다
사건이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경우

(12) ㄱ. 말을 끊은 공 노인은 볼일이 <u>급하여</u> 뒷간으로 가는 사람처럼 후닥닥 일어섰다.

마. 사이를 둠: 격하다, 길다(둘 사이의 시간이 오래다)
두 사건이 시간적 사이를 둠

(13) ㄱ. 하루를 <u>격하여</u> 만나다

바. 정해진 시간보다 늦음: 때늦다, 만도하다
정해진 시간보다 늦음

(14) ㄱ. 출판사의 요청이 있어 <u>때늦으나마</u> 묵혔던 원고를 출판하기로 했다.
ㄴ. 그제서야 약간 무안해진 나는 <u>때늦은</u> 인사를 했다.
ㄷ. 내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귀가가 너무나 <u>때늦은</u> 것이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국립국어원(2005),「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상태(2005), 『현대국어 시간표현 어휘 연구』, 학고방.

김선희(1988), "공간어와 시간적 의미", 『목원어문학』7, 목원대학교 국어교육학회 53-88.

김진수(1989), "국어 접속어미의 분류", 『언어연구』 6, 79-99.

문숙영(2001), "인용과 화시소의 전이", 『국어학』65, 국어학회, 219-249.

민경모(2012), "Deixis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 의미학』 37, 27-52.

민현식(1990), "中世國語 時間副詞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호(2011), "시제, 서법, 양태", 『국어학』60, 국어학회, 289-322.

박철우(2011ㄱ),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한말연구』 29, 141-164.

박철우(2011ㄴ),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36, 1-37.

봉원덕(2004), "시간부사의 상적 의미 표현 양상", 『어문연구』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87-209.

서정수(1985), "국어의 접속어미 연구(1)", 『한글』 189, 51-86.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이영민(2003), "접속어미 '-며', '-면서', '-면'의 의미와 상관관계, 『시학』 6, 259-253.

이은경(2005), "명사를 중심어로 하는 문법적 연어 구성", 『한국어 의미학』17, 한국어 의미학회.

이정택(1995), "접속어미 '-자, -자마자, -았자'의 의미와 문법",『애산학보』 17, 71-97.

이희자·이종학(2010), 『한국어 학습 전문가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임근석(2009), "문법적 연어와 한국어 교육 - 조사적 연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

임근석(2009), "통계적 방법을 이용한 문법적 연어 후보 추출", 『한국어학』 45, 한국어학회, 305-333.

임근석(2010), 『한국어 연어 연구』, 월인.

임동훈(2009), "한국어 병렬문의 문법적 위상", 『국어학』56, 국어학회, 87-130.

임동훈(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 의미학』36, 한국어 의미학회, 39-63.

임지룡(1980), "국어에 있어서의 시간과 공간 개념",『국어교육연구』12, 국어교육학회, 111-126.

정동경(2013),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지광신.최경은(옮김)(2008),『언어 이론-언어의 서술 기능-』(Bühler, K.(1934/1982), Sprachtheorie :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 New Youk : Fischer.), 나남.

한정한(1993), "국어 시간표현의 조응적 해석", 『언어』18, 한국언어학회, 123-140.

한정한(2010), "연어의 문법범주",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8.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토론 □

“한국어의 시간의 분포적 양상 연구”에 대한 토론문

남미정(서강대)

이 연구는 한국어의 시간 지시 표현이 어떠한 영역에 걸쳐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의문이 드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이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연구는 문법적 장치를 통해 표현되는 ‘시제’와는 달리 어휘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시간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어에서 ‘시간어’ 관련 형식들이 어떠한 의미로 해석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목에서는 ‘시간의 분포적 양상’에 대한 연구라고 밝히고 있어 연구의 주제와 제목이 불일치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논문의 제목은 시간어들이 어떠한 분포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 관련 어휘들의 의미를 밝힌다고 할 때 각 시간어들이 어떠한 시간적 의미로 해석되는지를 기술하는 것은 기존의 논의나 사전에서 정리된 것과 크게 구별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들의 개념이 다소 불분명해 보입니다. ‘시간’이나 ‘분포’, ‘기준시’ 등의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표문 1쪽 “‘가깝다’의 경우 시간의 분포에서 두 가지의 분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화시에서 가까운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 두 번째, 미래의 기준시로부터 가까운 발화시의 사건”과 같은 기술에서 ‘분포’라는 용어는 시간축 상에서의 어떤 지점에 위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포’와는 다른 개념으로 읽힙니다. 또한 ‘기준시’역시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발화시’가 기준시가 된다거나 후행절의 시점이 기준시가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되는 때를 전제로 하는데 이 논문에서의 ‘기준시’는 그러한 기준점이 불명확한 상태로 사용된 용어로 보입니다.

3. 3장에서 3.1과 3.2~3.4이 다른 분석틀을 사용하고 있어 두 부분이 별개의 논의인 것처럼 보입니다. 3.1은 기준시, 발화시의 관계를 통해 어휘 의미를 분석했고 3.2~3.4는 기준시, 발화시와는 무관하게 주로는 선후행절의 시간 관계에 따라 접속어미나 접속부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을 하나의 논의로 묶어줄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4. 3.1 어휘(용언)를 ‘도달, 지나거나 끝남, 원과거, 지속, 반복성, 찰라성, 향구성, 사이를 둠, 정해진 시간보다 늦음’ 등으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걸치다’는 ‘지속’, ‘간헐하다’는 ‘반복’, ‘격하다’는 ‘사이를 둠’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는 동어반복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분류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도달’로 분류된 ‘가다’는 ‘-에 가서야’의 형식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 논문의 분류상 3.3 ‘연어’ 항목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3.3 연어에서 제시된 ‘-고 나서’의 경우도 3.2 어미 항목과 구분이 모호합니다.

【 제 5 분 과 】

평창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

최영미(경동대)

<차례>

1. 머리말
2. 실험 방법
3. 실험 결과 및 논의
4. 맺음말
■ 참고문헌

1. 머리말

이 연구의 목적은 평창방언 다음절 체언류의 성조형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 실현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검증하고, 평창방언 성조의 전이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최영미(2014:291~292)은 평창방언을 성조언어로서 분류하고, 평창방언이 삼척, 강릉, 정선방언보다 더 많이 비성조방언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평창방언은 평창방언의 성조소는 3개, 평성(□ /H/[H]), 거성(·□ /M/[M]), 상성(:□ /M/[M])으로 구성된 2단 3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중세국어, 삼척, 정선 방언의 성조소와 대응관계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 성조소의 대응관계

성조 분류		중세국어	삼척방언	정선방언	평창방언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	고 /H/ □	고 /H/ □	고 /H/ □
측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	저 /M/ ·□	저 /M/ ·□	저 /M/ ·□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	고: /H/ :□	저: /M/ :□	저: /M / :□

성조소는 어절 안에서 결합하여 성조형을 이룬다. 평창방언 다음절에서 성조형은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이 있다. 각 성조형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2) 평창방언 체언류 다음절 성조형과 음조형

ㄱ. 상성형 : 어절의 첫째음절이 상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측성(·□)으로 중화된 성조형이다. 상성형의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은 : 훼·미 /M³/ [MнH]으로 표시할 수 있다. 상성형의 음조형은 [MHM]과 [Mнн]으로 실현되지만 후자가 우세형이다.

ㄴ. 평복형 : 어절에서 두 개 이상의 평성(□)으로 시작되고 측성(·□)이 나타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는 중화되는 성조형이다. 평복형의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은 놀개·이 /H²M/ [MʀH]으로 표시된다. 평복형의 음조형도 [MHM]과 [MʀH]으로 실현되며 후자가 우세형이다.

ㄷ. 평1형 : 어절에서 첫째음절에 평성(□)이 오고, 이후 뒤따르는 음절은 측성(·□)인 성조형이다. 평1형의 방점형, 성조형, 음조형은 메·누·리 /HM¹/ [HM¹]으로 표시된다. 평1형의 음조형은 [HM¹]과 [HMH]으로 실현된다.

(2ㄱ-ㄴ)의 상성형과 평복형은 평창방언 성조체계 안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실현되지만 (2ㄷ)의 평1형은 성조체계 안에서 불안정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평창방언과 정선방언의 평1형 대응관계를 보면, 동일한 어휘가 평창방언에서 평복형으로 실현되는데 정선방언에서 평1형으로 실현되는 예가 나타나고, 평1형의 어휘가 평창방언의 토박이 화자에 따라 평복형과 평1형으로 둘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있다(최영미 2014:286-288). 더욱이, 평1형의 음조형은 억양의 영향을 받는다. 즉, 평1형의 음조형 중 [HMH]은 마지막 음절의 음조가 [M]으로 실현되어야 하나 [H]로 실현되고 있다. 이는 억양의 영향을 받아서 저조 영역으로 하강해야 하나 하강하지 못하고 고조의 영역에서 실현되는 것이다(최영미 2014:289-290). 이러한 평창방언 평1형의 특징은 평창방언 성조를 비성조방언으로 변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조의 음조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음조형, 측정 QT[1]사슬, 조정 QT사슬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음조형은 #_____# 위치에 나타나면서 내부에 개방연접이 없는 1음절 이상의 모든 어절에 나타나는 일정한 운율형으로 음성학적 층위의 개념이다. 또한 측정 QT사슬은 화자가 발화한 어절(운율적 낱말)을 구성하는 각 음절의 기본주파수를 QT 척도[2]로 변환한 QT 값의 연속체를 말한다. 측정 QT사슬은 핵심부와 하강부로 구분되는데, 핵심부는 첫음절부터 어절의 최고 QT 음절까지의 구간을 지칭하며, 하강부는 최고 QT 음절 다음부터 QT 값이 하강하는 구간을 지칭한다. 한편, 조정 QT사슬은 음악의 조바꿈의 원리를 이용하여 QT사슬의 수치를 조정한 것이다. 즉, 청자가 높낮이에 대한 지각을 상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청자는 QT사슬이 갖는 상대적인 QT 굴곡 곡선이 같은 모양을 하면 같은 QT사슬로 인식하여 갖은 음조형으로 인식한다.

평창방언 음조형의 음조 실현을 살피기 위해서는 전형적인 음조형을 갖는 어휘로 어절을 구성하여, 어절을 이루는 각 음절의 기본주파수를 측정하고 그것을 QT척도로 변환하여 측정 QT사슬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측정 QT사슬을 토대로 조정 QT사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에서 음조 실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측정 QT사슬을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검증할 가설은 아래와 같다.

(3) 연구 가설

ㄱ. 평창방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형을 구성하는 1음절은 음조 차이가 있다.

ㄴ. 평창방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형을 구성하는 각 음절은 음조 차이가 있다.

---

1) QT는 quarter tone의 약자이다.

2) 사분음척도는 높낮이에 대한 청취 등급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척도로서, 1/4 tone으로 사람들이 들어서 구분할 수 있는 최소의 차이 값이며, 청자의 대역폭의 차이로 발생하는 개인차를 중화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Hz 단위로 측정한 기본주파수를 적용해서 음의 물리적인 차이를 나타내면, 청자마다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차로 말미암아 그 평균값을 대푯값으로 설정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본주파수를 사분음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3ㄱ)은 평창방언 성조소인 평성(□ /H/[H]), 거성(·□ /M/[M]), 상성(:□ /M/[M])의 음역(tone register)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고, (3ㄴ)은 음조형의 음조 실현을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평창방언 다음절 성조형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 실현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검증하고 평창방언의 전이적 성격을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피실험자

피실험자는 총 6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피실험자는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평창방언 토박이 화자로 선정했다. 첫째, 평창군에서 3대 이상 거주해야 한다. 둘째, 나이는 60대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학력은 국졸 이하여야 한다. 넷째, 말소리 발음이나 청취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는 다음과 같다.

(4) 피실험자

번호	이름	나이	학력	출생지	주소
1	박춘복	71	국졸	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2리 1반
2	최옥순	82	무학	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2리 1반
3	최순옥	65	국졸	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2리 2반
4	서옥순	70	무학	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2리 3반
5	황봉남	78	무학	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2리 3반
6	전순녀	78	무학	진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2리 2반

2.2. 실험시료

이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평창방언 다음절 성조형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으로 실현되는 전형적인 어휘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어휘가 문장 안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험 시료는 문장으로 만들었다. 실험 시료는 대화로 구성했다. 즉, 의문문으로 묻고 대답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발화가 될 수 있도록 시료를 구성했다. 실험 시료는 아래와 같다.

(5) 실험 문장
ㄱ. 상성형 A : 메미가 우나? B : 운다.
ㄴ. 평복형 A : 다리가 아프나? B : 아프다.
ㄷ. 평1형 A : 소리가 크나? B :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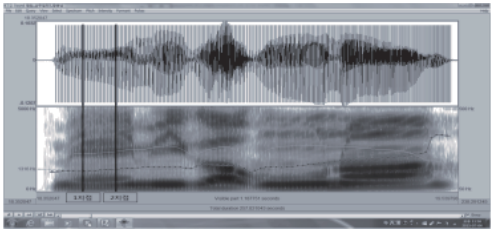
(5)의 실험 문장에서 밑줄친 어절은 음성분석의 대상이 된다. 또한 피실험자는 (5)의 대화쌍을 교차하여 각 5회씩 발음하였다. 음성분석 대상이 되는 어절 수는 총 90개(3*6*5)

어절이 된다.

2.3. 음성 녹음 및 음성 분석

피실험자의 발화는 TASCAM DR-680 DAT와 Shure KSM 44A/SL 마이크를 사용하여 녹음했다. 녹음 시 표본추출률은 44,100Hz로 하였다.

음성분석은 praat 5.3을 사용하여 실시했다. 기본주파수(f0)를 측정할 때, 검출지점은 두 가지 기준을 사용했다. 하나는 평복형과 평1형의 기본주파수는 어절의 각 음절마다 모음의 안정구간에서 측정하였다. 다른 하나는 상성형의 1음절 기본주파수는 평창방언 상성형의 음조가 저조의 영역에서 상승하는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첫째음절의 안정구간을 4등분하여 앞 1/4 지점과 뒤 1/4 지점에서 측정했다. 상성형 1음절의 기본주파수 검출 지점을 그림으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기본주파수 검출 지점

praat로 측정한 기본주파수(f0)는 K_Phonetica를 사용하여 사분음척도(quarter tone scale)로 변환하였다.

2.5. 통계 방법

각 어절 {:매·미·가}, {다리·가}, {소·리·가}의 음조형이 가지는 측정 QT사슬과 평창방언의 성조 음역에 대한 차이 검정은 SPSS 22를 사용하여 통계를 실시한다. 통계 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3. 실험 결과 및 논의

3.1. 평창방언 성조의 음역

성조언어에서 성조는 고유한 음역을 가지고 있다. 즉, 음역은 높낮이의 범위를 말하므

로 각 성조는 특정한 높낮이의 범위를 갖는 것이다. 평창방언 성조의 음역을 기술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어절 {:매·미·가}, {다리·가}, {소·리·가}에서 1음절의 상대적인 높낮이를 차이검증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어절 {:매·미·가}, {다리·가}, {소·리·가}의 음조형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구분 방점형 음조형
ㄱ. 상성형 :매·미·가 [M̲MH]
ㄴ. 평복형 다리·가 [M̲MH]
ㄷ. 평1형 소·리·가 [H̲M⁰]

(6ㄱ)에서 어절 {:매·미·가}의 음조형을 보면, 1음절의 음조가 [M]이다. 이 음조는 처음은 낮았다가 차차로 올라가는 음조로 실현된다. (6ㄴ)에서 어절 {다리·가}의 음조형을 보면, 1음절의 음조가 [M]으로, 낮은 음조로 실현된다. (6ㄷ)에서 어절 {소·리·가}의 음조형을 보면, 1음절의 음조가 [H]로, 높음 음조로 실현된다. 따라서 (6)에 제시한 어절의 1음절의 음조에 대한 차이 검정은 평창방언 성조의 높낮이에 대한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즉, (6ㄱ)의 1음절은 상승조의 음역을 제시할 수 있고 (6ㄴ)은 저조의 음역을 제시할 수 있으며 (6ㄷ)은 고조의 음역을 제시할 수 있다.

각 어절의 1음절을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즉, {다-소}, {매1-매2}, {매1-다}, {매2-소} 등을 집단으로 하여 T-검정을 실시했다. 먼저 집단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7) 집단통계량

(단위:Q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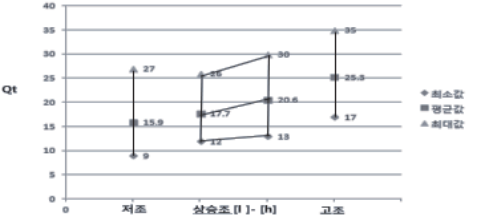
어절	집단분류	N	평균[3]	표준편차[4]	평균의 표준오차[5]	최소값	최대값
:매·미·가	매1	30	17.7	4.17	.761	12	26
	매2	30	20.6	5.19	.948	13	30
다리·가	다	30	15.9	6.12	1.117	9	27
소·리·가	소	30	25.3	5.97	1.091	17	35

(7)을 보면, 집단은 4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고, 각 집단의 발화 수는 각 30개로 구성되었다. 집단 '매1'과 '매2'는 상승조로,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에서 측정한 값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했다. 평창방언 상승조의 낮은 음역은 평균값이 17.7Qt이고, 최소 12Qt부터 26Qt까지를 음역으로 한다. 평창방언 상승조의 높은 음역은 평균값이 20.6Qt이고, 최소 13Qt부터 30Qt까지를 음역으로 하고 있다. 집단 '다'는 저조이다. 저조는 평균값이 15.9Qt이고, 최소값이 9Qt부터 최대값 27Qt까지를 음역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집단 '소'는 고조이다. 고조는 평균값은 25.3Qt이고 최소값 17Qt부터 35Qt까지를 음역으로 한다.

3)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취하고 그 이하는 버린 값이다.
4)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취하고 그 이하는 버린 값이다.
5)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취하고 그 이하는 버린 값이다.

(7)의 통계량을 토대로 평창방언의 상승조, 저조, 고조의 높낮이 범위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 평창방언 성조의 음역



(8)에서 제시한 평창방언의 저조, 고조, 상승조의 음역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9) 독립표본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ㄱ.다:소	등분산이 가정됨	.045	.834	5.995	58	.000	9.36667	1.56236	6.23927	12.49406
ㄴ.매1:매2	등분산이 가정됨	3.815	.056	-2.411	58	.019	-2.93333	1.21640	-5.36821	-.49845
ㄷ.매1/다	등분산이 가정됨	11.246	.001	1.282	58	.205	1.73333	1.35242	-.97383	4.44050
ㄹ.매2/소	등분산이 가정됨	1.623	.208	-3.250	58	.002	-4.70000	1.44621	-7.59491	-1.80509

(9ㄱ)은 평창방언의 고조와 저조가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9ㄱ)의 집단 {다}와 집단{소}의 검정 결과는 t(1-58)=5.995 P<.05이므로 두 집단 {다}와 {소}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창방언에서 저조와 고조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ㄴ)은 평창방언의 상승의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9ㄴ)의 집단 {매1}와 집단 {매2}의 검정 결과는 t(1-58)=-2.411 P<.05이므로 두 집단 {다}와 {소}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창방언에

서 상승조의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은 차이가 있다.

(9ㄷ)은 상승조의 낮은 음조와 저조가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9ㄷ)의 집단 {매1}와 집단 {다}의 검정 결과는 t(1-58)=1.282 P>.05이므로 두 집단 {매1}와 {다}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결과는 평창방언에서 상승조의 낮은 음역과 저조의 음역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ㄹ)은 상승조의 높은 음조와 고조가 음역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결과이다. (9ㄹ)의 집단 {매2}와 집단 {소}의 검정 결과는 t(1-58)=.002 P<.05이므로 두 집단 {매2}와 {소}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평창방언에서 상승조의 높은 음역과 고조의 음역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면, 평창방언 성조의 음역에 대한 통계 결과에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평창방언에서 저조와 고조는 음역의 차이가 있다.
둘째, 상승조는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은 차이가 있다.
셋째, 상승조의 낮은 음역은 저조의 음역과 차이가 없고, 상승조의 높은 음역은 고조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통계결과는 평창방언 성조체계가 2단 3성조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검증해 준다. 즉, 음역은 저조와 고조로 구분되며, 성조소는 상승조, 저고, 고조 등 3개로 구성되어 있다.

3.2. 평창방언 음조형의 음조 실현

3.2.1. 상성형의 음조

상성형은 어절의 첫째음절이 상성(:□)으로 시작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가 측성(·□)으로 중화된 성조형이다. 어절 {:매·미·가}는 3음절 상성형이다. 평창방언에서 상성형의 음조형은 [MHM]과 [MʜH]으로 실현된다.

상성형 {:매·미·가}의 음조 실현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절을 구성하는 각 음절이 음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다만, 상성형의 음조가 상승하므로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에서 측정하였으므로, 상성형 어절의 1음절은 검출지점을 2개로 잡았다. 먼저. 상성형 어절의 집단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0) 집단통계

(단위:Qt)

어절	집단분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매·미·가	매1	30	17.7	4.17	.761
	매2	30	20.6	5.19	.948
	미	30	23.9	6.42	1.172
	가	30	23.4	6.34	1.159

(10)을 보면, 각 음절의 평균 QT를 통해서 측정 QT사슬을 제시할 수 있다. 상성형 {:매·미·가}의 측정 QT사슬은 17.7Qt-20.6Qt-23.9Qt-23.4Qt이다. 이 측정 QT사슬은 핵심부와 하강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음절과 2음절이 핵심부이고, 3음절은 하강부이다. 하강부는 측정 QT사슬에 '⇩'로 표기한다. 측정 QT사슬에 핵심부와 하강부를 구분하여 표시하면 17.7Qt-20.6Qt-23.9Qt⇩-23.4Qt가 된다.

(10)에 제시한 상성형의 각 음절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통계집단은 {매1 : 매2}, {매2 : 미}, {미 : 가}로 집단을 구성했다.

(11) 독립표본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ㄱ.매1:매2	등분산이 가정됨	3.815	.056	-2.411	58	**.019**	-2.93333	1.21640	-5.36821	-.49845
ㄴ.매2:미	등분산이 가정됨	2.462	.122	-2.166	58	**.034**	-3.26667	1.50847	-6.28620	-.24714
ㄷ.미:가	등분산이 가정됨	.010	.922	.303	58	**.763**	.50000	1.64907	-2.80097	3.80097

(11ㄱ)에서 1음절 상성형의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11ㄱ)의 집단 {매1}와 집단{매2}의 검정 결과는 t(1-58)=-2.411 P<.05이므로 두 집단 {매1}와 {매2}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상성형의 낮은 음역과 높은 음역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11ㄴ)에서 1음절 상성형의 높은 음역의 음조와 2음절 '미'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1ㄴ)의 집단 {매2}와 집단 {리}의 검정 결과는 t(1-58)=-2.166 P<.05이므로 두 집단 {매2}와 {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1음절 상성형의 높은 음역과 2음절 '리'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11ㄷ)에서 2음절 '리'와 3음절 '미'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1ㄷ)의 집단 {리}와 집단 {가}의 검정 결과는 t(1-58)=.303 P>.05이므로 두 집단 {리}와 {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결과는 2음절 '리'와 3음절 '가'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2음절과 3음절이 차이가 없는 이유는 평창방언에서 상성형의 음조형은 [MHM]과 [MHH]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즉, 음조형이 [MHM]로 실현되면 하강부가 3음절로 실현되고, 음조형이 [MHH]이면 하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상성형의 발화 수 30개 중에 17개는 전자로 실현되었고, 13개는 후자로 실현되었다. 전자의 측정 QT사슬은 18.35Qt- 20.52Qt-23.70Qt⇩-22Qt여서, 하강부가 3음절임을 확인할 수 있고, 후자의 측정 QT사슬은 16.84Qt -20.76Qt-24.15Qt-25.23Qt여서 하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3.2.2. 평복형의 음조

평복형은 어절에서 두 개 이상의 평성(□)으로 시작되고 측성(·□)이 나타나고 뒤따르는

음절의 성조는 중화되는 성조형이다. 어절 {다리·가}는 3음절 평복형이다. 평창방언에서 평복형의 음조형은 [MHM]과 [MmH]으로 실현된다.

평복형 {다리·가}의 음조 실현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절을 구성하는 각 음절이 음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평복형 어절의 집단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2) 집단통계

(단위:Qt)

어절	집단분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다리·가	다	30	15.9	6.12	1.117
	리	30	20.7	6.95	1.27
	가	30	25.0	6.73	1.22

(12)를 보면, 각 음절의 평균 QT를 통해서 측정 QT사슬을 제시할 수 있다. 평복형 {다리·가}의 측성 QT사슬은 15.9Qt-20.7Qt-25Qt이다. 이 측정 QT사슬에서 하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12)에 제시한 평복형의 각 음절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통계집단은 3음절이므로 {다 : 리}, {리 : 가}로 집단을 구성했다.

(13) 독립표본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ㄱ. 다:리	등분산이 가정됨	.930	.339	-2.817	58	**.007**	-4.76667	1.69205	-8.15367	-1.37966
ㄴ. 리:가	등분산이 가정됨	.220	.641	-2.414	58	**.019**	-4.26667	1.76748	-7.80466	-.72867

(13ㄱ)에서 1음절 '다'와 2음절 '리'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13ㄱ)의 집단 {다}와 집단{리}의 검정 결과는 t(1-58)=-2.817 P<.05이므로 두 집단 {다}와 {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평복형의 1음절과 2음절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13ㄴ)에서 2음절 '리'와 3음절 '가'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3ㄴ)의 집단 {리}와 집단 {가}의 검정 결과는 t(1-58)=-2.414 P<.05이므로 두 집단 {리}와 {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결과는 평복형 2음절과 3음절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3.2.2. 평1형의 음조

평1형은 어절에서 첫째음절에 평성(□)이 오고, 이후 뒤따르는 음절은 측성(·□)인 성조형이다. 어절 {소·리·가}는 3음절 평1형이다. 평창방언에서 평1형의 음조형은 [HM²]과 [HMH]로 실현된다.

평1형 {소·리·가}의 음조 실현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절을 구성하는 각 음절이 음조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했다. 상성형 어절의 집단통계량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4) 집단통계

(단위:Qt)

어절	집단분류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소·리·가	소	30	25.3	5.97	1.091
	리	30	26.1	6.45	1.176
	가	30	26.3	6.72	1.227

(14)를 보면, 각 음절의 평균 QT를 통해서 측정 QT사슬을 제시할 수 있다. 평1형 {소·리·가}의 측성 QT사슬은 25.3Qt-26.1Qt-26.3Qt이다. 평1형의 측정 QT사슬에서 하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14)에 제시한 평1형의 각 음절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통계집단은 3음절이므로 {소 : 리}, {리 : 가}로 집단을 구성했다.

(15) 독립표본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측)	평균 차이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ㄱ. 소:리	등분산이 가정됨	.252	.618	-.477	58	**.635**	-.7667	1.60651	-3.98245	2.44912
ㄴ. 리:가	등분산이 가정됨	.006	.940	-.118	58	**.907**	-.20000	1.70159	-3.60610	3.20610

(15ㄱ)에서 1음절 '소'와 2음절 '리'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 (15ㄱ)의 집단 {다}와 집단{리}의 검정 결과는 t(1-58)=-.477 P>.05이므로 두 집단 {다}와 {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결과는 평1형의 1음절과 2음절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15ㄴ)에서 2음절 '리'와 3음절 '가'의 음조가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15ㄴ)의 집단 {리}와 집단 {가}의 검정 결과는 t(1-58)=-.118 P>.05이므로 두 집단 {리}와 {가}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결과는 평1형 2음절과 3음절의 음조가 객관적으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15)의 검정 결과는 평1형 어절을 구성하는 각각의 음절의 음조는 차이가 없다. 즉, 3개의 음절 모두가 고조의 음조로 실현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평1형의 음조형이 [HMH], [HHH], [HHM]로 실현되기 때문이다. 전체 평1형 {소·리·가}의 발화 30개에서 측정 QT사슬을 분류하여 음조형에 따라 그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6) 평1형의 측정 QT사슬
ㄱ. [HMH] : 23.4Qt-23.2Qt-24.6Qt
ㄴ. [HHH] : 27Qt-28.41Qt-29Qt
ㄷ. [HHM] : 25.2Qt-26.3Qt⇩-24.3Qt

(16)에서 평창방언 성조체계 안에서 평1형이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영미(2014:279)는 평1형의 음조형이 억양의 영향을 받아서 어절의 마지막 음절이 고조[H]로 실현되고 있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또한 최영미(2015:22-23)은 용언의 성조형 중에서 음평성형을 설정한 바가 있다. 음평성형은 어절의 모두 음절의 음조가 고조로만 실현되고, 억양의 영향을 받아 끝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는 음조형[HHH]와 끝음절이 저조로 실현되는 음조형[HHM]이 있음을 기술한 바가 있다. 이러한 기술은 (16ㄱ)은 평창방언 평1형의 변이음조형으로 기술할 수 있고, (16ㄴ-ㄷ)은 평창방언 음평성형의 음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평창방언에서 평1형의 음조형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 전이되는 요인 중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3.2.4. 평창방언 음조형의 음조

앞의 절에서 평창방언에서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 실현을 살펴보았다. 통계 결과를 토대로 상성형, 평복형, 평1형 음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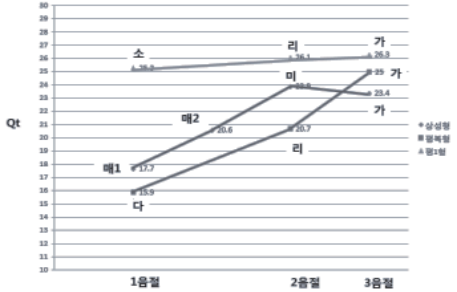
(17) 상성형의 음조
ㄱ. 상성형의 평균 측정 QT사슬은 17.7Qt-20.6Qt-23.9Qt⇩-23.4Qt이다.
ㄴ. 상성형 어절의 1음절은 저조의 음역에서 높은 음조로 상승하는 음조이다.
ㄷ. 상성형 어절의 2음절과 3음절은 고조의 음역에서 실현된다.
ㄹ. 상성형 음조형은 [MHM]과 [MʰH]로 둘 다 실현되고 있다.

(18) 평복형의 음조
ㄱ. 평복형 {다리·가}의 평균 측정 QT사슬은 15.9Qt-20.7Qt-25Qt이다.
ㄴ. 평복형 어절의 2음절과 3음절은 고조의 음역에서 실현된다.
ㄷ. 평복형 어절의 음조형은 [MʰH]로 실현되고 있다.

(19) 평1형의 음조
ㄱ. 평1형 {소·리·가}의 평균 측정 QT사슬은 25.3Qt-26.1Qt-26.3Qt이다.
ㄴ. 평1형 각 음절은 고조의 음역에서 실현된다.
ㄷ. 평1형 어절의 음조형은 [HMH], [HHH], [HHM]으로 실현되고 있다.

(17), (18), (19)에서 제시된 평균 측정 QT사슬을 바탕으로 평창방언의 음조형의 실현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0) 평창방언 음조형의 음조



4. 맺음말

이 연구는 평창방언 음조형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를 실험음성학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평창방언 성조가 갖는 전이적 성격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평창방언의 성조체계는 저조와 고조의 음역을 가지고 있고, 3개의 성조소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평창방언의 상성형, 평복형, 평1형는 각각 다른 음조 실현을 보였다.

ㄱ. 상성형은 평균 측정 QT사슬은 17.7Qt-20.6Qt-23.9Qt⇩-23.4Qt이고, 1음절이 저조의 음역에서 상승하는 음조로 실현된다. 음조형은 [MHM]과 [MmH]으로 표시할 수 있다.

ㄴ. 평복형은 평균 측정 QT사슬은 15.9Qt-20.7Qt-25Qt이고, 1음절이 저조로 실현되며, 끝음절까지 차차로 올라가는 음조로 실현된다. 음조형은 [MmH]로 표시할 수 있다.

ㄷ. 평1형은 평균 측정 QT사슬은 25.3Qt-26.1Qt-26.3Qt이고, 1음절이 고조로 실현되며, 2음절과 3음절의 음조도 고조로 실현된다. 음조형은 [HMH], [HHH], [HHM]으로 표시할 수 있다.

셋째, 평1형의 음조는 평창방언 성조체계 안에서 평1형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성조방언인 평창방언이 비성조방언으로 전이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구희산 외(2000),『음성과학 용어 번역 사전』, 한국문화사.

김기호 외(2000),『음성과학』, 한국문화사.

김무식(1992),「경북 방언 초분절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국어학』22, 국어학회, pp57-86

김봉국(1998),「삼척지역어의 성조 연구」,『국어연구』150, 국어연구회.

김봉국(1999),「삼척지역어의 상승조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관악어문연구』2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29-155

김봉국(2002),「강원도 남부지역 방언의 음운론」,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세진(2006),「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주원(2003),「강원도 동해안 방언 성조의 특성」,『민족문화논총』2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차균(1998),『나랏말과 겨레의 슬기에 바탕을 둔 음운학강의』, 태학사.

김차균(1999),『우리말 방언성조의 비교』, 역락.

김차균(2002ㄱ),『국어 방언 성조론』, 역락.

김차균(2002ㄴ),『영호남 방언 운율 비교』, 역락.

김차균(2003),『영남 방언 성조의 비교』, 역락.

김차균(2006),『중부 동해안 방언의 성조 비교』, 글누림.

김차균 외(2007),「음성학적 기술과 음운론적 처리에 있어 균형적인 사고」,『한글』275, 한글학회, pp5-75.

김차균 외(2008),「Q-tone 청취등급을 이용한 경남 동남부 방언 성조 분석」,『한글』279, 한글학회, pp5-33.

박숙희(2005),「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정민 외(2003),『SPSS 11.0을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양병곤 외(1998),『음성학과 음운론』, 한신문화사.

윤종남(1986),「강릉방언에 대한 초분절음소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상녀(1991),「삼척지역어의 음운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익섭(1972ㄱ),「영동방언의 Suprasegmental Phoneme 체계」,『동대어문』2, 동덕여자대학교, pp17-25.

최영미(2001),「삼척지역어의 운소체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미(2003),「삼척지역어의 장단과 고저에 대한 청취 실험 연구」,『국어교육』110,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pp345-369.

최영미(2009),「정선방언 성조체계와 그 역사적 변천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영미(2014),「평창방언 체언의 성조 연구」,『한말연구』35, 한말연구학회. pp261-296.

Norström, P. E., & Lindblom, B. (1975), A normalization procedure for vowel formant data, *Paper 212 at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phonetics Sciences in Leeds*, August.

Yang, B.-G. (1996), A Comparative study of American English and Korean vowels produced by male and female speakers, *Journal of Phonetics* 24, pp245-261.

□ 토론 □

“평창방언 성조의 실험음성학적 연구”에 대한 토론문

소신애(숭실대)

이 글의 목적은 평창 방언 다음절 체언류의 성조형인 상성형, 평복형, 평1형의 음조 실현을 실험음성학적으로 검증하고, 평창 방언 성조의 전이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평창 방언 성조의 음조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결과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몇 가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1. 평창 방언의 성조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기존 논의와 이 연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들을 위해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성조 기술의 방법론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최영미(2014)의 논의 내용이 좀 더 소개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평창 방언에서 평1형의 음조형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것이 평창 방언이 비성조 방언으로 전이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기술하였다.

① 평창 방언 평1형의 음조형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어떠한 현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가? 본문의 (17)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평창 방언이 비성조 방언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해석은 어떠한 현상에 근거한 것인가? 실제 시간(real time) 자료나 현장 시간(apparent time) 자료에 의해 성조의 변화(소실)가 관찰되는가? 이 연구에서는 현대의 노년층 제보자의 성조 실현만 언급되었으므로, 평창 방언이 비성조 방언으로 전이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전 시기의 자료 또는 중년층 및 청년층 제보자의 성조 실현 양상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③ 평1형의 음조형이 불안정한 현상이 어떠한 측면에서 평창 방언의 성조 변화(소실)에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평1형의 음조형이 억양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도 성조 변화(소실)와 연관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④ 평창 방언이 비성조 방언으로 변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중세 국어(중앙어)의 성조가 소실된 원인 및 과정을 밝히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 설교 담화에 대한 연구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성일(가천대)

<차례>

1. 머리말
2. 설교 담화의 구성 요소
3. '아멘'과 '할렐루야'를 통한 목회자와 청중의 상호작용
4. 맺음말
■ 참고문헌
부록

1. 머리말

이 연구는 교회라는 특수 집단에서 설득을 목표로 행해지는 목회자 설교 담화[1]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활용한 목회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확인한 설교 담화의 설득 기법과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 기법을 유형화한다면, 화법 교육, 특히 공적 말하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종교가 사회언어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사회적 변인이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종교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관련된 언어현상에 대한 연구[2]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라는 특정 집단에서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설교 담화는 교회라는 특수 집단의 언어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언어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설교 담화의 언어적 현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청중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다양한 기법들이 대학에서의 화법 교육, 특히 공적 말하기를 가르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대학에서 <스피치와 토론>이라는 과목을 통해 연설과 토론을 가르치고 있다. 이 과목을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5분 설득 스피치를 수행할 때 소통의 가장 핵심인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그 원인을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말하기와 듣기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은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다양한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말하고 있는 청중의 생각이나 반응을 이해하고, 자

1) 이창덕 외(2010:56)에 따르면 화법교육에서는 담화의 특성에 기대어 담화를 '대화, 면접, 토의, 협상, 토론, 발표, 연설'의 일곱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 대화는 사적 대화와 공적 대화로 구분될 수 있고, 나머지 담화는 공적 말하기에 포함할 수 있다. 설교 담화는 연설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공적 말하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종교 언어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로는 강현석(2012), 한성일(2013) 등이 있다.

신의 연설의 내용이나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청중 또한 나의 반응이 화자의 연설 내용과 방법에 일정한 영향을 끼쳐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얻은 설득 담화의 적합한 구성요소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법들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교육에 적극 활용한다면 소통의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일 낮 예배의 설교 담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설교는 예배의 종류에 따라 시간과 수준이 달라지는데, 새벽예배나 수요예배의 경우는 권사나 집사 등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거나, 믿음 생활을 오래한 성도들이 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설교의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인 반면에 주일 낮 예배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가장 대중적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목회자에 따라 설교의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목회자의 설교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00교회 담임 목사의 주일 낮 설교로 그 연구 대상을 한정한다. 00교회는 출석 성도가 8만 명에 이르는 한국 장로교회 중 최대 규모의 교회로 현재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다. 담임목사는 개신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어, 목회자 설교의 표본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자는 2015년 4월 26일 주일 낮 예배에 직접 참석하여 설교의 주요 내용을 메모하였고, 이 과정에서 목회자와 청중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설교 담화의 전문은 나중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 다시 확인하면서 전사했다.

2. 설교 담화의 구성 요소

설교 담화의 구성을 살피기 전에 교회 예배의 기본 구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다. 교회 예배를 이루는 기본 요소는 기도, 찬송, 성경 말씀, 설교다. 이 예배의 핵심은 설교이고, 설교 주제에 맞게 찬송, 성경 말씀 등이 선정된다. 다음은 명성교회 주일 낮 예배(4월 26일)의 기본 순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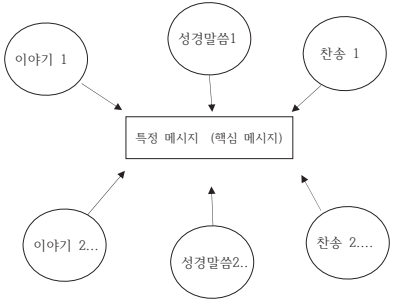
주기도문
기도
신앙고백
찬송 -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성경 - 에베소서 4:25-32
설교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촌
찬송 - 369장 (죄 짐 맡은 우리 구주)
축도

<그림1> 주일 낮 예배 순서

위 사례에서 보면 주일 낮 예배의 경우 목회자는 설교에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배워 우리 이웃을 모두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찬송의 경우도 이러한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을 선택했고, 성경말씀의 경우도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 '아웃과 우리가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서로 친절하게 용서하며 사랑하라'는 내용을 선택했다.

목회자들의 설교 스타일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느 정도 패턴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이야기, 성경 말씀, 찬송 등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실 설교 담화의 핵심 메시지는 항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영원불멸의 핵심 메시지와 함께 목회자는 '우리는 이웃사촌임으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매주일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 메시지를 접목시켜 전달한다.

결국 설교 담화는 '이야기, 성경말씀, 찬송'이 '핵심메시지'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설교 담화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그림2> 설교 담화의 구조

2.1. 이야기

목회자는 설교담화에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목회자 자신의 경험, 주변 사람들의 경험, 신문 방송의 뉴스, 책에서 읽은 내용 등 설교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적절히 전달한다. 이야기는 말하기에서 청중들이 쉽게 잘 기억하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머리로 분석하지 않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석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우선 긍정적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게 해 준다(윤익세, 2006:295).

특히 설교는 자칫 추상적 개념들을 나열하는 것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큰 담화로, 실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추상적 이야기에 머무르다 보니 청중들을 지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설교의 핵심 목표인 감동을 주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1)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이 일본에 의하여 공격받을 때 그 다음 다음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을 멈추고 전 국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으십시오.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어 그 때부터 악마는 착한 사람들은 계속 침범해 왔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용감하게 대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악마에게 승리하게 해 왔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명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미국은 2차 대전을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고 세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든 개인의 위기든 기업의 위기, 어떤 위기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겁니다. (아멘)

위 담화를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해 준다'는 핵심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이 구체적 이야기가 추상적일 수 있는 핵심메시지를 잘 뒷받침해서 청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성경은 이야기의 보고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설득력을 높이는 것도 설교 담화에서 보편적 방법이다.

(2)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병들었을 때 그 국가에 우리 명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벽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부르짖어 병도 고치고 수명도 연장되었다는 성경 속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2.2. 성경 말씀

예배에는 반드시 설교 주제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읽는다. 이 성경 말씀과 별개로 설교 중에 목회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을 계속 인용함으로서 자신의 이야기에 권위를 세워 설득력을 높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rhetoric)』에서 로고스(logos), 에토스(ethos), 파토스(pathos)를 설득의 수단으로 꼽았다. 이 수단은 스피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메시지, 연사, 청중과 각각 관련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에토스는 연사의 인품과 공신력과 관련된다.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진리다. 따라서 성경 말씀 앞에 어떠한 권위도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성경 말씀의 권위를 빌어 청중들을 쉽게 설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볼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고 살아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위 답화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홍수가 범람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편 32편6절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시편 46편 5절의 말씀으로 입증하고 있다.

2.3. 찬송

음악은 언제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준다. 공적 말하기에서 음악을 활용하는 것은 설교가 유일할 것이다. 목회자는 설교 중간 중간에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부여한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설득의 수단 중 파토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온갖 후회와 깨달음을 얻은 청중들의 감정은 찬송가를 들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부르며 더욱 커지게 되고, 결국 목회자의 설교에 설득 당하게 된다.

(4)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그들이 힘으로 해결했다면 했다면 벌써 망했어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인간이 위대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더 크고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보다 더욱 위대하시며,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 '주님이 내편에서 항상 돕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찬송을 불러 핵심메시지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3. '아멘'과 '할렐루야'를 통한 목회자와 청중의 상호작용

일반적으로 모두 담화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그런데 대화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분명하게 이뤄지는 데 반해, 설교와 같은 공적 담화의 경우는 청중의 반

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대화에서 청중의 반응, 특히 공감의 반응은 '맞장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장구는 주도적으로 말하는 화자에 대해 청자가 보이는 반응 중의 한 가지로, 보통 화자와 그 발화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을 말한다(노은희, 2002:247).

맞장구는 화자의 기분을 좋게 하고, 이야기할 의욕을 생기게 하며,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맞장구는 가장 협조적인 대화 행위로, 청자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맞장구가 대화와 같은 사적 말하기와는 달리 공적 말하기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설교 시 목회자의 메시지에 화답하는 청중들의 '아멘'은 매우 효율적인 맞장구라고 할 수 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 중간 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큰 덕목으로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아멘'과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목회자와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이뤄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살피고자 한다.

3.1.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는 대목이 나온다. 이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아멘(amen)'이 나온다. 이때 아멘은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라는 확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확실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아멘'이라는 표현이 후에 개신교 예배에서 받아들여져, 기도가 끝나거나 성경낭독이 끝날 때 사용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아멘'이 설교 중에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청중들은 목회자의 설교 중간 중간에 '믿음'의 의미 외에도 '동의'와 '격려'의 의미로 아멘을 적극 사용한다. 목회자도 설교 중간 중간에 "믿으시면 아멘!", "아멘도 안 하네"라는 표현을 통해 성도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동의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5) 세상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찾습니다. 명예를 찾고 해결해 줄 브로커를 찾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몸이 아파도 만병의 대의 병을 고치실 이는 예수그리스도뿐입니다. (아멘)

(6)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7) 병도 축소시켜야 하고 문제를 줄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애들 싸움이 집안싸움이 되고 감기 몸살이 온 몸에 암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빨리 축소해서 해결해야 돼요. (아멘)
어려운 문제에서는 나라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8) 이웃과의 모든 화평, 관계가 사존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도 창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10) 지난날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교훈을 얻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산주의 지난 것을 들추지 말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아멘)**
예수 믿으면 다 이웃사촌입니다. (아멘)

3.2. 할렐루야

'할렐루야(hallelujah)'는 '찬양하라'는 뜻의 '할레루'와 '여호와'의 '야'가 합성된 히브리어로 '여호아를 찬양하라'는 뜻이다. 구약성경 시편에 23번 등장하며, 신약성경의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에 4번 등장한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표현을 예배에 채택한 이래 현재 천주교와 개신교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로 찬송가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할렐루야'가 설교에서는 하나의 단락에서 메시지를 강조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분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청중의 공감대를 최고조로 높일 때 주로 사용된다.

(11) 김대중 대통령 출마했을 때 나는 경상도 사람이지만, 나는 우리 교회 당회에서 장로님들 앞에 결의했어요.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총회에서도 날 공격하고..... 나누지 마라 말이에요. 그 분이 대통령 된 후에 고맙게도 기독교 교도소 짓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내 지역이지 예수 믿고 나서 내 지역이 어딨어요?
천국 가면 전라도 천국이 있고, 경상도 천국이 있어요? **(웃음)**
교인들이 왜 나눕니까? 너무 나누지 말자구요. **(아멘)**
예수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기독교 대표로 갔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많이 오고, "어떻게 오셨느냐?"라고 물어서 "우리 가톨릭의 큰 지도자시고, 가톨릭은 우리 큰집이라 위로하려고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항의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가톨릭이 우리 큰집이냐?", "그럼 문상 가서 작은 집에 왔다고 그래요?" **(웃음)**
장례식 가서 싸우고 그래야 하나요? 축복을 받은 나라에서 왜 그래야 합니까?
서로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위로해 주고 그래야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잔 말

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위 예문은 설교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전직 대통령과 추기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웃사촌으로 서로 용서하고 배려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이 설교 담화의 핵심 메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설교의 내용이 절정으로 치닫고, 이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청중들에게 목회자는 '할렐루야'라고 소리치면, 청중들은 다시 '아멘'으로 화답한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들 정말 공감하지요?'라고 재차 확인하는 목회자에게 '우리는 정말 공감합니다.'라고 확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할렐루야'라는 물음과 '아멘'이라는 답변을 통해서 목회자와 청중이 오늘의 메시지에 완전히 공감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 담화는 이야기, 성경말씀, 찬송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목회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특정메시지(핵심메시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설교 담화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각각 설득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설교 담화에서 목회자와 청중은 '아멘'과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이 표현이 공감대 형성이라는 설교 담화의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학계의 관심 밖에 있었던 종교집단의 특정 담화 양상을 분석하고, '아멘, 할렐루야'와 같은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의미 기능을 살폈다.
둘째, 텍스트 분석에 머물렀던 기존의 공적 말하기 연구[3]에서 벗어나 연사와 청중의 상호작용과정을 분석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목회자의 설교를 대상으로 했기에 그 대표성에 한계를 갖는다.
둘째, 설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언어적 요소들을 통한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없어 연사와 청중의 상호작용을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지 못했다.

3) 김종영(2000, 2001), 이재원(2013)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 참고문헌

강현석(2012), 기독교와 불교 기도문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 문형, 화행과 청자 경어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0-2, 1-31쪽.

권순희(2002), 청자를 고려한 대화 방법, 『화법연구』 4, 215- 243쪽.

김갑년(2008), 성공적 발표를 위한 소고, 『텍스트언어학』 25, 57-79쪽.

김종영(2000), 히틀러의 1937년 10월 4일 연설문 분석, 『텍스트언어학』 8, 299-331쪽.

김종영(2001), 괴벨스의 연설 "여러분들은 전면전을 원하십니까?" 분석-종결부에 나타난 대중 설득적 특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11, 177-197쪽.

노은희(2002), 청자의 맞장구 유형과 기능 연구, 『화법연구』 4, 245-269쪽.

샘 리스 지음/정미나 옮김(2014), 『레토릭: 세상을 움직인 설득의 비밀』, 청어람미디어.

스피치와 토론 출간위원회 지음(2014), 『소통의 기초 스피치와 토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윤익세(2006),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연구, 『칼빈논단』 26, 칼빈대학교, 287-333쪽.

이재원(2013), 대통령 취임사는 제의적인가?-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텍스트언어학』 34, 157-178쪽

이창덕 외(2010), 『화법교육론』, 역락출판사.

최영인(2012), 청중 분석을 통한 설득 스피치 구성 연구, 『화법연구』 21, 319-347쪽.

한성일(2013), 교회 안에서의 특정 어휘의 의미 변화 양상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33, 301-330쪽.

부록 : 설교 담화 전문[4] (2015년 4월 26일 00교회 주일 낮 설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촌

사람이 다 살면서 모두 병들기 마련인데 중한 병에 걸리면 어디 병원에 가야할 까 유명한 병원을 찾게 되고, 어느 의사를 만날까 유명한 의사를 찾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사건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변호사를 만날까, 어느 판사를 만날까 어느 높은 사람을 만날까하며 길을 찾게 됩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나 대체로 문제를 만나보면 길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많은데도 내 병을 고쳐줄 좋은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방황하면서
"속초에 가면 좋은 의사가 있단다". 속초로 갔다가 전국을 헤매입니다. 또 중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저는 저희 교인들을 많이 그런 면에서 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정신이 없습니다. 이리로 가야하나 저리로 가야하나 나중에 보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문제를 찾습니다. 명예를 찾고 해결해 줄 브로커를 찾습니다.
그러나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몸이 아파도 만병의 대의 병을 고치실 이는 예수그리스도뿐입니다. - (아멘)

4) 분량 관계상 앞부분 일부만 게재했음.

사건이 일어나도 어느 판사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재판장이다. 내가 재판장이다”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나 기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병들었을 때 그 국가에 우리 명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벽을 향하여 가슴을 치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위기를 만날 때 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사는 동안 천 가지 만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걱정 근심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곤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
시편 32편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볼 때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길을 찾지 않고 살아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건지리라 내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드리는 예배가 감격스럽고 드리는 찬송이 감격스럽고 우리의 기도가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무엘상 7장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국토가 피폐하고 나라가 위기에 왔습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 광장에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서 블레셋의 위기로부터 나라를 건져내고 부강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모략으로 인하여 전 민족이 죽음 앞에 있었고 왕비인 에스더는 금식 기도하면 삼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앗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탄 군인이 없습니다. 해산할 여인이 힘이 없어 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는 하나님, 믿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 믿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세월호 때문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원인규명이 안 되었다고 그 상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극한 대립이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처만도 걷잡을 수 없는데, 핵폭탄 같은 성완종 사건이 터져서 모든 종편들이 하루종일 이것만 돌립니다. “이대 교수님 나오시죠. 숙대교수님 나오시죠.” 이 국회의원 저 국회의원 나와서 ,이 신문, 저 신문이 떠들어서
온 국민은 성씨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성완종 사건으로 온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보다 더한 전쟁도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데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습할 때 국무총리, 도지사 몰아내고 집어넣으면 수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끝없이 너 죽고 나 죽어야 되고 전국민이 없어져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가 죽고 총리가 죽는게 아니예요. 나라가 죽는거예요.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를 살려야 해요. 나라를 (아멘)
병도 축소시켜야 하고 문제를 줄여서 해결해야 합니다. 애들 싸움이 집안싸움이 되고 감기 몸살이 온 몸에 암이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는 빨리 축소해서 해결해야 돼요. (아멘)
어려운 문제에서는 나라를 먼저 살려야 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부부간의 불만이 있어도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분은 자기가 섭섭한 것이 있어도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성가대원은 파트 쪽으로 연습할 때는 파트를 생각하고 성가대 전체가 모일 때는 성가대를 먼저 생각하지만, 교회에서는 성가대원도 교인으로 성가대를 섬겨야지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강동구에 있을 때는 강동구를, 서울시에 있을 때는 서울시를, 서울시와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을 살릴려고 해야 합니다. 남한과 북한이 싸우면 남한 편을 들고, 북한이 일본하고 싸우면 북한 편을 들어야 합니다. (웃음)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남북한이 하나예요. 통일될 미래를 바라보면서 북한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사람이 수를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안 돼요.
나라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든 대한민국인데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서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만든 이 자유민주국가를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아멘)
어떻게 일으킨 경젠데. 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나라의 축복과 번영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우리 선조 한분 한분들이 희생하고 수고한 지난 역사를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매어있는 겁니다. 바다에 매여 있고, 성씨에 매여 있고. 그렇다고 성씨를 짓밟고 욕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욕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모두 일어나서 함께 나가서 성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기도해서 나라를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강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모스 5장 "벧엘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벧엘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아멘)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이 일본에 의하여 공격받을 때 그 다음 다음날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 국민에게 정규 라디오 프로그램을 멈추고 전 국민들에게 발표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예수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오 그 때부터 악마는 착한 사람들은 계속 침범해 왔습니다. 그러나 악마와 용감하게 대결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게 악마에 해 왔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명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미국은 2차대전을 승리하는 나라로 만들고 세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든 개인의 위기든 기업의 위기, 어떤 위기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겁니다.

1863년 4월 30일 링컨대통령은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링컨대통령 자신의 힘이나 국가의 힘이나 정치 군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 겁니다. "나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날로 섬기고 기도에 참석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온 나라가 기도 일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건물도 지은 분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것이지 지은 회사가 있어요. 우리 인간도 만

든 분이 있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어놓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물질이든 자연이든, 땅 아래 있는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미국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만 그들이 힘으로 해결했다면 했다면 벌써 망했어요.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략)

□ 토론 □

“교회 설교 담화에 대한 연구-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김정호(춘천교대)

이 연구는 교회의 설교 담화와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활용한 목회자와 청중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토론자로서는 매우 생소할 수 있는 교회 설교의 장면들을 논문을 읽으면서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논문을 읽으며 생각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논문의 기대 효과를 ‘설교 담화의 설득 기법과 청중과의 공감대 형성 기법을 유형화한다면 화법교육과 공적 말하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멘’, ‘할렐루야’의 공감대 형성 기능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하기 교육에 적극 활용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의 적용과 활용이 가능할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궁금합니다.

1. 발표문에서 밝힌 것처럼 교회의 설교 담화는 ‘이야기, 성경말씀, 찬송’이 핵심 메세지를 뒷받침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설득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핵심 메세지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그 메세지의 ‘영원불멸’의 성격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 내용이 핵심 메세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청중 또한 그 내용을 기대하며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득 담화의 장면에서는 핵심 메세지가 설교에서처럼 고정될 수 없습니다.

2. 논문의 대상 텍스트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에서 이루어진 가장 존경받는 설교자의 주일 낮 예배입니다. 설교가 이루어진 장소와 설교자의 권위가 청중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득 담화의 발화자에겐 그러한 권위가 없습니다.

3. 발표문에 의하면 ‘아멘’은 청중이 설교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표현하는 맞장구이며, ‘할렐루야’는 설교의 정점에서 설교자가 청중에게 동의를 구하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청중은 설교 중 언제라도 ‘아멘’으로 설교의 내용에 맞장구 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설교자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공감대 형성의 형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설득 담화의 장면에서는 청중들의 열의가 교회보다 낮은 편이며, 청중들이 자신의 열의를 표현할 형식적 방법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 논문의 기획은 분래 교회의 설교 담화를 분석하여 이를 화법 교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자의 의문은 그저 선생님께서 새로이 완성할 논문에 대한 갈구일 뿐입니다. 익숙지 않은 분야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은 질문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